

2023학년도

취업 스토리북

STORIES OF SUCCES IN EMPLOYMENT



발 간 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시대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따라 산업구조와 취업시장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취업스토리북」은 이러한 환경 변화와 미래에 대비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각각의 스토리를 공유하며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취업에 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꿈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한 많은 선배들의 선례를 참고하여 우리 학생들이 보다 성공적으로 취업에 대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건양대학교는 언제나 학생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진로부터 취업까지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진로 탐색 강화 및 취업 정책의 변화에 따라, 사회의 수요에 맞춘 진로 및 취업 교육과정 개편 및 비교과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진로 취창업동기유발 프로그램을 학과 및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모듈화하여 개편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들을 적극 활용하여 실제 취업시장에서도 역량을 갖추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쁜 와중에도 다양한 직업 분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후배들을 위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준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건양대학교는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지 도와주고 함께 헤쳐나가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자신을 믿으며 항상 힘을 내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모든 학생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1.

건양대학교 학생처장 

격려사

건양대학교는 인간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혁신대학으로 맞춤형 진로 및 취업 교육 혁신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취업지원센터는 재미있는 진로교육과 스토리있는 취업교육을 핵심가치로 삼아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우리 대학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2022년 12월 31일 기준)>에서 취업을 77.7%를 기록하며, 최근 5개년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2년 연속 순수취업률 전국 3위(비수도권 대학 중 1위)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취업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불확실한 미래에서도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원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 스토리북」은 2017년부터 매년 발간되어 올해 일곱 번째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많은 졸업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성공을 거두었는지, 취업 과정에서 마주한 어려움이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해줌으로 우리 학생들이 많은 동기부여와 격려, 그리고 유용한 조언을 얻었습니다. 사회생활로 바쁜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경험을 글로 담아준 졸업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도움을 통해 새로운 성공 취업스토리를 만들어나갈 재학생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소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취업지원센터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스토리북」 발간을 위해 도움을 주신 졸업생 선배 여러분과 학과 교수님, 그리고 취업지원센터의 직원 선생님들께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 1.

건양대학교 학생처장 송민선

CONTENTS



‘코로나 학번’의 취업 성공 전략

계열별 취업 스토리

1. 간호	
간호학과	30
2. 군사경찰	
국방경찰행정학부	41
군사학과	51
3. 글로벌경영	
글로벌경영학부	62
금융국제학과	73
금융학과	78
세무학과	82
4. 의과학	
물리치료학과	88
방사선학과	92
병원경영학과	105
안경광학과	111
응급구조학과	123
임상병리학과	128
작업치료학과	140
치위생학과	150
5. 의료공과	
의료공간디자인학과	156
의료신소재학과	162
6. 재활복지	
아동교육학과	168
중등특수교육학과	178
디지털콘텐츠학과	189
사회복지학과	195
심리상담치료학과	206
초등특수교육과	217
7. AI·SW융합	
사이버보안학과	223
8. 창의융합	
글로벌의료뷰티학과	228
의약바이오학과	233
임상약학과	237

‘코로나 학번’의 취업 성공 전략



‘코로나 학번’의 취업 성공 전략

(기-승-전-경험,
경험으로 경력을 대신하자!)

진로취업 선임 컨설턴트 유미



2017년부터 시작된 취업스토리북은 올해로 발간 7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취업 정보 및 취업 전략, 우수 취업 사례 등에 관해 써 왔습니다. 우리 학생들 기준으로 실제 피부에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적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했으며, 이에 대해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본교에서 진로취업 컨설턴트로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취업 준비를 하는 많은 학생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학생 맞춤으로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다수의 취업 성공 성과를 이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대유행으로 사회는 혼란에 휩싸였고, 이 시기를 겪은 대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대학 생활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 진로취업 상담실을 찾아와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 취업에 대한 막막함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여 『2023 취업스토리북』에서는 올해 취업 시장으로 뛰어드는 ‘코로나 학번’의 취업 성공 전략에 대해서 ‘경험’을 중심으로 다뤄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학번’이란?

‘코로나 학번’이란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이전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한 학생들을 일컫습니다. 보통 19학번부터 23학번까지의 학생들이지만, 입대와 휴학 등까지 포함하면 그 범위는 더 넓어집니다. 이들은 COVID-19로 인하여 수업, 동아리, 현장실습, 인턴, 어학연수, 교환학생 등의 대면 활동에 제약을 받은 대학생 세대입니다.

코로나 기승이 시작된 2020년, 대학가들은 확산을 막기 위해 강의실에서 진행되던 수업 대신 줌(zoom)을 통한 화상 강의와 온라인 시험 등으로 대체하였습니다. 특히 20학번들은 연초부터 일파만파 퍼진 코로나 사태 여파로 학교에 한 번 가 보지도 못하고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을 온라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신입생 환영회, 개강 파티, MT, 체육대회, 대학 축제 같은 대학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며 기대해 마지않던 대학 생활의 로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금방 끝날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놀라운 전염성과 각종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으며, 결국 코로나 팬데믹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언제쯤 끝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 학번’은 3년 가까이 대학 생활을 즐기지 못했고, 스펙이 될 실무 경험도 쌓지 못한 채 대학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학번 취준생의 처지에서 억울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던 탓에 선후배 · 동기들과의 교류를 거의 하지 못했고, 취업한 선배들과의 교류는 더욱더욱 없어서서 취업 준비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고 일상생활이 회복되면서 다시 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학교에 왔지만, 동기들과도 서먹하고 갑자기 어려워진 전공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속출했습니다. 전공 관련 진로 분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직무 설정도

못 하고, '과연 취업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비대면 대학 생활을 보낸 '코로나 학번'이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취업 시장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학번'에 대한 기업의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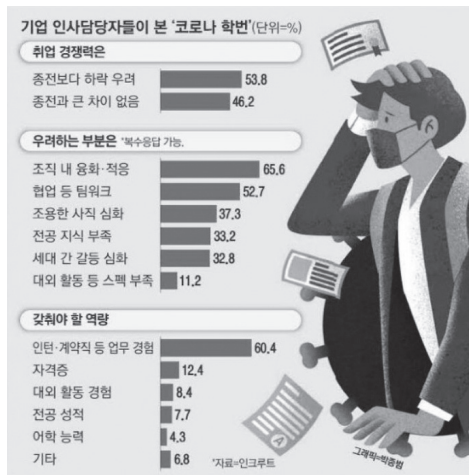
'코로나 학번'의 사회 진출을 앞두고 기업 채용담당자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업들은 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부족하고 대면으로 소통하는 것에 서툴기 때문에 실제 직장에서 원활한 근무가 가능할지 의문이 큰 상황입니다.

실제 국내 기업에 재직 중인 인사담당자들이 코로나 학번의 취업경쟁력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3년 5월 1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 등에 따르면,

국내 인사담당자 44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절반 이상(53.8%)은 '코로나 학번의 취업 시장 진출에 관해 부정적인 고민을 해 본 적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기업에서 코로나 학번을 채용할 때 우려하는 점으로는 사회성 부족, 전공지식의 부족, 학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서류상 변별력의 저하라 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는 특

[그림 1]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본 '코로나 학번'



출처: 인크루트

히 코로나 학번이 다른 세대보다 사회성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합니다. 상대적으로 사회 경험과 대외 활동이 부족하고, 대면 소통을 낯설어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의 말에 의하면, “비대면 수업이 일반화되고 팀 프로젝트나 대외 활동 경험이 줄어든 세대인 만큼 조직 융화에 대해 염려하는 인사담당자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듯 인크루트에서 국내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부정적인 고민을 해 봤다는 응답자(복수 응답)의 65.6%가 ‘조직 내 융화와 적응’을 걱정했습니다. ‘협업·팀워크 우려(52.7%)’와 ‘세대 간 갈등 심화 우려(32.8%)’도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미 코로나 학번을 채용한 기업들의 경우, 온라인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대면 면접에서는 크게 다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거나, 채용 확정 후엔 대학에서 배웠어야 할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어 실무에서 난감함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코로나 학번에 대한 부정적 고민을 해 본 인사담당자 3명 중 1명(33.2%)은 코로나 학번의 ‘전공지식 부족’을 걱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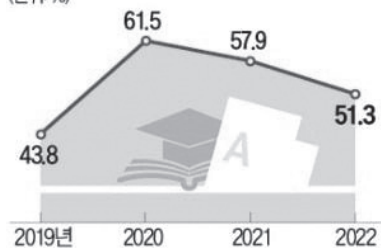
대학 성적으로 지원자를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비교적 쉽게 좋은 학점을 받는 이른바 ‘학점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학점 인플레이션 때문에 변별력이 사라졌다.”고 답한 인사담당자가 90.3%에 달했습니다. 대학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주요 수도권 대학에서 학점 인플

[그림 2] 서울 주요 11개 대학의 A학점 비중

서울 주요 11개 대학의 A학점 비중

(단위: %)



※A학점은 A+, A, A0 포함

재학생의 전공·교양·교직 성적 기준

자료: 대학알리미

출처: 한국경제신문, 대학알리미

레이션이 나타나자, 지방대도 덩달아 후한 학점을 부여하면서 코로나 학번들의 학점은 유례없이 높은 수준을 보입니다. 모 지방의 대학 관계자는 “지방대는 상위권 대학 학생보다 학점이 낮으면 취업할 때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주요 대학의 학점 변화를 예민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5월 10일 한국경제신문이 4년 동안의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주요 11개 대학(서울대 · 연세대 · 고려대 · 서강대 · 성균관대 · 이화여대 · 한양대 · 중앙대 · 경희대 · 한국외국어대 · 서울시립대)의 A학점 비중은 지난해 51.3%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학번이 입학한 2020년(61.5%)에 비해 10.2% 포인트 낮아졌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43.8%)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경험의 필요성

이렇듯 기업의 ‘코로나 학번’에 대한 채용 우려 속에서도 취업에 성공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답은 바로 지원자가 기업에서 ‘우려하는 점’을 해소해 주는 데 있을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온라인, 메타버스 등 비대면 상황에 익숙한 대학생들이 현실 세계에서 전반적인 부적응을 보일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면 활동에서 각종 적응을 잘하고, 대인관계 부분에서 문제없이 잘 대응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강점을 기업에 효과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해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사회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대외 활동, 어학연수, 현장실습, 인턴, 봉사 활동, 동아리, 근로 장학생, 아르바이트 등 각종 경험을 통해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사람들과 부대끼며 어려움을 겪어 보고 이를 해결도 해 보면서 사회성 및 여러 가지 역량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험을 통한 역량 어필은 ‘전공 부족’이나 ‘학점 인플레이션’과 같은 기업의 우려

또한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채용포털 인크루트의 조사에서 ‘코로나 학번이 갖췄으면 하는 필수 역량’으로 ‘인턴 등 사회 경험’을 60.4%로 압도적으로 많이 꼽았습니다(그림 1 참고). 사회 경험이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절반 이상인 53.4%는 ‘사회 경험이 지원 직무와 연관성이 떨어져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경험은 꼭 희망 직무와 관련이 있는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대학교 대·내외의 단체나 조직 내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일을 해 보았는가?’, ‘다양한 환경을 경험해 보았는가?’, ‘여러 사람과 함께해 보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직무 관련 인턴이나 현장실습 경험을 쌓는다면 좋겠지만, 여의찮다면 직무와 관련이 없는 활동이나 경험도 괜찮습니다. 기업이 신입 지원자에게 보고 싶은 건 ‘지원자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협업할 준비가 돼 있느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들이 지원자들의 책임감과 적응력 등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학번은 아무래도 캠퍼스 생활을 얼마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다 보니, 자신의 흥미 적성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을 해 봐야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무엇을 할 때 보람을 느끼는지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자기 분석을 통해 진로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취업상담실에서 만난 A학생이 생각합니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무슨 일을 하지? 전공을 살릴까? 관련 직업은 무엇이 있지? 어떤 일이 잘 맞을까?’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혼자서는 너무 답답하기만 하여 상담실 문을 두드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경험을 물으니, 4학년이 되도록 흔한 편의점이나 식당 아르바이트 경험도 없고 학교 수업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해 본 것이 별로 없다 보니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에 대해 알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그런데 비단 이 학생만이 아닙니다. 비슷한 고민으로 취업상담실을 찾는 4학년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또 한 명의 B학생이 기억에 남습니다. 같은 4학년으로 모기업에 입사 지원을 위해 자소서 컨설팅을 신청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이력서에 빼곡히 적은 각종 대·내외 활동을 보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코로나 발발 후 1년 반 정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조금씩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공모전에도 도전하고, 기숙사에 들어간 후 학과 선배들과의 안면도 트고, 학과 임원도 해 보는 등 되도록 많은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집에만 있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거라는 조바심이 났고, 뭐라도 해 보자는 생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력서에 많은 활동을 적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활동 중 자기소개서 항목에 어떤 경험을 효과적으로 녹여 내야 할지 행복한(?) 고민을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다양한 사회 경험은 자기소개서의 좋은 소재가 됩니다. 기업들은 조직의 적합성 및 직무의 적합성을 보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파악합니다. 이 때문에 자기소개서 항목을 서술형으로 바뀌서 개인의 과거 경험을 통해 미래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던집니다. 이러한 자기소개서를 '역량 기반 자기소개서'라고 부릅니다.

다음 [표 1]을 통해 자기소개서 항목 변화를 눈여겨보기를 바랍니다.

[표 1] 자기소개서 항목의 변화

구분	자소서 항목
전통 방식 자기소개서	1. 성장 과정 2. 성격의 장단점 3. 학창 생활 4. 특기 사항 5. 지원 동기 6. 입사 후 포부

역량 기반 자기소개서	예시) 2023 하반기 한전KPS 자소서(1,500자) - 본인의 경험 중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의 원인을 찾아 극복하고 해결했던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자 내외) - 당시 문제가 되었던 상황은 무엇이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원인을 찾아냈습니까? - 원인을 극복하며 포기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학교생활, 동아리, 동호회 등 조직 내 일원으로서 동료들과 협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자 내외) - 본인이 수행한 업무가 무엇이며 왜 그러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까? - 사람들과 함께 일을 처리해 나가면서 그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추가적으로 기울인 노력과 그 결과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약속과 원칙을 지켜 신뢰를 형성하거나 지킨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자 내외) -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약속과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 일을 계기로 본인에게 생긴 변화 또는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	---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 방식의 자기소개서에 비해 역량 기반의 자기소개서는 우선 항목이 훨씬 길고 요구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 문항의 구체성 및 글자 수 제한 부분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혹시 자기소개서 문항을 통해 공통으로 발견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확인하였나요?

바로 '경험'(사례)입니다! 즉, 기업에서는 지원자의 과거 경험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과거 경험은 왜 물을까요? 지원자가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과거 경험을 통해 검증하여 입사 후 기업과 직무에 적합한지를 예측하기 위함입니다. 1차로 서류 전형인 자기소개서를 통해 지원자의 필수 역량을 가늠해 보고, 면접 전형에서 2차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용 전형 내에서 최대한 지원자의 보유 역량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서류 전형부터 자기소개서에 지원자의 상세한 경험(스토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험의 보유 여부는 입사 지원 시 매우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물론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며 전공 이론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업 외의 다른 사회 경험을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 성공 및 실패 경험을 하면서 성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현재 시점에 본인의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대외 활동 및 사회 경험을 쌓아 보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 여러분의 취업경쟁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험

• 현장실습

먼저 교내에서 쌓을 수 있는 대표적 경험으로서 직무 관련 실무를 배워 볼 수 있는 현장실습이 있습니다. 현장실습은 학과별 수요조사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라는 교과목으로 개설되며, 실습을 하게 되면 학점 인정 및 실습지원비를 받

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3·4학년 재학생이나, 제외되는 일부 학과가 있으니
다음 [표 2]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표 2] 현장실습 제외 대상 학과

※ 현장실습 제외 대상 학과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에 해당)

- 1) ‘교원자격검정원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시행대상 학과
-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시행대상 학과
- 3)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시행대상 학과
-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실습 시행대상 학과
-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ICT인턴
- 6) ‘한국보건 의료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 시험대상 학과
- 7) 기타(‘교육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영양교육평가원’ 등) 전문
자격취득을 위한 실습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현장실습지원센터] 041)730-5152

• 국가근로장학생

두 번째 교내에서 쌓을 수 있는 실무 경험으로 국가근로장학생이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생은 학적 및 성적, 학자금 지원 구간, 다자녀 여부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정되면, 교내 행정 부서 및 교외 근로 기관에서 1일 최대 8시간을 근무할 수 있으며, 본인이 입력한 온라인 출근부 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생의 경험이 가성비 높은 이유는 교내의 행정 부서에서 일을 하므

로 수업, 과제 등 바쁜 일정 속에서 오가는 시간이 단축되고, 교내 다양한 부서의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어서 관련 직무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실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외 근로를 한다면, 최저시급보다 더 높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 전공 관련 동아리 활동, 학과 내 실험실 활동도 유용하고, 학교 또는 학과의 다양한 국고 사업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들이 있으니 잘 알아보고 지원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업과 학교와의 연계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같은 산업군 취업 시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학교나 학과의 다양한 소통 채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홍보와 안내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비교과 콘텐츠 정보를 주기적으로 탐색하여 꼭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 인턴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험은 인턴, 공모전, 서포터즈, 동아리, 기자단 활동, 아르바이트 등 다양합니다. 이 중에 기업에서 신입 채용 시 실무 경험으로서 가장 인정해 주는 경험은 바로 인턴입니다. 기업은 체험형 인턴과 채용형 인턴을 구분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체험형 인턴은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며, 인턴을 수료한 사람이 해당 기업에 지원할 때, 서류 전형을 면제해 주거나 가산점을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실제 인턴으로 하는 업무가 극히 제한적이고 직무상 중요한 업무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일을 하는 자세나 태도,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는 태도 등 인성적인 부분을 함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턴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실무 경험으로서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채용형 인턴은 기업에서 채용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정규직 채용 방식의 하나입니다. 인턴으로 일한 후 평가를 거쳐 합격하면 정규 신입사원으로 발령받아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정규직 채용에 지원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체험형 인턴과 비교하면 경쟁률이 세고, 합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외 활동으로서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 목적이라면 ‘채용형 인턴’보다는 ‘체험형 인턴’에 도전하고, 추후 취업 준비가 되었을 때는 ‘채용형 인턴’에 지원해 보길 바랍니다.

• 공모전

공모전은 교내 공모전으로 시작하여 교외에서 하는 공신력 있고 규모가 큰 공모전에도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 해당 기업에서 여는 공모전에 참여해 보는 것이 가장 좋고, 기업은 정하지 않았는데 하고 싶은 일은 정했다면 해당 직무 관련 공모전을 찾아 도전해 보세요. 공모전 진행 과정을 통해 직무에 관한 관심, 협업능력, 대인관계능력, 커뮤니케이션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모전에 관한 정보를 얻기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를 알려 드리니 다음 [표 3]을 참고해 보세요.

[표 3] 공모전, 대외 활동 추천 사이트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장점
위비티	www.wevity.com	공모전+대외 활동 분야별/대상별 세세한 구분 수상 노하우/당선작 리스트 등 제공
링크리어	linkareer.com	공모전+대외 활동+동아리+채용 정보 기업/직무/키워드별 분류, 커뮤니티 활성화
올콘	www.all-con.co.kr	공모전+대외 활동 일반인과 대학생/청소년 구분 기자단, 서포터즈, 봉사활동, 인턴십, 캠프, 강연 등 대외 활동 정보 매일 업데이트

씽유	thinkyou.co.kr	공모전+대외 활동+서포터즈 분야별/응모 대상자별/시상금별/ 주최사별 구분
씽굿	www.thinkcontest.com	공모전+대외 활동 주최사+입상자 인터뷰, 입상 전략 등 제공
요즘것들	www.allforyoung.com	공모전+대외 활동+국비 교육
캠퍼스픽	www.campuspick.com	공모전+대외 활동+동아리+스터디 에브리타임에서도 이용 가능, 팀원 모집 가능

• 아르바이트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취준생은 경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취업에 도전하는데, 이때 아르바이트 경험은 중요한 이력으로 작용합니다. 지원하는 회사의 산업과 부합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직무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는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이를 통해 기본 업무를 익히고 현장 분위기를 경험함으로써 직무에 필요한 기본기를 갖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하는 기업을 선택해 해당 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유통 · 물류 기업들은 자사의 편의점에서 근무한 경력을 취업 시 우대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은 영리한 취업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표 4]를 통해 여러 직무 관련 아르바이트 중에서 스펙이 되는 아르바이트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표 4] 직무 관련 스펙이 되는 아르바이트

직종 구분	대표 아르바이트 및 직무 연계점
물류 · 유통	-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물류·유통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경험 - 물건의 재고 관리부터 정산 업무, 매장 관리까지 다양한 업무를 다룰 수 있는 경험 - 단독 업무를 맡아 책임지는 경험을 통해 책임감, 대인관계 능력, 자원관리능력, 문제해결능력을 배울 수 있음
서비스 · 판매	-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백화점 판매 아르바이트는 서비스·판매 직무에 필요한 경험을 쌓기에 적합 - 다양한 성향의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어,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능력, 설득력, 서비스 마인드, 협업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음
마케팅 · 홍보	- 마케팅 홍보 분야 경험은 기업의 소통능력과 의견피력능력을 키우는 데 유리 - 설문조사, 시장조사, 홍보·광고 대행사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자료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 정보능력, 문제해결능력, 협업, 조직이해능력, 수리능력, 트렌드를 예측하는 눈을 기를 수 있음
재무 · 회계	- 연말정산 시즌에 일하는 재무·회계 아르바이트는 관련 직무에 필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 - 세무법인, 보험사, 병원, 관공서 등에서 업무를 경험하면서 직업윤리, 수리능력, 협업능력, 조직이해능력, 자원관리능력 등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경험의 효과적 어필

이제, 이렇게 쌓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소개서에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까요?

• 경험 정리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할 때 너무 스토리가 없어서 물어보면, 학생들이 저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뭐 해 본 게 없어서 쓸 게 없어요.’라며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정말 학교와 집만 오가면서 아르바이트 하나도 안 해 본 학생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한 게 없어서’가 아니라, 했지만 ‘기억이 안 나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분명 내가 했던 활동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본인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싶은 경험도 자소서 스토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된 기억은 아무리 스토리로 풀어내려고 해도 그때 당시 내가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잘하고 못했는지, 배운 점은 무엇이었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나의 활동을 기록하길 바랍니다.

이처럼 자기소개서 작성에 앞서 먼저 ‘경험 정리’를 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험 정리’란 말 그대로 대학 생활 동안 내가 했던 모든 경험을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 [표 5]의 양식을 참고해도 되고, 각자 편한 방식과 도구로 기록하되, 역량 도출은 ‘직업기초능력’을 정리한 [표 6]을 참고하면 됩니다.

[표 5] 경험 정리 양식

시기	활동명	내 역할	과정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배운 점 (역량*)
1-1	①			
	②			

하계방학	①			
	②			
1-2	①			
	②			
동계방학	①			
	②			
2-1	①			
	②			
하계방학	①			
	②			
2-2	①			
	②			
동계방학	①			
	②			
3-1	①			
	②			
하계방학	①			
	②			
3-2	①			
	②			
동계방학	①			
	②			
4-1	①			
	②			
하계방학	①			
	②			
4-2	①			
	②			
동계방학	①			
	②			

* 역량 : 직업기초능력.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인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기본적 능력 및 자질.

[표 6] 직업기초능력

영역(10개)	하위 영역(34개)
의사소통능력	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력, 경청능력, 의사표현능력, 기초외국어능력
자원관리능력	시간관리능력, 예산관리능력, 물적자원관리능력, 인적자원관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사고력, 문제처리능력
정보능력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능력
조직이해능력	국제감각, 조직체제이해능력, 경영이해능력, 업무이해능력
수리능력	기초연산능력, 기초통계능력, 도표분석능력, 도표작성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아인식능력, 자기관리능력, 경력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	팀워크능력, 리더십능력, 갈등관리능력, 협상능력, 고객서비스능력
기술능력	기술이해능력, 기술선택능력, 기술적용능력
직업윤리	근로윤리, 공동체윤리

• 자기소개서에 경험 녹여내기

대학 생활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이를 잘 기록해 뒀다면, 이러한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 항목(문항) 분석이 필요합니다. 앞서 제시한 ‘역량 기반 자기소개서’일 경우,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바가 세세하게 구분되어 있으니 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 시작도 못 하고 있을 경우, 먼저 작성하라고 요구한 부분에 대한 답을 단어나 어구 형식으로 키워드 작성을 한 후에 이것들을 연결하여 문장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만약 자기소개서가 자유 양식일 경우, 기존의 전통 방식 자소서 항목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무상 강점만을 선택해 참신하게 항목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자소서 분량은 1장에서 2장(2장 이내) 정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스토리)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첫째, 경험에 관한 결과는 수치화하거나 객관적인 피드백을 반영하여 역량으로 표현되도록 해야 합니다(표 6 참고). 둘째, 한 가지 사례에 너무 다양한 역량이나 많은 배운 점을 쓰지 말고, 항목에서 요구하는 역량만으로 일관되게 작성합니다. 셋째, 내가 노력한 점이 ‘남들도 그 위치라면 당연히 하는 보편타당한 수준’에서의 노력이 아니라 ‘남다른 생각과 행동’이었음을 잘 드러내야 합니다.

• CHAT GPT 활용 주의

요즘 CHAT GPT와 같은 오픈 AI 서비스를 활용해 자기소개서 작성에 도움을 받는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 막막할 때 도움을 받는 것은 좋으나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 문장이지만 알맹이는 없는 과대 포장 같은 자소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장의 형식이 너무 복잡해서 (영어 문장 독해와 같은 느낌) 가독성이 떨어지고, 요즘 세대들이 잘 쓰지 않는 어휘나, 혹은 너무 전문적 용어를 사용하여 누가 써 준 것 같은 합리적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이 수정하는 작업을 여러 번 해야 하고, 전문가에게 컨설팅받아서 자연스럽게 완성도 높게 만들어야 합니다.

• 자기소개서/면접 컨설팅 받기

자기소개서 작성을 한 후에, 본인이 쓴 자기소개서를 기업의 채용담당자 관점에서 보고 객관적인 피드백을 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컨설팅을 학교 밖에서 받으면 취업 과외처럼 고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교내에서는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양대 캠퍼스에 마련되어 있는 진로취업 상담실에서는 진로 상담, 취업 상담, 이력서 자소서 컨설팅, 면접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올 한 해 진로취업 상담실을 이용했던 학생들이 남긴 만족도 결과(서술형)를 [표 8]로 첨부합니다. 아래 진로취업 상담실 안내를 참고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표 7] 진로취업 상담실 안내

캠퍼스	장소	컨설턴트	연락처
창의융합 캠퍼스	이노비전센터 1층 이룸 내 취업상담실	유 미	041)730-5153
메디컬 캠퍼스	보건학관 1층 커뮤니티룸 내 취업상담실	이재복, 이현희	042)600-1680,1689

[표 8] 교내 진로취업 상담실 「2023 상담 만족도 조사」 데이터

상담 서비스 이용 시 만족한 점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요.
충분한 시간 하에 제 자기소개서의 모든 부분을 봐주시도록 노력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며 말하기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저에 대해 말씀드리기 수월했습니다. 또한 평소 취업이나 진로에 대해 갖고 있던 고민에 대한 헤쳐나갈 방안을 함께 제시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친절하게 잘 대해주셔서 편안하게 상담받을 수 있었다.

상담사 선생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 많이 써주셔서 취업 준비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의면접도 면접장 분위기에 익숙하게 느끼도록 준비해주셔서 실제 면접을 보러 갔을때 떨지 않고 준비한 말들을 모두 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상황을 제시해주시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주셔서 감사했어요. 자소서 of 방향을 잡아주셔서 다시 열심히 작성해보아야겠다는 마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이었던 자기소개서 작성의 기초를 차근차근 짚어주셔서 이해하기 편했습니다.

시간이 넘어도 끝까지 상담을 이어가신 점이 좋았습니다.

상담선생님께서 이해하였는지 계속 확인해주시는 부분이 만족스럽습니다.

작성 방향을 잘 잡아 주셔서 좋았습니다!

전문적으로 친절하게 배웠습니다.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해주셨습니다.

예시를 잘 들어주십니다.

상담사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전문성을 가지고 잘 피드백해주셨어요!! 저도 아쉬웠던 점들을 콕콕찍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부분에서 신뢰가 갔습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상담할 때마다 방향이 잡혀요.

친절한 상담사님과 전문성 있는 첨삭에 만족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친절하게 말을 들어주시고, 최대한 자소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컨설팅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표현 방식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자소서를 구성해야 좋을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선생님의 컨펌이 들어가니 지향해야 할 방향이 보였습니다. 또한, 상담이 예약한 시간보다 길어졌는데도 끝까지 봐주시려고 하셔서 감사를 느꼈습니다.

상담사님께서 굉장히 친절하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잘 짚어주신다.

상담 선생님께서 친절하시고 매우 좋았다.

여쭌보는 거 마다 다 답변해주시고 너무 친절하셨습니다.

상담사님께서 너무너무 친절하고, 학생의 사정을 모두 이해해서 함께 자기소개서 방향성을 생각해주는 점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심을 다해 자소서 첨삭을 도와주신 점에 감명받았습니다.

친절하게 이해가 되게끔 설명해주심.

상담사 선생님께서 너무 친절하시고 취업과 관련된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늦은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첨삭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좋습니다.

상담에 신뢰를 느낌!

단어수정과 내용 흐름을 세세히 봐주시고 조언을 달아주셔서 좋았다.

자기소개서 작성한 것을 기반하여 고쳐야할 부분들을 세세하게 알려주셔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빠르게 답변해주셨고, 부족한 부분을 명확히 지적해주셨습니다.

친절하게 원하는 부분을 잘 집어서 알려주셨다.

친절하게 상담해주셨고 자세한 클리닉으로 저의 부족한 점과 장점을 잘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혼자로는 알지 못했던 문제점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이루어져서 좋았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설명해주셨습니다.

친절하시고 전문성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중요한 부분을 잘 캐치해주셔서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나의 부족한 점과 잘한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좋은점과 고쳐야할점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직접 방법을 제시해주셔서 이해가 빨랐다.

정확하게 필요한부분을 체크해드립니다.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소서 작성에 있어 문항에 맞도록 내용을 구체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심한 피드백으로 방향성을 잡게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 하나도 알지 못 했었는데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친절히 다 알려주시고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코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서류 합격해서 다음주에 면접 보러 갑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각 병원 별 자소서 항목에 맞게 구체적인 피드백과 방향성, 좋은 예시 등을 모두 아주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자세하고 꼼꼼하게 수정사항을 알려줌!

자소서 기반으로 질문을 예상질문을 해주어 좋았다.

어떤 질문에도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너무 만족스러웠고, 저의 의견역시 귀담아 들어 주셔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지쳐있었는데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소서에 직접 메모를 달아주시며 첨삭해주셔서 좋았습니다!

너무 친절하시고 시간 부족함에도 제꺼 엄청 신경써주셔서 완전 좋았어요 다음에도 이용할 거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ㅎㅎ 꼼꼼히 봐주시고 지원 전까지 계속 수정도와주시고 클리닉 도와주셨어요.

효과적인 내용전달과 내용 정리, 언어표현 등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와 침착뿐만 아니라 면접 등 여러 도움도 주셔서 좋았습니다.

세세한 가이드

무엇이 부족한 점인지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최선을 다해 봐주시는 모습이 보여서 좋았다.

친절하고 꼼꼼한 피드백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기소개를 꼼꼼히 검토 후 수정해주셨어요. 갑작스럽게 찾아가도 친절히 대응해주셨어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기소개서 어느부분을 고쳐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심!

컨설팅 내용이 알차고 유익했다.

편안한 환경에서 자소서를 작성하면서 상담도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질문하기 편하고 다양한 답변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너무 잘 알려주시고 챙겨주셔서 항상 감사해요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고 수정 잘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상담사님 너무 좋으세요!

자소서 방향성 잡기, 직무이해도 상승!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이 부족한지,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 상세히 알려주십니다.

대학원 면접 상담이었는데 정말 유익하고 필요한 면접 질문들을 쑥쑥 뽑아서 안내해주셨어요! 또한 상담으로써 심리적 지지도 해주시고 응원도 동기부여도 해주셨어요. 유미선생님 덕분에 준비한 질문 내에서 면접 정말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부분을 고쳐야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유미 선생님 최고예요!!!! 어떤 부분의 글을 쓰고 싶은지 제 마음도 너무 잘 아시고 그걸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도움주시고 객관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다 도움이 되서 너무 좋았습니다.

전부 꼼꼼히 잘 봐주셨고 적절한 코칭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직업을 좀더 명확히 생각할 수 있었다.

자소서 쓰면서 막막했는데 유미선생님 덕분에 자소서 잘 써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친절하시고 너무 도움되었습니다!! 정말 만족해요!!

항상 친절하시고 학생들을 잘 챙겨주십니다.

모든 것이 최고다.

첫 방문이라 걱정했는데 친절하게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을 통해 원하던 목적을 달성함!

자세하게 지도해주셨습니다. 내용이 부실했을텐데도 친절하게 상담해주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대해 아예 감을 잡지 못했던 것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큰 틀 정도만 알려주실 줄 알았는데 저의 전공 내용을 언급하시며 자소서 내용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을지 추천해주셔서 더 믿음이 갔습니다.

너무 피드백 잘해주십니다 !!!!

너무 잘 알려주세요!

항상 따뜻한 말씀 해주시고 자소서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상담사 분이 친절하고 전문적이게 해결방법을 제시해주십니다.

학생 입장에서 봐라봐주시고 편하게 대해주셨다. 눈높이에 맞춰 적절하게 설명해주셨다.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높으셔서 자기소개서 방향성을 바로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기업의 자소서 질문을 해석하여 구체적인 내용 수정을 해주셔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말 한 마디에 귀를 잘 기울어주십니다.

잘 들어주시고 또 좋은 솔루션을 주셔서 진짜 만족스러웠습니다.

친절하시고 잘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너무 잘 봐주셔서 좋아용!

확실하게 필요한 방향성을 잡아준점이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엄청 꼼꼼하게 컨설팅해주십니다!!

상담사님의 객관적인 시선 및 피드백!

집이 멀어서 대면으로 하기 어려웠는데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해서 좋았습니다. 또 문서로만 주고 받았지만 메모 해주신것들이 꼼꼼하고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개선 필요한 부분에 대한 방법을 자세히 알기 쉽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력서이외에도 면접까지 신경써주시고 같이 고민해주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친절하고 명확한 답변, 효율적인 개선방안 제시해주세요.

전화 상담으로 이해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며,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체크해주셨습니다.

꼼꼼하신 자소서 교정과 면접 준비 방법 알려주심!

강사님의 전문성!

계열별 취업스토리



간호
간호학과

기본에 충실한 취업 생활

삼성서울병원 한OO

기본에 충실하라

간호학과 매력은 수업 내용을 간호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것, 교육과정에 직무 실습이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학교 커리큘럼에 충실한 것이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길이라 생각했고, 입학과 동시에 학업에 충실하게 임했다.

늘어나는 간호학과 학생 수에 반해 병원 수는 그대로여서 매년 ‘불취업’, ‘용암취업’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취업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 나 역시 높은 스펙을 가진 선배들이 불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해졌다. 하지만 학업·실습·토익 등 기본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학교에서 주어진 과제에 성실히 임했다. 그 결과 건양대학교에서의 학업 과정과 1,000시간의 실습 경험은 나의 스펙이 되었고, 삼성서울병원에 합격할 수 있었다. 이제 나의 학교생활을 토대로 준비했던 취업 과정을 후배들에게 알려 주고자 한다.

고고익선(高高益善)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취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간호사로서 일했을 때 지식 부족으로 환자에게 해를 끼치기 싫어서, 장학금을 받고 싶어서 학업에 열중했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성적은 취업 과정에서 부담감을 줄여 주었고,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에 더욱 열중할 수 있게 해 주었기에 저학년 후배들에게 학업과 토익에 열중하라고 말해 주고 싶다.

최근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AI 전형,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면서 학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높은 학점은 취업에서 가장 큰 무기가 될뿐더러 자신이 원하는 병

원에 취업할 확률을 높여 준다. 또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도 ‘학업적 노력’을 묻는 병원이 많고, 병원에 나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보여 줄 수 있다.

간호학과에서도 토익은 필수가 되었다. 적어도 3학년 2학기 때까지는 원하는 토익 점수를 만들어 놓으면 좋다. 4학년 개강 후에도 토익을 준비할 수 있지만, 4학년이 되어서도 쏟아지는 과제와 실습,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속에서 토익 걱정이란 내러놓으면 나머지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경험이 될 수 있다

불취업이 계속되면서 높은 성적과 토익 점수를 갖춘 지원자들도 불합격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또한 간호사에게는 전공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과 배려 능력도 요구된다.

사실 성적은 취업 과정에서 기본이긴 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 때문에 간호학과에서도 학업 외 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회적 역량을 갖춘 지원자임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학년 때부터 다양한 대외 활동에 참여하면서 경험을 키워 나가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미 고학년이 되어 취업 걱정에 이 스토리북을 읽고 있는 후배들에게도 아직 늦지 않았음을 말해 주고 싶다. 사실 3학년 때부터 시작되는 블록 수업과 1,000시간의 실습을 강행하면서 대외 활동을 챙기기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하지만 학교에서 진행되는 활동으로도 충분히 사회적 역량을 보여 줄 수 있다. 나 또한 고학년이 될수록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고, 실습 조장 · 튜터링 프로그램 · 지도교수님이 운영하시는 학술 동아리로 경험을 채워 나갔다.

모든 경험을 화려하게 포장하기보다는, 나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실습 조장을 하면서 리더십을,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지식 나눔의 기쁨을 얻었고, 학술 동아리를 통해 치매 인식 개선이라는 봉사 정신을 보여 주었음을 기술했다. 이처럼 단순히 활동에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의미

가 있었는지, 무엇을 얻었는지를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 내면 된다.

취업 과정의 첫걸음, 나 알아보기

간호사의 보편적인 취업 과정은 ‘서류 전형 - (AI or 필기 전형) - 1차 면접 - 2차 면접’이다.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은 필기 전형이나 케이스 면접을 진행한다. 이 부분은 앞서 말한 대로 기본에 충실한 학업 생활을 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서류 전형과 면접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병원에 어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알아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준비를 하며 ‘나를 알아본’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 에피소드 수집하기

거창한 것이 아닌 1학년 때부터 수행했던 과제들을 보관해 놓는 것, 임상 실습 일지를 정성스럽게 작성해 놓는 것을 추천한다. 자기소개서를 처음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막막할 것이다. 이때 수집해 놓은 에피소드를 꺼내 보면서 ‘그 때 성적을 올리기 위해 나는 그런 노력을 했었지.’, ‘조별 과제를 마치기 위해 같이 힘을 냈었지.’, ‘실습하면서 다양한 환자들이 있었지.’ 하며 회상할 수 있다. 그 경험 속 나의 모습, 나의 장단점 등이 모두 소재가 되어 자기소개서를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 나의 지향점 알아보기

결국 취업은 내가 일할 곳을 찾는 과정이라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는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상급종합병원을 선택해 간호사로서 전문성을 키우고 싶은지, 해외 간호사를 선택하고 싶은지, 중증도는 높아도 급여가 높은 곳이 좋은지, 급여는 적어도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싶은지 등 나의 지향점을 체크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병원의 미션과 비전, 핵심 가치 등으로 분석한 인재상과 내가 부합하는지 따져 보면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자기소개서의 공통 질문인 ‘지원 동기’를 작성할 수 있다.

• 주변에 도움 요청하기

주위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나도 몰랐던 습관이나 장단점을 알아차릴 수 있다. 특히, 면접 스터디를 통해 도움을 많이 받았다. 나는 긴장하면 위를 쳐다보고 부산한 손짓을 많이 했는데, 스터디원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면접 자세, 시선 처리 등 부정적인 습관을 수정해 나갔다.

또한 모의 면접을 진행하면서 '사람을 볼 때 긍정적인 면만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받았다. 실제 면접에서도 대인관계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고, 앞서 받았던 의견을 살려 긍정적인 성격을 어필할 수 있었다. 이처럼 주변의 피드백을 수용하며, 부정적인 모습을 고쳐 나가고 자신의 강점을 강화하면서 면접에 대비하면 좋겠다.

좌절하지 않고 나아가기

사실 취업 과정을 겪다 보면 자존감이 바닥을 찍을 때가 많다. 심장에 돌 하나를 얹어 놓고 잠에 드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AI 면접을 도입하면서 고스펙의 지원자들도 탈락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사실 나 또한 AI 전형에서 모두 탈락하였다. 석차와 토익 점수가 높은 편이었기에 주위 모든 사람이 놀랐고, 취업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

삼성서울병원 서류 합격을 하고 GSAT 전형을 앞두었을 때, 정신간호학 실습이 겹쳤다. 2주간 실습과 GSAT 준비를 같이 했었다. 특히 간호직은 수리/추리 외에도 간호 직무를 본다. 수리/추리를 완벽히 마스터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간호사를 뽑는 시험이니 전문성이 중요하겠다는 판단에 직무 파트를 다 맞췄다는 마음으로 공부했다.

GSAT를 준비하면서도, GSAT 합격 후 면접을 준비할 때도 중간중간 응시했던 모든 AI 전형에서 불합격 메일을 받았다. 인공지능에게 평가받고 통과되지 못한 것

이 속상했지만, 인공지능이 나와 맞지 않나 보다 생각하고 계속 나아갔다. 면접을 준비하면서는 합격 사례를 찾아보며 예상 질문을 추려 미리 답해 보는 연습을 했다. 자기소개서를 읽어 보면서 질문을 만들어 답변을 달기도 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도 순발력 있고 일관성 있게 대답하기 위해 나의 가치관을 분명히 하려고 노력했다. 앞서 말한 ‘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여러 병원에 지원하고 수많은 불합격 메일을 보면서 많이 좌절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되돌아보고 보완해 나가면서 현재에 집중하면 좋겠다. 좌절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 점이 면접관에게도 보였을 것이고, 그들에게 자신감과 일관성을 보여 주었기에 최종적으로 삼성서울병원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후배에게 한마디

후배분들에게 건네는 이 부분은 부드럽게 말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4년 동안 실습과 강의에 치여 왔는데, 이젠 취업까지 한 번에 해내려고 하니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저 또한 졸업하고 나서 다시 학교생활을 하라고 하면 못할 정도로 4년이 정말 힘들었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많이 울기도 했는데요, 신규 간호사가 되어 임상에서 일하니 마음 맞는 동기들과 같이 실습하는 과정도, 1층 로비에서 찬바람 맞으며 같이 조별 과제를 하던 그 과정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은 1~2학년 때에는 꼭 술도 많이 마시러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연애도 하면서 대학 생활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시험 기간 때에는 집중해서 학점은 꼭 챙겨 두고요.

‘취업은 운발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 운이 따르기 때문에 취업 과정에서만큼은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임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취업을 다시 할 생각에 그만두지 못할 정도로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배분들에게 온 세상 취업 운이 다 가길 바랍니다.

간호
간호학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세브란스병원 이OO

1학년, 목표를 향해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중학생 시절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과정을 보며,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간호사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고, 고등학생 시절부터 보건반과 간호동아리 회장을 맡으며 간호학과 진학을 위한 노력 끝에 건양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2018년도 1학년 새내기인 나의 대학 생활은 무척 재밌었다.

그 당시 취업과는 거리가 먼 학년이라고 생각하여 성인이 된 기쁨과 함께, 학과 동기 친구들과 놀기 바빴던 때였다. 그렇지만 내게는 하나의 꿈이 있었다. 고등학생 때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만큼 서울의 큰 병원에서 일하는 것, 그것이 나의 일차적인 꿈이었다. 그리고 서울에 나갈 일이 있을 때마다 꼭 보게 되는 크고 웅장한 신촌 세브란스병원,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

전부터 꿈꿔 왔던 병원에서 일하는 내 모습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1학년 1학기 때부터 수업에 지각 및 결석 등 출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 틈틈이 수시고사 · 중간고사 · 기말고사를 위한 공부를 한 결과, 만족스럽게 한 학년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2학년, 성적 관리와 다양한 활동에 힘쓸 때

2학년이 되어 맞이하게 된 것은 점차 늘어나는 전공과목과 술기 실습이었다. 땀 뻘뻘해진 시간표와 심화된 내용의 전공과목, 그리고 교수님들의 수업 진도는 “간호

학과는 고등학교의 연장선이다.”라는 말을 실감케 하였다. 또한 반복적으로 연습해도 무균적으로 완벽히 수행해야 하는 간호 술기는 간호대학생의 머리를 더 혼란하게 만들었지만,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는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성적 관리는 취업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1·2학년 때는 열심히 공부해 학점을 올리는 데 열중하였고, 취업뿐만이 아닌 졸업을 위한 준비(컴퓨터 자격증, 봉사 시간 등)도 바쁜 시기지만 3~4학년 때 전반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했다.

또한 교내·교외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등 학과 및 외부 활동에도 참여했다. 교내 학술 동아리장으로 활동하며 학술제 발표 도모 및 외부 봉사동아리에 가입해 마스크 제작 및 기부 활동, 지역 축제 행사도우미로서 참여했다.

취업 준비를 위한 동아리 가입만이 아닌 취미를 위해 평소 관심 있던 교내 사물놀이 동아리에 1학년 때부터 가입하여 부회장까지 맡게 되었다. 공연 준비 및 부원들과의 친목 도모를 하며, 힘들고 지친 삶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행복한 대학 생활을 했던 특별한 경험이었다.

3학년, 실습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바탕

간호학과 학생에게 있어서 3학년부터 병원에 출근하며 임상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병원 실습은 정말 뜻깊은 것 같다. 안타깝게도 내가 3학년이 되던 때 코로나가 유행하여 1학기 때는 비대면으로, 2학기부터 마스크를 쓰며 겨우 실습을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줄어든 임상 경험으로 취업과 미래의 나에게 피해가 될까 더욱더 열심히 임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실습은 내가 관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여야 하는 일이고, 적극적으로 임하다 보면 저절로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 내용과 면접 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풍부하게 생긴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다 보니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하기 쉽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미래의 내가 후회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눈물겨운 3학년을 보냈다.

실습을 하다 보면 다리도 아프고,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것이다. 나 또한 물론 그랬지만, 수많은 병동과 특수 부서에 가며 다양한 환자 케이스를 접하고, 모르는 것이 당연한 학생일 때 많은 질문을 통해 새로운 지식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소서 내용과 면접 내용을 대비하는 매우 큰 기회였던 것 같다.

4학년, 실제적인 취업 준비

4학년이 되는 겨울방학부터 실제적인 취업 준비가 이루어졌고 막상 준비하려니 불안감이 밀려오기도 했다. 충실한 학과 생활과 학점을 받는 데만 치중했지, 특별한 대외 활동을 한 적이 없어 걱정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교수님과의 취업 상담과 동기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용기와 부담감을 덜었다.

취업의 첫 단계는 연봉, 거리, 네임밸류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내가 가고 싶고, 지원할 병원을 우선 정하는 것이다. 병원마다 다른 자소서의 질문 사항, 추구하는 이미지, 블라인드 유무 등 다양한 조건이 있기에 모든 곳에 다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은 사실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다.

대부분의 병원은 토익 · 학점 · 대외 활동 등을 보고 뽑았기에, 마지막으로 토익 점수를 만들어야 했다. 교내 토익 프로그램인 ‘토익팍팍’에 참여해 높은 점수를 만든 친구들도 있었고, 나는 학원에 다니며 토익 점수를 만들었다. 높은 토익 점수도 물론 좋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병원이 높을수록 합격하는지, 아니면 700~800점 대의 점수만 만들어도 합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 시기에 영어 점수에만 길게 매달리다 보면 자소서 작성 및 졸업 준비, 4학년 1학기 성적에까지 모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나는 국공립 블라인드 병원을 제외한 병원을 지원하려 했기에 한 달 반만 토익 공부를 하고 미련 없이 800점대로 마무리했다.

자기소개서 작성, 마인드맵으로 구상하기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소서 작성을 위해 가고 싶어 하는 병원의 최종 합격 자기 소개서를 여러 개 구매하여 읽어 보고,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작성하면 되겠다는 감을 잡았다.

그러나 각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기 위해 소재를 선정하는 것이 힘들었다. 하지만 학술 동아리 및 교내 동아리 활동 그리고 실습 시 경험했던 내용 등을 마인드맵을 바탕으로 구상해 보니 좀 더 쉽게 내용을 썼던 것 같다. 그렇지만 내가 추천하는 것은 1~2학년 때부터 사소한 일도 핸드폰 메모장에 간단한 단어 및 문장으로 기록하는 것이 추후에 소재를 생각하는 데 골머리를 앓지 않을 것이라 장담한다.

혼자 쓰는 것이 버거울 것이다. 교수님과 친구들에게 보여 주고 피드백을 받는 방법을 추천한다. 또한 교내 취창업지원센터의 꼼꼼한 자소서 첨삭과 상담을 이용하여 더 간결하고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었다.

AI 면접 준비, 연습과 자기반성이 중요

원서 접수 이후 AI 면접 준비를 위해 지원한 병원의 카톡방에 들어가 정보를 파악했다. AI 면접 진행 순서 및 기출 질문을 인지하였고, 교내 셀프뷰 면접 프로그램 및 다른 AI 프로그램을 통해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했다. 말의 빠르기, 높낮이, 눈동자의 고정 및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계였기에 연습을 통해 가장 최적화된 마이크를 준비하고 화면에 스티커를 붙여 그곳만 응시하며 답하기 등 나만의 방법을 찾아 연습했다. AI 면접은 여러 번의 연습과 자기반성이 중요한 과정인 것 같다.

직무 및 인성 면접, 스터디가 큰 도움이 되다

그렇게 AI 및 서류 합격 이후 필기시험, 직무 및 인성 면접을 준비를 위해 스터디를 했다. 친한 동기끼리 혹은 지원하고자 하는 병원 카톡방에서 스터디원을 꾸려서 준비한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서로 전공 직무 면접을 질문하며 모르는 부분도 알아 갔고, 특히 자소서 내용을 질문하며 ‘타인의 시선에서는 이렇게 느껴질만한 수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었다. 또한 혼자서 준비했으면 몰랐을, 답변할 때 내가 고쳐야 할 사항(머리 만지기, 손 움직이기 등)들을 알려 고쳐 나갈 수 있었다.

각 병원의 인성 질문 같은 경우는 기출 자료를 구해 답변을 달고 외울 정도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의 경험과 관련된 질문이 아닌 병원이 추구하는 방향성, 인재상을 곁들여 답해야 할 질문에 대해 스터디원끼리 질문을 각각 나눠 답변을 달며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많은 답변을 다 외울 수 없기에 단어 위주로 외우며, 답변에는 가능하면 자기 경험이 가미되면 좋다. 예를 들어, 질문이 “입사하여 어떠한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싶나요?”라면 갈등 상황 대처(환자와 나, 의료진 사이 등) - 대학 생활 시 갈등 상황 중재 경험(조별 과제, 동아리)처럼 단어로 외우되 경험이 추가되는 것이 좋다.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인성 면접이기에 어쩌면 다른 질문에 대해 짜깁기할 수 있는 답변이 될 수도 있어 다양한 답변을 준비하여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스터디를 통해 1차 면접을 준비했고, 교내 면접 프로그램을 이용해 교수님과 취창업센터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아 한 차례 더 성장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더운 여름날 정장을 입고 1차 · 2차 면접을 가며 준비했던 것은 힘들었지만,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노력의 결실 끝에 최종 합격을 얻어 낼 수 있었다.

취업하며 느낀 점은 성적 관리를 위하여 지난 3년간 전공 공부, 술기 순서 및 이론적 근거 이해하기, 병원 실습에 열심히 참여한 것이 정말 큰 힘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 덕분에 필기시험은 물론이고 전공 면접에서 답변 시, 그 당시 공부했던 내용이 떠오르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리고 6개월간의 웨이팅, 1년 반 임상에서 간호사로서 일하며 느낀 점은 취업도 중요하지만 체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이다. 신규 간호사는 지속되는 공부와 시험, 그리고 높은 근무 강도 및 근무 시간을 버텨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틈틈이 운동해 근력과 지구력을 꼭 기르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떨어질 것 같다고 지원조차 하지 않는 바보 같은 짓을 절대 하지 않길 바란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일단 맞서 싸워 보고 혹시라도 떨어진다면 훌훌 털어 버리면 그만이다. 또한 내가 원하는 병원에 붙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열심히 해서 합격한 병원, 그곳이 나와 제일 잘 맞는 운명적인 병원일 수 있다. 본인의 능력을 발휘해 부지런히 준비하면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 시행착오와 과정 끝에 매우 힘들겠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목표를 향해 달리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즐거운 추억도 많이 쌓길 바란다.

파이팅하세요!

군사경찰

국방경찰
행정학부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경찰관 시험 합격기

중앙경찰학교 박OO

경찰관의 꿈을 시작하며

중학교 2학년 때 평소처럼 가족들과 텔레비전을 보던 날이었다. 그날따라 TV에 나오는 경찰관이 너무 멋있어 보였다. 그 후 자신의 장래희망을 말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났던 것이 경찰관이었다. 내가 보기에 경찰관이 많은 직업 중에서 가장 선하지만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꿈을 꾸게 되었다.

나의 학교생활

그 꿈을 성인까지 이어 와 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부에까지 오게 되었다. 학교에 처음 들어왔을 때 들었던 생각은 이제 곧 경찰관이 될 수 있겠다며 경찰관에 한층 가까이 온 느낌이었다. 처음 1학년 때에는 의욕에 가득 차 빠듯한 1학년 1학기 시간표에 매일 토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동계 방학 중에는 국방경찰행정학부 토익 사관학교에 참가하며 토익 점수를 800점대까지 올려놓았다. 1학년 때 이렇게 노력한 덕분에 졸업과 경찰 시험까지 토익으로 인하여 발목이 잡히는 일은 없었다.

2학년부터는 공무원준비반인 고시반에 들어가 교수님들과 이전 합격생, 같은 고시반에 있는 선배들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도 얻었다. 이렇게 보면 학교생활 동안 공부만 했나 느껴질 수 있겠지만, 선후배 · 동기들과 만나고 집행부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즐겁게 대학 생활을 보냈다.

나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자격증 점수를 미리 채워 놔야 공부에 방해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과에서 진행하는 유도동아리 활동으로 무도 2단을

얻어 가산점 2점을 받고, 남은 3점의 가산점은 대다수의 경찰 준비생들이 하는 실용글쓰기로 쉽게 채우고 수험 공부를 시작하였다.

사람이 100명이면 100개의 공부 방법이 있으므로, 어떠한 공부 방법이 옳다기 보다는 내가 어떤 문제를 겪었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 냈는지 알려 주고자 한다.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해야 하나?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기본기가 없으므로 강의를 듣게 된다. 나는 처음에 총 60강인 기본 강의를 끝내는 것조차 힘들어하여 기본 강의를 듣는 데에만 3개월이 걸렸다. 3개월에 걸쳐 기본 강의를 듣게 되니 마지막에 가서는 처음에 들었던 내용이 기억나지 않고 문제도 풀 수 없어 그 강의를 다시 반복해 듣게 되었고, 이때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다.

이러한 경험으로 나는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때 기본이나 심화 강의를 빨리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강의를 듣는 속도가 느려진다면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이 보이지 않게 되고 점점 진도도 밀리게 된다. 따라서 강의 듣는 시간은 최대한 빨리 끝내고 혼자 많은 기출문제집과 모의고사를 풀어 보고, 그에 따라 나의 약점 지문을 찾아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 시험 마지막에는 오답 노트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하루가 꼭 완벽할 필요는 없다

공부를 할 때는 완벽주의를 버려야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을 읽는 완벽주의자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완벽주의자들은 늘 완벽해야 하므로 시작이 망가져 버리면 시작할 수 없게 된다. 나 또한 공부에 있어서는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에 시작이 실패한 후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웠다. 예를 들어, 늦잠을 자 늦게 일어났을 때는 하루 시작부터 실패했다는 죄책감이 많이 느껴져 하루를 통째로 포기한 적도 있었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공부 시간이 부족해서 수험 기간

이 자연스럽게 길어지게 되었다.

이 습관을 버리는 방법은 일단 뭐가 됐든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은 점심에 일어나면 느지막이 밥을 먹고 일단 문을 나서서 스터디카페에 갔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공부를 얼마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사라지고, 오늘치의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완벽하지 않지만 일단 시작하는 습관을 지니며 자신만의 공부 페이스를 다잡을 수 있었다.

필기는 입장권일 뿐

나는 처음에는 체력에 자신이 없었던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매일 하루 2시간씩은 운동에 투자하였다. 초기에는 체력학원을 주 3회씩 다니며 경찰 준비에 필요한 운동과 체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고, 그 이후에는 매일 크로스핏과 공부를 병행하며 진행하였다.

공부와 운동을 같이 할 때는 운동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필기시험 합격 후에 체력을 준비하게 된다면, 원래 운동했던 사람이 아닌 이상 아무리 필기에서 고득점을 받았더라도 체력에서 뒤집혀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특히, 여경의 경우는 더욱 체력 점수 폭이 촘촘하여서 체력 1점 차이로 인해 결과가 뒤바뀔 수 있기에 미리미리 꾸준히 운동을 해 놓길 바란다.

앞서 말했다시피 나는 처음 준비할 때부터 체력에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꾸준히 운동한 결과 필기시험은 꼴등으로 붙었지만, 체력에서 합격권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끝까지 끝나지 않았다

경찰공무원 시험의 세 단계인 필기, 체력, 면접 가운데 난이도로 치자면 필기시험이 가장 어려웠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면접 준비였다. 면접은 범위도 정해지지

않았고 처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게 되어 어렵게 느껴졌다.

나는 우리 과에서 집행부 위원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과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얻었던 경험을 토대로 면접에 답변할 수 있었다. 경찰관은 시험만 붙으면 끝이기에 대학 생활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학과 생활을 충실히 행하는 것만으로도 경찰관이 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부가 싫은 사람들을 위하여

아아 있는 시간이 길면 물론 공부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만, 나는 가만히 한 곳에 앉아 있는 것을 싫어하여 오래 공부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효율을 내기로 하였다. 도서관에 가기 전 핸드폰이 방해되지 않도록 집에 놓고 다니기도 하고, 메타버스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태그룸’, 자신의 집중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포레스트’ 등 여러 공부 앱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나의 실질적 공부 기간은 2년 6개월로, 짧지 않은 수험 기간을 보냈다. 힘들 때마다 “괜찮아, 내일은 더 행복할 거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야!”라는 말을 되새기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또한 2년의 휴학 동안 수험에 실패하고 다시 학교로 복학했을 때, 학교생활과 졸업 준비로 인하여 공부 시간이 뺏기는 것이 걱정되었다. 하지만 오히려 학교에서 행정 인턴으로 여러 가지를 배우며 자신을 다잡고, 어려운 부분에서는 교수님의 조언을 얻으며 공부를 다시 시작하였고 졸업 후 바로 합격까지 갈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항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부하기 싫다. 공부 안 하고 그냥 합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나는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나 같은 사람도 합격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실패는 없다는 것을 말해 주고 싶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며 경찰관의 꿈에 도전하는 후배님들을 응원한다. 훗날 후배님들과 현장에서 같이 땀 날을 기대하겠다.

군사경찰

국방경찰
행정학부

열정과 꾸준함, 나만의 시험 준비 노하우

논산시청 이OO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고등학생 때까지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을 찾지 못해 진로를 정하지 못했었다. 대학교에 지원하기 전 담임 선생님과 상담에서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학부를 추천받았고, 그에 맞춰 학부에 입학하였다. 생각지도 못했던 과에 진학했지만 공무원과 군인, 경찰이 되기에 매우 도움이 되는 학부였고, 이를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에게도 알려 주고자 한다.

1학년에 입학하고 나서 처음 행정학, 행정법 등의 과목을 접했다. 나는 흥미가 생겨야 공부가 잘되는 편인데,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재밌다는 생각을 했고 그에 맞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바로 시험을 준비하고 싶지는 않았다. 아직 대학 생활을 즐기고 싶기도 했고 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놀기만 하지는 않았고 좋은 성적을 유지하며,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근로와 아르바이트도 하고, 시험에 필요한 한국사 자격증과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했고 토익 점수도 올렸다.

나는 한 번 마음먹은 것은 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으로, 주변 친구들이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시험을 미룰 때 한 번에 합격을 하곤 했다. 학교에서 토익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격증을 취득하면 학교에서 장학금도 주고, 이를 잘 활용하여 비용을 아껴 가며 공부할 것을 추천한다. 또 국방경찰행정학부는 고시반을 운영하여 본인이 원하면 수업이 없을 때 고시반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 강의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며 시험을 준비하고 싶다면 고시반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한다.

본격적인 시험 준비

나는 학과 친구들에 비해 시험을 늦게 준비했다. 졸업한 후에 취업하는 것과 공무원 시험 중에 고민하던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내게 직업 없이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무엇보다 공부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월에 바로 독서실을 끊고 인강을 결제했다. 친구들과도 연락을 다 끊었고 핸드폰도 거의 잘 들고 다니지 않았다. 물론 1년 내내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처음에는 그런 의지로 시작했고, 매일 10시간 이상을 공부했다.

그러나 시험 직전에 공부를 시작했던 나는 남들이 모의고사를 풀며 실전을 준비할 때 기본 강의를 들으며 기출을 처음 회독하기 시작했고, ‘이번 시험은 그냥 시험 삼아 보는 거니까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2월과는 다르게 조금씩 풀어졌었는데, 6월에 본 지방직 시험에 필기 커트라인으로 합격을 했다.

그때 정말 ‘이런 줄 알았으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할걸.’이라는 생각뿐이었고 면접을 준비할 때도, 결과를 기다릴 때도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없어 힘들었다. 그렇게 첫 시험에 떨어지고 몇 개월을 방황했다. 마음이 도무지 잡히지 않았지만, 겨울쯤 부터 다시 정신을 차리고 처음처럼 공부했다.

공부를 하기 싫은 것보다, 공부를 하고 싶는데 몸이 따라 주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 이번 시험이 마지막이라고 버텼더니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에 모두 합격할 수 있었다. 이 글을 읽는 후배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모든 시험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라는 것이다.

나만의 공부 방법

나는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공부했다. 우선 노량진과 현장 강의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인강만이 나의 유일한 공부 방법이었고, 스터디카페나 독서실에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한 기간도 있었다. 본인에게 맞는 장소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추천한다.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 비슷한 시간에 공부를 시작했고, 밥도 아침 · 점심 · 저녁 다 잘 챙겨 먹었다. 운동은 따로 하진 못했지만 자주 걸어 다녔다.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잠깐이라도 산책을 나가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과목에 대해 얘기하자면 나는 일반행정직을 준비해서 국어 · 영어 · 한국사 · 행정학 · 행정법을 공부했는데, 본인에게 맞는 강사를 찾아 강의를 결제해야 한다. 맛보기 강의를 들은 뒤에 결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행정학과 행정법은 강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강의를 빠르게 회독해야 한다. 처음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도 빠르게 다 듣고 다시 들어야 진도가 나간다.

강의를 들으면서 기출을 회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나 같은 경우는 기화펜을 사용하여 풀고 나면 지워질 수 있게 해서 계속 돌려봤다. 한국사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초반에 너무 암기하기보다는 시험 직전에 빠르게 처음부터 훑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국어와 영어는 아침에 단어와 비문학 지문을 매일 푸는 것을 추천한다. 요즘 국어는 비문학 비중이 높고 영어는 전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져 전공 공부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을 추천하고, 전공은 기출 문제가 아닌 새로운 판례와 학설 등의 내용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 최신 강의와 자료를 계속 찾아보며 공부해야 한다.

또 시험 직전에는 모의고사 문제집을 구매하여 실전처럼 풀어 보고 무슨 과목을 먼저 풀지 순서를 잘 정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나 같은 경우는 시험 삼아 보러간 시험이 3번이나 되었고, 그 과정에서 푸는 순서나 시간 분배 등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그렇게 시험을 경험해 보면 실제 시험에서 긴장을 덜할 수 있을 것이다.

슬럼프 극복 방법

나는 공부하는 데 집중이 안 되고 점수가 안 나와서 슬럼프였다기보다, 1년 동안

운동도 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것이 슬럼프로 이어졌다. 하필 그 시기가 시험 직전이었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아도 마냥 쉴 수 없었고, 쉬어도 마음이 불편했다. 그렇다고 아픈 것을 티 내 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억지로 버텨 가며 공부했던 것 같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공부 방법 등도 있지만 정신 건강과 몸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수험 기간이 지나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초반에야 새벽까지 공부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지만, 체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도 꾸준히 하고 식사도 제대로 잘 챙겨 먹기를 바란다.

면접 준비

나는 솔직히 말하면 공부보다 걱정되었던 것이 면접 준비였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 못하는 편은 아니었고 공부하는 것에 비해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발표를 싫어하고 말을 조리 있게 하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 보는 면접이 걱정되었다.

다들 면접 경험이 있거나 학원을 다니며 준비하는 상황에 나는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해서 혼자 면접 관련 책을 구매해 연습하기 시작했다. 유료 강의를 들으며 정해진 패턴대로 답변을 준비하고, 전공 질문과 공무원 법령 관련 질문을 정리했다.

실제로 면접을 보고 나니, 지금까지의 면접 기출 질문들만 잘 정리하고 내 자기소개만 잘 정리하면 나머지는 즉흥적으로 답할 수 있었다. 그러니 다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면접 경험도 없고 말주변도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으니, 시험을 붙은 의지라면 면접도 충분히 잘 볼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시험 준비를 하든 취업 준비를 하든 정해진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남들이 다

노량진에서 공부하고 관리형 독서실을 다니고 비싼 인강을 듣는다 해도,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의지와 집중력만 있다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 하지만 국방경찰 행정학부에 입학한다면 고시반에 들어가 꾸준히 공부하고 시간을 잘 활용해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인 것만은 확실하다.

물론 꼭 빨리 시험에 합격해야 할 필요는 없다.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놀기도 열심히 하면서 대학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 본인이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들을 잘 생각해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 노는 것, 공부하는 것, 쉬는 것 모두 다 좋으니 순간순간을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란다.

군사경찰

군사학과

군인이 되기까지

육군 이OO

군사학과에서 4년을 보내면서

2019년 군사학과 9기로 입학한 나는 어느새 4년이라는 대학 생활을 마치고, 학사장교 68기로 병기 장교로 임관하여 교육을 마치고 야전에서 복무하게 되었다. 4년의 대학 생활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4년의 대학 생활만큼이나 학생 군사학교 학사 16주 훈련과 종합군수학교의 17주 교육에서 또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군사학과에서 재학하던 시절의 나에 대해 쓰자면 사실 딱히 특별하게 돌이켜 볼 것이 없는 것 같다. 그저 해야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지냈다. 하지만 무가치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이사이 너무나 즐거운 추억들이 함께했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일을 반복하는 선배님, 동기들 그리고 후배님을 많이 보았다. 나 또한 그랬고, 지금도 완전히는 떨쳐 내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고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머나먼 미래보다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과업에 후회가 생기지 않게 집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더 성장할 수 있었다.

길었던 군사학과의 생활을 보내고 어느새 훈련을 받고 임관하여 교육 및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모아 왔던 정보들을, 부족하지만 그래도 후배님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풀어 보고자 한다.

장기복무 그리고 목표에 대하여

냉정하게 말하면 나 또한 아직 장기복무에 대해서 무지한 우물 안 개구리이다. 나보다 더 많은 경력을 쌓으신 선배님들에게서 아마 장기복무에 필요한 근무평정 혹은 잠재역량 등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수치적인 내용 외에 내가 생각하는 장기복무와 목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군장학생 신분으로 군사학과를 곧 졸업하는 후배님들에게는 학군단을 지나왔다면 약 6년 8개월 정도의 복무 기간이, 학사사관은 약 7년 정도의 중기 복무가 기다리고 있다. 말이나 글로 보면 생각보다 와 닿지 않는 기간이다. 하지만 대학 생활을 1.5번이나 다시 보낼 만큼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학사사관의 경우에는 학군교 훈련 그리고 학군사관은 병과 교육을 앞두고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상황에서 장기복무의 꿈이 더욱 확고해지는 후배님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여전히 이 길이 내게 맞지 않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는 후배님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때일수록 걱정과 근심 때문에 몸과 마음이 풀어지고 무거워지는 경험을 하곤 한다. 나 또한 그랬다. 이런 무기력함을 깨고 나온 방법은 동기와 함께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것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면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잠시나마 지우고 현재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후배님들도 저마다의 작은 태도를 대하면서 무기력감을 이겨 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무기력감이 주는 피로감 때문에 후배님들이 목표를 대하는 판단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피곤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더 많은 것을 얻을 기회를 날리는 안타까운 결과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체력은 국력이다

학교를 막 졸업하고, 학군교에서 학사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은

체력의 중요성이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km를 달리고 근력 운동을 하면서 단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체력은 항상 부족함을 느꼈다.

체력과 건강이 점점 나빠져 가는 상황도 경험했었다. 모든 훈련 과정이 꾸준한 지구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체력은 육체적 고통에 대한 저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저항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항상 피곤함을 느끼면서 더 무기력해지고, 작은 행동에도 크게 반응하는 동기들을 자주 보았다.

후배님들은 더욱 강인한 체력을 길렀으면 좋겠다. 강인한 체력에 기반을 둔 강인한 정신력과 함께 힘들어하는 동기들이 있다면 함께 밀고 끌면서 고된 훈련을 받더라도 육체적 · 정신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남들보다 여유가 있는 만큼 남들을 더 챙기고 함께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한다면 훈련 및 교육에서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더 나은 군인 되기 위해서, 어학 능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나는 솔직히 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했을 때 온 힘을 다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 점이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다. 졸업 요건인 토익 800점을 넘긴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였고, 영어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나의 이런 태도 때문에 공부한 기간에는 영어 성적이 올랐지만, 이후에 내 영어 능력은 퇴보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학군교 교육을 끝내고, 병과 교육을 받으면서 깨닫게 된 점이다.

세상에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참 많다. 군대 또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군대에서 토익 800점 이상 오픽 IH 이상인 사람은 흔치 않다. 따라서 내가 영어를 잘하면 잘할수록 더욱 플러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군대에서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에게 많은 투자를 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육군/해군/공군은 6 · 25 전쟁 이후부터 항상 미군과의 협력을 전제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영어를 할 수 있는 인원은 주한미군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요직에 배치되어 좋은 기회들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장기복무의 기회를 주고, 장기복무자이면서 영어 능력이 된다면, 영어 위탁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영어 위탁교육은 여건이 좋은 환경에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봉급을 받으며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다. 영어 위탁교육을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한다면 그때부터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된다. 주한미군과의 통역 수행이나 파병을 통한 추가적인 직무와 관련된 선진적인 교육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석박사 위탁교육을 신청하여 자신의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영어 공부를 하는 후배님들에게 지금 할 때 온 힘을 다하기를 당부하고 싶다. 체력이 좋은 군인도 좋지만, 체력도 좋으면서 영어도 잘하는 군인이라면 최고의 기회들을 쟁취할 수 있다.

인간관계를 위한 조언

어학 능력과 체력을 겸비한다면 그다음으로 인간관계에 대해서 긴 호흡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인간관계는 한 방향이 아니다. 박수도 손바닥이 부딪혀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인간관계가 군대와 같은 집단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도 동기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선후배님들 또는 동기들을 자주 보았다. 훈련이나 교육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스트레스는 본인에게만 좋을 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

인간관계를 좋게 형성하면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내가 모르는 것을 언제든 물어볼 수 있는 든든한 지원자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이점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타인을 대해야 할지 스스로 많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

나는 내가 만나는 상대가 누구이든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기본 전제로 준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을 통해 타인에게는 호감을 얻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극받는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한 번쯤은 자극에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좋은 방법들을 책에서 찾아볼 것을 후배님들에게 권한다.

루틴을 형성하자

어떠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반복 숙달이 답이라는 단순한 진리가 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거나 매우 희귀하다. 그마저도 잘하면서도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밀리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나는 후배님들이 체력을 단련하거나 공부를 할 때 또는 취미를 즐기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일정한 규칙을 두고 실시했으면 좋겠다. 하루를 간단한 틀 안에 가두는 것이다.

틀 안에 가둔다는 것이 꼭 부정적인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반복 숙달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루틴을 형성하면 정말 많은 장점이 있다. 먼저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금방 잘하게 된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다.

지금은 누구나 걷는 것을 쉽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우리가 어렸을 때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 내고 꾸준히 노력한 데 따른 결과물이다. 체력이나 영어 공부 또한 마찬가지이다. 꾸준히 반복해서 연습한다면, 체력과 어학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스스로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 꾸준히 알아 간다면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가끔은 틀 안에 갇힌다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 틀 안에서 꾸준히 성장하는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더 동기 부여를 받는 후배님들이 됐으면 좋겠다.

후배님들에게 드리는 말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선택한 길이 옳기에 후회 없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후배님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유형의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항상 자신을 갈고닦으면서도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군인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든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한 밑바탕이다. 따라서 후배님들은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을 믿고 자신감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또한 스스로 모자라고 부족해 보일수록 더 성장할 기회를 잡은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항상 어느 순간 자신감과 열정이 꺾일 때가 온다. 그런 상황을 가족, 연인, 그리고 선후배 및 동기들과 함께 이겨 내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혼자서 모든 짐을 들 필요는 없다.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은,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며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또 사랑하는 가족, 연인 그리고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내가 선택한 길에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야전을 누비고 다닐 후배님들의 반가운 얼굴을 보게 될 날을 기대한다.

군사경찰

군사학과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

육군 최00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노력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 수도 없이 들어 봤을 것이다. 너무 익숙해서 이제 감흥이 없을 수도 있으나, 사실 이 말이 우리에게 익숙할 만큼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온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노력은 모두가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당신!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다.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쉬고 싶고 놀고 싶은 마음은 잠시 내려두고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하는 태도야말로 성공에 이르는 길이다. 여기서 성공이란 모두에게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며, 단순히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서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닌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다른 무엇도 아닌 내가 나를 위해 하는 노력이다.

나의 대학 생활은 ‘노력’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 방학이면 영어 공부에 몰두하는 등 4년 동안 열심히 살지 않았던 적이 없다. 군사학과면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다. 이 모든 환경적 요인에 나를 맞추고 그 안에서 매 순간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다.

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며 졸업하였고, 졸업 후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도 국방부장관상을 받았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재능보다 꾸준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편하게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이 할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안 되는 것은 없다. 하면 된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자신을 믿고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도 최선을 다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사람이 되십시오

군사학과뿐만 아니라 우리 건양대학교의 후배들이 어떤 학과에서 어떤 전공의 공부를 하든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동일한 것을 상대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한두 가지 정도의 것밖에 이끌어 내지 못하는 반면, 그 대상물에 의해 촉발된 자신 안의 무언가를 스스로 찾아내고 이끌어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배우는 것이다.

풍요로운 대상을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것이 만이 자신의 능력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이자,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고, 상대에게는 관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에게 엄격한 것, 이때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스스로 가혹한 채찍질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에게 엄격한 것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존중의 표현 중 하나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군사학도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꼭 마음에 두어야 할 말이다.

이 말을 인용하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말을 뒤에서부터 간략히 되뇌어 보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집이 행복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내가 잘 서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군사학과 후배들은 가까운 미래에 한 나라의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 낼 텐데, 그것을 잘 수행해 내기 위해서 근본이 되는 것은 후배님 한 명이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해 주고, 제일 먼저 존중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충성을 다해야 하는 대상은 자신이고,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존중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존중과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나의 하루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매일 열심히 살 수 있고, 이는 곧 타인에 대한 존중과 예의로 확산될 것

이다.

내가 취업 스토리북에서 이렇게까지 길게 인문학적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어느 분야에서나 행복하게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에 대한 바른 판단으로 앞으로 후배님들에게 다가올 모든 일들에 있어 최고의 판단과 선택을 하길 바란다.

일단 시작하고 보자

군사학과에서의 시간은 장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연마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간을 가장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꾸준한 체력 관리를 비롯하여 학업에서도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수적이다. 나도 처음에는 ‘내가 될까?’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의심했지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나를 믿고 열심히 하루를 살다 보니 그 매일이 쌓여 학점과 체력, 자격증 취득, 상장 수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성취는 내가 자신을 의심하는 태도에서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나는 영어에 특히 약했지만, 교육과정 강사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성실히 하였고 결국 졸업 요건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다. 과연 내가 스스로 영어를 못하니 해도 안 될 것이라는 예단으로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을까?

비단 영어뿐만 아니라 후배님들이 생각했을 때 자신이 잘 못하는 분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이든 시작이 어려운 것이지, 막상 시작하고 보면 스스로 겁내고 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부끄러울 만큼 쉬운 일이다. 혹여 여전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시작한 오늘의 내가 있기 때문에 내일의 나는 보다 수월하고 능숙하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어제 외운 영어 단어가 오늘 읽은 지문에 키워드로 나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

가? 어제 러닝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러닝은 훨씬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느리더라도 한 단계씩 성장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과거의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주어진 환경을 적극 활용하라

군사학과에서 특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은 후배님들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기숙사 생활, 자격증 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 하다못해 기숙사에서 동기들과 함께 가족처럼 생활하는 환경에서 많은 추억을 쌓는 것도 포함된다.

군사학과에서는 졸업 후 가질 직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외에 미래를 위해 다수의 자격증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 또한 마련해 준다. 특히 방학 기간 동안에는 외부에서 전문 강사님들을 모셔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주는 커리큘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할 수 있을 때 바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힘써야 한다.

나는 2년 동안 한자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토익과 오픽 또한 전문적인 관리를 받아 교육을 받은 그해에 바로 공인영어성적을 여러 개 취득할 수 있었다. 학교 차원에서 이러한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후배님들 또한 저학년일 때 위와 같은 이력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

그 후 3·4학년 때는 개인적으로 집중하고 싶은 자기관리나 자격증 등에 집중할 수 있게 되므로 특히 군사학과에서 지원해 주는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졸업 후 준비를 탄탄히 하는 것이 좋다.

외부 전문 강사님들뿐만 아니라 당연히 군사학과의 교수님들의 전문성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교수님들께서는 오랜 군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경력의 지혜가 분명 존재한다. 그러한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에게 군사실무, 군사사, 군사학원론, 군사영어 등 여러 강의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내용에는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지혜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지혜는 내가 졸업 후 임관 전 학군교에서의 양성 과정과 임관 후 병과학교에서의 지휘참모 과정에서 탁월한 성적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학교에서 이렇게 훌륭하신 교수님들께 배웠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상과 보병학교장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후배님들도 현재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모든 수업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배우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후배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군사학과에서 경험한 각종 훈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 교수님들의 가르침, 동기들과의 추억 등은 나에게 큰 자산이 된다는 것을 졸업 후 절실히 깨닫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작은 움직임으로부터 키워 온 자력을 바탕으로 내가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될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다.

후배님들도 자신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후배님들이 속한 분야에서 최고가 될 것이라는 태도로 모든 일에 임하기를 권면한다. 성인으로서, 대학생으로서, 좋은 가르침의 환경에 있음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후배님들이 되길 바란다.

나의 대학 생활을 돌아보며 건양대학교에서 배웠던 수많은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하여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 건양대학교 군사학과를 직접 선택하여 몸과 마음의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나의 글이 자그마한 도움과 위로가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글로벌경영

글로벌
경영학과

나의 취업 스토리

삼보오토 주식회사 나OO

취업 스토리를 쓰는 이유에 대하여

나는 학부 시절 뚜렷한 진로를 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과, 자기소개서 및 면접 준비 등 취업 준비 단계가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뚜렷한 진로와 목표가 없는 것에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졌지만, 관점을 달리하여 ‘다양한 관심사가 있는 나는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았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이 경험으로 쌓이고 또 나만의 역량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나를 한층 더 성장시켰다. 이렇듯 나와 유사하게 목표와 진로를 아직 뚜렷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는 학우들에게 취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고자 이 취업 스토리를 작성한다.

학과 프로세스 이용하기

현재 나는 한 중견 회사의 생산관리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학부 생활부터 취업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자 한다. 나는 뚜렷한 진로와 목표를 정하지 못하였기에 크고 웅장하지 않은, 아주 소소하고 세분된 목표들을 하나씩 계획하고 실천해 나갔다. 세분되었기에 목표가 명확해지고 쉽게 도전하기 좋았으며, 또한 당장의 나에게 중요한 일이 어떤 것인지 중요도에 따라 계획의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나는 글로벌경영학과를 재학하며 회계, 인사, 물류, 마케팅 등 다양한 전공을 배울 수 있었고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전공을 수강하였다. 이때 나의 흥미를 조금 더 끌어내는 과목에 대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명확한 목표

를 계획하였다.

내가 지금 해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한 후, 전문성과 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활동으로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이 가장 1순위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능성 있는 자격증을 빨리 따는 것을 목표로 자격증 도전 리스트를 만들어 나갔다. 그리고 1학년부터 스스로 이력서를 써 보며 나에 대해 어떤 점이 부족한지, 어떤 활동을 채워 나가야 하는지 확인하며 수사 내용, 관련 경력 등 당장의 내가 채워 나갈 수 있는 활동을 체크하였다.

학과 내 자격증 취득 관련 교육이 전공별로 다양하였기 때문에 내가 흥미를 느끼는 전공들에 대해 교육을 수강할 수 있었고, 인사 관련 HRM전문가, 회계 관련 FAT 1급 등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또한 교내 학술제 및 공모전이 매년 열리는 것을 활용하여 전공 관련 주제를 택하여 공모전에 참여하였고, 수상과 더불어 전공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경험이 되었다. 이렇게 이력서에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글자를 새겨 넣어 갔다.

나처럼 뚜렷한 목표가 없는 학우들이 학과 내 교육과 다양한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이용하여 본인의 역량과 경험, 이력을 채울 수 있는 활동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부 방법에 대한 고민

학과 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자격증 취득을 통하여 내 역량을 개발할 때 스스로 공부 방법을 찾은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짧은 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었기에 합격생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며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공부 방법을 전환하였고, 또 나에게 맞는 생활 패턴에 대해서도 생각하였다.

주로 19시부터 23시까지 혼자서 내 속도에 맞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 높았고, 필사와 복습을 통하여 내용을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나만의 공부법을 찾아 나갔다.

그저 교재를 읽고 정리하는 것이 아닌 본인에게 어떤 패턴과 어떤 방법이 더 나은지, 또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더 효율적으로 다가오는지 꼭 고민해 보고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는 과정을 거쳐 적은 시간에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공부 방법을 챙겨 남은 시간 동안 다른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시간적 효율을 뽑아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휴식의 중요성

자격증을 준비하며, 취업을 준비하며 막막하고 마음이 잘 잡히지 않을 때가 많았다. 나는 이럴 때 다른 사람의 합격 후기를 읽거나 같이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들으며 이겨 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잡히지 않은 날에는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끔은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자기소개서를 쓰기도 하였다.

주로 카페에서 '카공족'으로 통하지 않기 위해 2~3시간만 앉아 있는 것을 목표로 하여 높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었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하다 보니 새롭게 공부하는 마음가짐을 얻을 수 있었다. 이처럼 각자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 부담 없고 가벼운 공부를 통해 높은 효율로 뛰어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취업 준비 과정

자기소개서를 한 번도 써 보지 않았던 나는 자소서 of 틀을 잡는 것마저도 어려웠다. 흔하디흔한 장단점을 생각하는 과정마저도 만나절이 걸리며 자소서에 대한 막막함과 첨삭의 과정에 가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까 막연하기도 하였다.

나는 우선 합격자소서들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으며 맥락과 문단을 파악하였

다. 또 합격자들의 일례는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그들과 나의 유사한 활동이 있다면 무조건 메모했다. 자소서 1번 문항 제한 글자가 1,000자라면 나는 약 3,000자를 준비하고 다양한 에피소드를 준비하여 첨삭을 도와주는 분들에게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준비한 자소서 아이템을 다시 갈아엎는 시간도 보내며 계속해서 자소서를 멈추지 않고 작성하고 첨삭을 받았다. 그러는 동안 나 스스로 첨삭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발전하였고, 그 결과 최종 자소서를 통해 현 회사를 비롯하여 2개 회사에 1차 합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면접 공부도 경험해 보지 못하여 오로지 면접 유튜브를 반복해서 시청하거나 스스로 모의 면접을 진행하는 방법뿐이었다. 당시 나는 반복적인 연습만이 최선이라는 것을 인지하였고, 면접 대본을 외우는 것과 더불어 비언어적인 행동들도 천천히 일상에서 연습하기 시작하였다.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미소와, 내 답변을 정확하게 전달 할 수 있는 전달력을 키우기 위해 일상에서 또박또박 타인에게 내 의견이 잘 전달되도록 말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서류 합격을 하였으나 원하지 않았던 회사였어도 면접은 꼭 참석하여 실제 면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 내가 준비한 답변이 어떤 후속 질문을 끌어내고 어떤 아이템이 면접관의 흥미를 끌어내는지 실제 면접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얻어 갔다.

첫 면접에서는 너무 긴장하여 질문과 답변이 생각나지 않았지만, 이 경험으로 긴장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하나씩 익혀 나갔다. 긴장이 되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빠르게 말하는 행동을 보완하기 위해 모의 면접에서 조금 더 천천히 말하는 방법을 익혀 나갔고, 면접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 보고 비언어적 행동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갔다.

여러분이 지금 면접을 준비하고 있다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모의 면접에 꼭 참여하여 면접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면접에서 나의 긴장도가 얼마나 높은지 확인하길 바란다. 그 과정에서 내가 준비한 면접 아이템이 어떤 반응을 끌어

내는지 체크해 보면서, 면접에 대한 준비성을 조금씩 높여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취업을 하기까지의 4년 과정에서 일부를 제외한 모든 것은 스스로 챙기고 또 스스로 알아봐야 하는 것들로 가득하다. 자소서에서 본인 활동 및 아이템을 녹여 내는 과정마저 스스로 생각하고 챙겨야 하기에 나는 본인이 대학 생활에서 활동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과정을 가졌으면 한다.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만드는 PPT 자료마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학부 생활을 할 때 만드는 자료 하나하나들이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스스로 챙기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두서없이 적은 글이라 황설수설하겠지만, 학생분들이 모두 원하는 것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은 꼭 담겨 있음을 느꼈으면 좋겠다.

글로벌경영

글로벌
경영학과

직무에 맞는 경험을 쌓아라

흥국산업 이OO

학회장 활동을 통해 얻은 좋은 기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일단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군대 전역 후, 학과 선배들과 자주 술자리를 가지며 이야기나 조언을 갖는 자리가 많았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술 먹고 노느라 바빠 보였을 수도 있었겠지만, 막상 복학하고 나니 진로를 어느 방향으로 정해야 할지 모르는 시기였다. 그래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인 3·4학년 형·누나들에게 조언을 많이 구했다.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해 주었던 사람은 당시 내겐 전 학회장이었던 4학년 선배였다. 그 선배는 학회장을 역임하면 많은 사람과 만날 수 있고 사회생활을 배울 수 있는 자리라는 조언을 해 주었다. 당시 학회장 후보로 나서는 사람도 없었고, 내겐 기회라 생각하여 학회장 선거에 나가 당선되었고, 3학년에 올라가면서 학회장 자리를 맡게 되었다.

3학년 때 학회장 및 단과대장을 맡게 되면서 여러 가지 행사 기획이나 물품에 대한 구매를 배우게 되었고, 여러 회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물론 코로나 시국이라 행사가 직접 진행된 경우는 드물었다. 또한 회의 자리를 드나들며 여러 학과 교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취업 자리 추천도 받게 되는 기회를 가졌다.

취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서면으로 취업 자리를 받게 되었고, 마침 추천받은 자리가 ‘흥국산업’이라는 레미콘 업체의 구매 자재팀이었다. 3학년 때 학회장 업무를 하면서 생산 관리·물류 관리·구매 자재 관리 등에 관심이 생겼던 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2022년도에 졸업예정자인 상태로 1월에 면접을 보게 되어 3월 초 흥국산업에 입사하게 되었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 당시에는 면접관분들이 추천해 주셨던 분의 성함과 학교생활 중 수료한 강의에 대한 질문을 주셨다. 추천해 주신 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학회장 생활 중 알게 된 분이었고, 그분이 흥국산업 사장님의 친우분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또 수료한 강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구매 자재 관련 업무에 흥미가 생긴 게 3학년이었고, 그로 인해 3학년 때부터는 구매 자재 관련된 강의만 수강했다는 답변을 하였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이 지원한 부서에 관한 정보와 그 부서에 얼마나 적합한 능력을 키워 왔느냐 하는 것이다. 부수적으로는 추천해 준 사람의 역량도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이 회사에 지원할 당시에 내 자격증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고 내세울 점은 회사 내에서 사용 중인 ERP 프로그램 관련 자격증과, 구매 자재 관련 강의 학점이었다.

물류관리론, 통계학, 생산운영관리 등 레미콘 업계 구매자재팀과 관련된 강의를 수강했다는 점을 어필했고, 학점 또한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러한 대답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우선 이미 수료한 강의여도 면접 전에 다시 한 번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훑어보아, 어떠한 질문이 와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면접관이었던 분은 회사 입사 후 내 담당 임원분이 되었고, 그 당시 나를 뽑았던 이유로 자신감 있는 대답과 밝은 표정에서 좋은 인상을 얻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자소서에서 구매 자재에 대한 직무의 이해도를 보고 면접을 결정했다고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취창업지원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컨설팅 담당 자분께서 자소서 첨삭을 도와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 주셔서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

모든 것이 경험이고 기회다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홍국산업이라는 회사는 비상장주식 회사로 아직 중소기업에 속한다. 하지만 레미콘 업계 단일공장 출하량으로 보면 업계 1등을 달리는 회사이다. 레미콘 업계 내 중견으로 속하는 회사이다. 이 대목에서 후배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터넷상에서 회사들을 나누는 기준인 중소, 중견, 대기업은 겉에서 바라보는 모습일 뿐,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중소기업은 아니라는 것이다.

모두가 취업 방향을 미리 정해서 자격증 취득 및 경력을 쌓아 놓는다면 대기업에 들어가기 쉬울 것이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그렇다고 취업 준비를 대학교 졸업 후 또는 졸업 유예를 한다고 해서 자신의 취업 방향을 확실히 정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다.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다 안 좋은 곳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한번 뛰어들어 본다면 그 또한 경험이고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는 홍국산업이라는 처음 면접 본 회사에 망설임 없이 입사한 것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어느 회사를 가든 힘든 점은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점을 이겨 내고자 배우고 노력한다면 누구든 낮은 스펙을 가지고도 더 많은 연봉과 직장 내에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젊은 직원들에 대한 자기 계발과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자기 계발과 업무 능력이 향상되는 직원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지급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직무를 정한 뒤 가고 싶은 회사에 대한 정보를 잡코리아, 잡플래닛 같은 사이트를 통해 충분히 검색하고 취창업지원센터를 통한 정보 획득 후 입사한다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늦었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

지금부터 후배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점은 나의 회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이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취업 방향을 늦게 정했고, 학회장이라는 이 점을 통한 활발한 교내 활동으로 취업 기회를 얻은 케이스이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 방향을 정하고 저학년 때부터 노력한 사람들에 비해 스펙도 낮고, 업무 이해도도 낮았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뒤처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실행한 노력은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회사에 할애한 점이다. 3학년 때부터 구매 자재에 초점을 두고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레미콘 업체에 대해 하나도 모르던 나는 회사에 있는 시간이 남들보다 현저히 많았다. 내가 이 업종에 대해 이해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도 스펙이 됐다고 생각한다.

3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출근했다. 회사 내부에 있는 공장 내부 부품들에 대해서 한 번씩 더 둘러보고 하청 업체 관계자들과 더 많은 만남을 주도했고, 그런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 회사 임원진분들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 입사 1년 차 계약 연봉보다 30% 정도 더 받게 되었고, 연봉 재협상 당시에도 더 좋은 조건으로 우대받았으며 회사 내 사무직 최초로 숙소 제공이라는 혜택도 받게 되었다.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시간을 줄이고,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 주고 개선한다면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어도 같은 선상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걸 직접 증명해 낸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건 맞다.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해 버린다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

후배분들께서는 저보다는 빨리 준비하여 조금이라도 더 잘 수 있고 위라벨을 더 채길 수 있는 회사에 취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도 하다.

성실함이 곧 능력이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후배분들보다는 사회생활을 오래 했다는

가정하에 이야기한다. 나는 이 회사에 취직하기 전에 부모님 지인분의 회사에서 2학년 초부터 3학년 동안 정직원으로 주말 또는 방학, 휴일에 일했다. 그리고 현 회사에 이르기까지 대략 4~5년 정도 회사 생활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내가 아무리 기분 나쁘고 맘에 안 드는 일이 있더라도 무작정 싫은 티를 내면 안 된다는 점이다. 요즘 MZ세대라는 말이 있는데, 어느 회사를 가든 흔히 말하는 꼰대 같은 직장 상사, 딱 막힌 직장 상사는 있기 마련이다.

아무런 이유나 논리도 없이 “내가 왜 해야 하지?”라는 의견을 표출한다면 ‘저 친구는 MZ라서 그렇구나! 나이 어린 녀석이라 생각 없이 행동하는구나!’라는 시선 또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인간관계라고 생각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구성되고 직급 체계가 존재하는 곳이 회사이기 때문에 나보다 높은 직책의 사람을 대하는 일이 많을 것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업무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에 타당한 이유와 직장 상사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 논리와 타당한 이유를 가장 크게 뒷받침해 주는 것은 다름 아닌 성실함이다.

부모님 지인분 회사에서 일할 때, 고향에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후배들이 같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친한 후배들이 많이 와서 일했었기 때문에 휴식 시간이나 퇴근 후에 만나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저시급도 못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친구들이 많았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대처법도 널리 퍼져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는 후배분들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나이 어린 고등학생들이거나 갓 성인이 된 친구들이 일을 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그게 부당한 대우라는 것과 대처법에 대해서 조언해 줄 사람은 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조언을 해 주기보다 해결을 해 주기로 마음먹었고, 월급과 사업장을 담당하던 실장에게 이야기하고 고등학교 후배들과 함께 부당한 대우에 맞서 싸웠던 기억이 있다.

오지랖이 넓은 것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 회사 내에서도 나를 봐주는 시선이 성실하고, 불평불만 표출을 잘 안 하는 직원이었기에 내 의견이 수렴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회장 친구 아들이기에 가능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와서 부모님을 통해 듣는 이야기로는 출근하는 날이면 가장 먼저 출근해서 주변을 정리하고, 인사성도 밝고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에서 내 편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처음 맡은 업무 때문이기도 하지만 8시 출근이라고 하면 다른 직원들보다 1시간 빨리 출근한다. 눈이나 비가 오면 수도권이기 때문에 2시간 먼저 집에서 나오곤 했다. 그런 모습들이 회사 임원분들에게 계속 비추어지다 보니 현재 회사에서도 성실한 직원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 재직 중인 흥국산업에는 글로벌경영학과 17학번 후배도 함께 다니고 있는데, 그 후배는 내 추천으로 면접 본 당일 날 합격 통지를 받고 일주일 뒤에 바로 출근했다. 이 후배가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심어 준 것도 있겠지만, 회사 내에서 평가되던 내 평판 덕도 있었다는 게 이사님 의견이었고, 후배도 잘 따라와 주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임원분들도 잘 뽑았다고 한다.

후배분들께서도 졸업 후 회사에 취업하게 된다면, 성실함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후에 좋은 직장에 취업하시기를 바란다. 두서없이 적었지만, 후배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로벌경영

금융
국제학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국민연금공단 윤OO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옛 속담 중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그 말이 크게 와 닿지 않았다. 주변 상황들을 고려해 본 뒤 그렇게 느꼈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열정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던 것이었고,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속에서 다들 보이지 않는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전해 주고 싶다. 나의 취업 스토리가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양한 경험을 쌓자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새로운 환경이 가져다주는 설렘과 그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는 약간의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렇기에 학우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자 하였다. 교수님께서는 학점 관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이에 동감하였다.

물론, 성적 장학금을 받기 위해선 학점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그것에만 매달리기에는 나중을 생각했을 때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공부하는 시간과 다른 활동들을 하는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여 현재와 미래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보자.

나는 수업이 끝난 후에는 학과 내 ‘이코노미스트’라는 동아리에서 경제 신문 중 주의 깊게 본 내용을 스크랩 및 동아리원들과 공유하며 시사 · 경제에 대한 지식

기반을 다졌다. 또한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가지 않는 시간엔 봉사 동아리에 종종 참가하기도 하였고, 겨울엔 연탄 나르기와 제설 작업 등 개인 봉사에도 참여하였다. 아르바이트를 해 보는 것도 경험을 쌓기에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20살이 된 후부터 졸업할 때까지 음식점과 편의점, 학원, 방역, 사단법인과 공공기관 연구 보조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주말과 방학을 활용해 용돈도 벌고, 그 당시 내가 했던 업무들과 경험을 기억해 두기 위해 조금씩 정리해 두었다. 이 동아리 활동들과 아르바이트 경험들은 추후 내가 취업 준비를 하며 서류 전형에서의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떤 항목이든지 그때그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주었다.

목표 전환을 두려워하지 말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에 다녀온 후 자격증을 따기 위해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전에 취득한 금융 관련 자격증이 몇 개 있긴 했지만, 상당히 기본적인 자격증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회사든지 서류 전형에서 큰 가산점을 받긴 어렵다고 생각하였고, 고민한 결과 AFPK를 준비하게 되었다.

학교 수업과 아르바이트하며 자격증 준비를 하다 보니 모듈 1·2를 한 번에 준비하기엔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다. AFPK는 시험이 1년에 2번 있기 때문에 모듈 1·2를 나눠서 시험에 응시하였고, 시간이 꽤 걸리긴 했지만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재무·보험·부동산·세금·상속·투자 등 다양한 방면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재무 설계사라는 직업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재무 설계사를 준비하면서 AFPK의 상위 자격증인 CFP를 알게 되었고 4학년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다. CFP는 AFPK와 마찬가지로 모듈 1·2로 나뉘어 있지만, AFPK에게서의 8권의 책을 합하여 모듈 1로 되어 있으며, 모듈 2에서는 단일형과 복합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례들이 제시된다. 이를 재무용 계산기를 활용해 해당 사례에 맞는 산식을 응용 및 적용하여 정답을 도출해야 한다.

몇 개월간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어려운 난이도와 많은 양에 부담이 되었지만, 중간에 포기하기엔 그동안 공부한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시험까지는 한번 도전해 보자고 다짐했다. 그렇게 자격증 시험을 보러 서울에 올라갔고, 이틀에 걸쳐 시험을 치르고 나온 후 결과를 기다렸다.

합격을 기대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했다고 느꼈고, 결과는 역시 불합격이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성향에 맞는 진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다. 4학년이 끝나 갈 무렵, 내 진로 목표를 공공기관으로 변경하였다. ‘다소 늦진 않았을까.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증들, 그리고 NCS 등 필기 공부도 새로 준비해야 하는 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까? 목표 전환이 올바른 선택인가?’라는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다.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은 ‘늦었다는 생각이 들면 더 열심히 준비하자’는 것이었다.

취업 준비 과정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던 내가 생각났다. 아마 나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후배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준비한 과정이 정답은 당연히 아니지만, 조그마한 길이라도 제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어떻게 준비했는지 나열해 보았다.

• 틀 잡기

취업 준비를 하며 먼저 한 것은 내가 어떤 분야, 어떤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할지 대략적인 틀을 잡는 것이었다. 일단 상·하반기에 채용 공고가 열리면 어느 회사든지 크게 가리지 말고 지원해 보며 경험을 쌓아야 하지만, 적어도 내가 중점을 두고 준비하는 회사가 몇 군데 있으면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4대 보험 공단, 특히 국민연금공단을 목표로 하여 준비를 시작하였다. 우선 내가 알아본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공통으로 요구하는 자격증들이 몇 가지 있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국사 1급, 토익이 필요했다.

• 자격증 및 토익

컴퓨터활용능력은 필기와 실기를 준비해야 한다. 필기는 '전자문제집 CBT'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기출문제를 무료로 제공한다. 나는 여기에서 5개년 치 기출문제를 뽑아 해설을 참고하며 공부하였다. 실기는 독학으로 하긴 어렵다. 그러므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준비하는 걸 추천한다. 처음에 나도 기출문제집을 사서 독학하였으나, 기본 개념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실기 시험에서 계속 불합격하였다. 이후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준비하였고, 기본기부터 다지기 시작하니 어떤 문제가 나와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토익은 내가 준비한 회사 기준 850점이 만점이었다. 하지만 서류 전형에서의 비중이 10%밖에 차지하지 않아 만점을 목표로 잡지 않고, 시간을 투자할 기간을 정하여 그 안에 최대한 점수를 올리기로 하였다. 1학년 때부터 토익은 학교 수업을 통해 틈틈이 공부하였고 모의시험도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었다. 그래서 준비하는데 있어선 크게 해매지 않았다. 나는 준비 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최선을 다해 점수를 올린 후 다른 자격증을 준비하기로 했다. '해커스 토익' 인터넷 강의를 통해 기본기부터 다시 차근차근 학습하였고, 3개월 중 1개월 반은 집중적으로 공부한 후 남은 1개월 반은 2주에 한 번씩 토익 시험에 응시하며 준비하였다. 그 결과 835점을 달성하였고, 만점보다 1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하여 마무리 지었다.

한국사 1급은 암기만 충분히 한다면 어렵지 않게 취득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사 1급 기출문제를 프린트할 수 있으며, 유튜브를 통해 유명 한국사 강사의 영상을 보며 개념 학습을 한 후 기출을 여러 차례 풀어 보며 공부하였다. 이때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경험을 쌓음과 동시에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 자기소개서 작성

기본 자격증들을 준비한 후 이전에 올라온 채용 공고에 있는 자기소개서 질문들을 참고하며 내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았다. 처음에는 내용도 영성하고 임팩트

가 없어 애를 먹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내 취창업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았다. 내가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어떤 식으로 수정할지, 어떤 내용을 추가하는 게 좋을지 등등 세세하게 상담을 해 주셨다. 이를 통해 수정 · 보완한 자기소개서를 완성하게 되니 회사에 지원할 때 큰 시간을 들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 필기 및 면접 준비

필기 준비 또한 학과 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았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신 은행 및 공기업 관련 ‘해커스 NCS 강의’에는 NCS뿐만 아니라 전공 강의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교재만 따로 구매하여 준비할 수 있었다.

나는 국민연금공단 필기를 준비하면서 NCS와 행정학, 법학은 해커스를 통해 공부하였고, 추가로 경영학과 경제학은 ‘우리 취업아카데미’에서 전수환 · 황정빈 강사를 통해 공부하였다.

면접 준비는 면접 스터디를 하는 걸 추천한다. 4~5명이 스터디를 구성하여 서로가 조사한 자료들과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실전처럼 연습하기 때문에 내 자기소개서에서의 예상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 등을 정리할 수 있다.

후회 없이 도전해 보자

필기시험을 준비한 6개월 동안 순수 공부 시간 12시간을 달성하기 위해 스터디 카페에서 아침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 기간 정말 많은 무력감과 좌절감 등을 겪으며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지만, 결과가 어쨌든 간에 후회 없는 도전을 해 보자며 하루하루 버텼던 것 같다. 취업을 준비하는 그 시간은 모두에게나 힘든 시간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시기를 극복하고 끝까지 노력하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스토리 제목처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을 몸소 느꼈고, 앞으로 취업을 위해 나아가는 후배님들도 이런 경험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멀리서 응원합니다.

글로벌경영

금융학과

모든 경험은 무기다

농협은행 전OO

모든 경험은 무기가 된다

취업 준비 기간을 돌이켜 보며 가장 많이 떠오른 단어는 ‘경험’이다. 처음부터 뚜렷한 취업 목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기에 경험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싶다.

대학교에 입학하고부터 항상 구체적인 진로를 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다. 열심히는 하는데 자꾸 돌아가는 것 같고, 밀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학교 프로그램, 학생회 활동, 공기업 계약직, 과장을 조금 보태서 아르바이트 등 수많은 경험을 통해 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일, 말을 하는 직업,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는 것,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직종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막막했던 나의 진로를 구체화하여 은행권 취업이라는 목표를 정할 수 있었다.

당장 눈앞에 놓인 기말고사보다 다양한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 주고 싶고, 아직 뚜렷한 진로나 취업 방향을 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 취업 스토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학교를 최대한 이용하자

학교를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대학교에는 찾아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고등학교처럼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서 참여해야 한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야말로 사회로 나가기 전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나는 금융기관 탐방을 하며 취업한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 분위기를 알 수 있었고, 금융기관 현장실습 과정에서는 영업에 대해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베트남에서 언어와 그 나라의 경제를 경험했고, 외국인 버디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과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 주며 서로의 문화를 배우기도 했다.

입학하고 4년 동안 봉사 동아리 활동도 참여하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의 기쁨을 알게 되기도 했다. 그리고 자소서 첨삭과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통해 어렵게만 느껴졌던 자소서와 면접의 틀을 잡을 수 있었다.

이처럼 찾아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자소서에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 때도, 면접을 준비할 때도 큰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많은 친구들이 학교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

누구에게나 시련은 온다, 어떻게 보내느냐의 차이

내가 처음부터 은행권 취업만을 목표로 삼았던 것은 아니다. 공기업과 금융기관 중에 한 분야로 결정하지 못해 두 직종 다 준비하며 대학 생활을 보냈고, 그러다 큰 사고로 인해 1년 넘게 재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나의 시시콜콜한 대학 시절 이야기가 아니다. 사고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이와 같은 시련이 올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이다.

오히려 나는 이 시련을 통해 정확히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을 정리하고 취업 방향을 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기업과 은행권 취업을 같이 준비했던 나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과감히 공기업을 포기하고 은행권 취업에 집중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걱정했던 1년은 오히려 뒤처졌다는 걱정과 절실함이 합해져 후회 없는 취업 준비 기간을 보내게 해 주었다. 그 기간 동안 꾸준한 NCS 준비와 면접 스테디를 하며 최종적으로 농협은행에 합격할 수 있었다.

누구에게나 힘든 순간은 오겠지만 그때를 터닝 포인트로 삼는다면 더 큰 추진력을 얻으리라 생각한다.

공부도 열심히, 노는 것도 열심히

과거 취업한 선배님들이 강연하러 오셨을 때, 놀기도 열심히 놀고 공부도 열심히 하라는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근데 취업하고 보니 그 말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취업하기 위해서는 필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서류, 필기, 면접 등 다양한 관문이 존재한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들과 놀러도 다니고 대화도 하며 얻을 수 있는 경청하는 힘과 화법, 전달력 등은 면접 때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나는 대학 생활 동안 토익, 컴퓨터 활용, 한국사 등 기본적인 자격증을 취득 후 AFPK, 증권투자 권유 대행인, 전산회계 등 금융 자격증을 취득하며 전문성을 키웠다. 그리고 자기 전이나 밥 먹을 때는 틈틈이 시사 프로그램이나 뉴스 기사를 봤다. 또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동아리 활동도 하며 꾸준히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려고 노력했다.

이처럼 뭐든 열심히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서류 · 필기 · 면접 전형을 나누지 않고 자연스럽게 모든 전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필기는 독학, 면접은 스터디

취업 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다. 따라서 자소서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첨삭을, 필기는 독학으로, 면접은 스터디를 통해 준비하였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 준비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NCS 스터디도 있지만 준비하고 이동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혼자서 매일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면접 같은 경우 독학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삼자가 보고 말해 주는 객관적인 피드백, 꼬리 질문이 이어지는 압박 면접도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터디 3개에 참여하여 다양한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았고, 면접 당시 돌발질문들이 꽤 있었지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을 추천한다.

후배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

결국은 본인이 마음먹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취업 스토리에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가야 후배들에게 진심이 와 닿을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래서 무조건 희망적으로 쓰기보다는 진심으로 그 당시에 내가 알았더라면 더 좋을 만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아마 이 글을 봐도 100%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나 또한 과거에 그랬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취업 시장은 냉정하고 어렵고 외롭다. 나도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 하는 불안감과의 싸움을 계속했었다.

나처럼 진로를 정하지 못한 채, 맞게 가는 건지 불안하고 막막한 후배들이 있다면 꼭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 처음 생각했던 길과 다른 길을 가도,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이 와도 모든 과정과 경험은 헛되지 않고 취업 준비를 하는 순간순간에 도움이 되고 무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은행에 취업했지만, 공기업 계약직을 다녔을 때 배웠던 것들이 면접 때도, 더 나아가 취업 후 업무를 처리할 때도 좋은 밑거름이 되고 있다.

불안한 순간이 올 때, 학교의 여러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 보면 자신감이 생기는 순간들이 올 것이다. 돌아가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본인은 잘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글로벌경영

세무학과

도전하는 삶을 살아라

세무사 조OO

도전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나는 세무사가 되기까지 수많은 도전을 했다. 처음부터 세무사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과정을 겪고 현재 세무사가 되었다. 내가 세무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로 후배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늦었다고 생각하여 꿈을 선뜻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나는 59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내가 세무사 자격증을 준비하게 된 과정들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시작이 반이다

나는 처음에 세무학부가 아닌 수학과를 가게 되었다. 수학에 흥미가 있었고 재능도 있었기에 수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 후 다니다가 군대에 가게 되었을 때 문득 ‘세무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틈틈이 공부하다가 시험을 보게 되었고, 결과는 아쉽지만 좋지 않았다.

그 후에 포기하지 않고 군대에서 제대한 뒤 금융세무학부로 재입학하여 다니면서 전산회계와 세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세무사 시험을 본격적으로 3년 동안 준비하여 처음 시험을 봤을 때 2차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고, 2년 뒤에 2차를 다시 본 뒤에 합격할 수 있었다. 총 3년의 공부 과정을 거쳐 합격 후 수습 세무사의 과정을 거치고 현재의 세무사가 될 수 있었다.

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꿈을 좇기 위해 어떠한 변수도 마다하지 않고 도전하게 되었다. 만일 세무사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꿈을 이루기 위해 시작해 보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후회는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도 현재 결과가

두려워 시작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일단 시도는 해 봤으면 한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모두 도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본인의 공부 스타일을 찾자

나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며 나만의 공부 방식을 점차 찾아갔다. 처음에는 합격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찾아보고 무작정 따라 하기 바빴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일 분이라도 더 공부하고자 집착했던 것 같다. 이렇게 했을 때 순간 공부 시간과 머릿속에 들어오는 내용의 양이 비례하지 않는 것을 순간 깨닫게 되었다. 오래 앉아 있긴 했지만, 집중력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합격한 사람의 비법만 듣고 따라 한 것은 무모했던 공부 방식이었다. 이러한 실 틈 없는 공부 방식은 오히려 공부 강박으로 이어져 스트레스만 심하게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후에는 나만의 공부 방식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내가 공부한 방식은 실패 때는 강박 없이 쉬고 공부할 때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최대치로 활용하는 공부 방식이었다. 나는 오래 앉아 있겠다고 해서 공부에 계속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집중력이 깨진 시간을 활용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며 흐트러진 집중력을 바로잡고 틈틈이 자소서를 미리 써 보는 등 재충전하려고 했다.

또한 주말에는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지치지 않고 총 3년 동안 공부할 수 있었다. 여러분도 처음 시작 때 막막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찾아보게 될 것이다. 이를 무작정 따라 하기보단 참고할 것을 활용하고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리폼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다.

나만의 공부법

내가 합격할 수 있었던 공부법은 이론을 먼저 외우기 전에 먼저 문제집을 풀어

보는 것이다. 이때 책에 바로 푸는 것이 아닌 처음에는 노트에 답을 쓰고 풀어 본 다음 채점을 해 보고 틀린 문제는 답안 해설을 보며 왜 틀렸는가 이해하고 문제 유형에 따른 답안 해설을 보면서 암기했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를 보면서 이론을 외웠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는 헛갈리지 않고 활용하여 풀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정독하고 자세히 몰랐던 문제들만 골라서 다시 풀어 보며 위에 말한 방법으로 한 문제집당 3번씩 반복하여 완전히 한 권을 끝내는 방식으로 공부하였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순 있지만 문제집 한 권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되게 할 수 있었다. 또한 암기를 하고 내가 강사가 된 것처럼 누군가 가르치듯이 복습을 했을 때 상황이 떠오르면서 내용이 인상 깊게 남았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효율적이고 내용을 인상 깊게 남길 수 있는 공부법을 찾기를 바란다.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최대한 활용하면 좋다. 나는 재학 중일 때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전 ‘고시반’이라는 프로그램과 강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이용하였다.

먼저 ‘고시반’이라는 프로그램은 시험 준비를 하는 데에 뒷받침이 되어 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언제 공부를 하고 갔는지 체크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 좌석과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등 고시반을 통해 학교에 있을 때는 따로 독서실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고시반’이라는 이름답게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에 의지도 많이 되고 주변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고 나 자신 또한 의지력을 더 높일 수 있었다. 서로 알고 있는 정보를 스터디 그룹 하듯이 공유하면서 얻는 것도 많았고, 시간 또한 절약할 수 있었다.

또 다른 혜택인 강의료 지원은 학생이라 돈이 많지 않고 공부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할 시간도 없는 학생들에게 최대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인터넷 강의와 모의고사 비용 등을 학교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비용이 부족해서 그만둬야 하나.’라는 생각할 필요 없이 혜택을 받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분들도 학교 프로그램들을 많이 찾아보고 직접 다 활용해 보길 바란다.

세무사 합격 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후의 과정을 말해 주고자 한다. 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먼저 수습 세무사로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시험을 본 것과 별개로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는 생각으로 일을 배워서 지금의 세무사까지 오게 되었다.

실무는 역시 이론으로 공부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합격하면 모든 것이 편하고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세무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면 세무사 준비할 때만큼은 아니지만 공부할 게 끝이 없다. 그렇다고 이 말을 듣고 겁먹을 필요는 없다. 세무사 시험에 합격까지 했으면 금방 익숙해져서 여러분이 생각한 세무사로서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시험에 합격하고 수습 세무사로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생각한 것과 다르고 배우느라 약간은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배울 때만 좀 더 열심히 한다면 생각해 왔던 최종 목표를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취업 준비 과정

취업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것은 자소서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자소서는 취업 전 본인의 경험 스토리와 취득한 자격증들을 많이 적을수록 유리한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3년 동안 시험 준비만 했기 때문에 쓸 내용이 마땅치 않았다. 업무 관련 경험이나 토익 등의 내용을 쓸 것이 없었다.

하지만 이런 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공부

를 그만큼 열심히 해서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는가. 이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자기소개서 내용이 화려하지 않아도 자기소개서 내용에 기죽지 않고 본인이 세무사가 되고 자 한 이유와 공부해 온 그 길에 대해 끈기와 열정만 보인다면 취업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또한 자소서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자세히 본인을 어필할 기회인 면접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무 세무사로 일하면서 느낀 점

내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느낀 건 거래처에서 생각보다 세무사를 찾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세무 쪽 업무가 금전적인 것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 작은 것에도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 보니 어떤 상담을 하게 될지 모르니 시험 봤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세법 내용을 계속 머릿속에 남을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계속 배우고 공부하는 중이다. 세무사 시험에 합격 후 다 끝난 기분이겠지만, 앞으로 편하게 일할 생각은 많이 하지 않는 게 좋다. 힘들게 합격한 만큼 세무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끝없는 공부와 일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취업 준비를 하길 바란다.

세무사를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들과 응원도 좋지만, 현실적인 조언을 해 주고 싶었다.

자신감이 중요하다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속 독서실에서 공부만 하다 보면 갑자기 무기력해지면서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온다. 특히 한 번 불합격을 해 봤던 사람이라면 더욱더 이런 생각이 드는 일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물론 걱정되고 불안할 수 있지만 이때 정신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생각에 계속 헤어 나오지 못하면 큰 압박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것들을 포기하게 되고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 때 나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가 온 것으로 생각해서 잠깐이었지만 나에게 휴식할 시간을 주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신을 다잡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해 올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부담감이 덜어지도록 혼자만 힘들어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 불안감을 해소하고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처럼 자신감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들 세무사 시험을 준비할 때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그러니 중간에 잘 안 풀린다고 해서 본인의 생각이 틀렸대거나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처음과 같은 생각으로 합격의 길까지 갈 수 있길 바란다.

이 자신감은 시험 준비할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일할 때도 마찬가지다. 본인이 세무 상담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도 거래처와 상담할 때 자신감 있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감 없게 느껴지면 거래처 입장에서조차 불안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앞으로 항상 무엇을 하든 자신감을 잃지 말고 당당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앞에 말한 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글이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까지 쓴 내용은 나의 세무사 공부 과정이 담긴 이야기이고 여러분들은 또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앞으로 나가는 데에 힘이 되고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여러분들도 본인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새롭게 도전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항상 응원하겠다. 지금까지 긴 글을 읽어줘서 감사하며, 앞으로 명확한 계획과 목표로 잘 나아가서 훗날에 세무사로 만날 수 있길 바란다.

의과학

물리치료
학과

한 사람의 대학 생활 경험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홍○○

다양한 경험을 해 보라

나는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해 보지 않은 일이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해 볼 수 있을 때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물론 내가 관심 있는 분야 혹은 가고자 하는 진로에 맞게 준비하고 활동하면, 가고자 하는 진로에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대학병원에 갈지, 도수치료를 할지, 골프 분야로 갈지 항상 고민이었다. 이렇게 여러 진로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무엇 하나를 명확히 정하기가 어려웠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학과 동아리, 스터디, 교수님들의 연구과제, 타 학과와의 동아리 및 프로젝트, 교외 활동 등의 기회가 오면 항상 참여했다. 처음에는 관심 분야 혹은 물리치료와 관련이 없는 일이라도 그러한 일을 통해 더 좋은 기회가 오기도 하고, 돌아봤을 때는 관련 없어 보이는 일들도 결국 서로 연결이 되어 가고자 하는 길로 이어지는 것을 느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실수하거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불편한 마음이 항상 있다. 그러던 중 졸업에 필요한 독후감을 작성하기 위해 어떤 책을 읽었는데, “실패가 있어야 발전이 있다.”라는 문장이 있었다. 물론 그전에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어 본 말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이 말을 곱씹어 보게 되었다.

그 이후로 일의 완벽함보다는 신속함을 우선시하며 내가 놓친 부분을 다음에는 놓치지 않도록 신경 쓰며 일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므로 공부든 일이든 무언가를 할 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먹이를 쥐 보는 것은 어떨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시간을 알뜰하게 사용해라

세상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은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하루를 30시간, 20시간 혹은 12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나는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시간’이다. 출근하는 지하철, 근무 준비 후 10분, 점심 식사 후 남은 15분, 퇴근하는 지하철 등에서 활용 가능한 시간은 정말 많다. 시간을 쪼개서 잘 활용하여 남들보다 하루에 한 시간만 더 활용한다면 일주일에 7시간, 한 달이면 30시간을 더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기 전에 의미 없이 버려지는 시간은 없는지부터 생각해 보면 시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일지를 작성해 보라

학부 4년 동안 많은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런데 취업에 필요한 자기소개서나 활동 사항 등의 항목을 작성할 때, 이런 경험들이 당장 떠오르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든 좋지 않았든 경험이든 모두 적어 놓고 그에 대한 내 생각도 입력해 놓으면 취업을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4학년 2학기라면 국가고시도 준비해야 하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어학 공부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이 시기에는 신경 쓸 것도 많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일지를 작성해 두면 취업을 준비하는 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나는 대학일지에 과대, 봉사, 연구 활동, 경진대회, 동아리, 스터디, 전공 관련 교육 등을 모두 적고 이에 대한 생각과 느낀 점도 함께 기록해 두었다.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며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작성할 때 대학일지에 있는 부분을 바로 인용하기도 하고, 요즘의 생각을 첨가하고 수정해서 사용하기도 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혹은 이전에 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부터라도 시작하면 더 알찬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에 충실하고 복습에 투자하라

기본에 충실히 하라는 말은 여러 매체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들어 봤을 거다. 나 또한 기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부생에게 기본은 전공 공부다. 교수님들께서 오랜 시간 강의를 준비하시고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 것은 학생들이 임상에 나가기 전에 대학에서 튼튼한 기본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복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업을 듣는 것은 내 지식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지만, 그 그릇 안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복습해야 한다. 나는 연습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복습은 수업한 그날에 하고 주기적으로 계속하였다. 사람의 뇌는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퇴행한다는 것은 물리치료학과 학생이라면 모두 알 것이다. 지식 또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배우고 공부한 지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되새긴다면 그 지식을 임상에서 활용하고 다른 부분과 응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졸업을 앞둔 우리 물리치료학과 4학년 후배들, 4년간 학교 다니면서 힘들고 지친 일이 많았을 텐데 그동안 고생 많았고 잘했다는 격려를 해 주고 싶다.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끝 인상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친한 친구들은 졸업 후에도 잘 지내겠지만, 어색한 친구들이나 친하지 않은 친구들은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끝 인상이 될 것이다. 끝 인상으로 나에 대한 모습이 기억되기 때문에 서로 좋은 관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4년간 고생 많으셨고, 임상 혹은 사회에서 좋은 동료로 봤으면 좋겠다.

의과학
방사선학과

취업은 나의 결실

삼성서울병원 이OO

나의 채용 준비 과정

2022년, 나는 방사선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며 동시에 삼성서울병원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지원하였다. 학교생활과 취업 준비를 병행하며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채용에 합격하여 2023년 3월부터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졸업예정자로서 채용 준비하는 과정을 공유하여 나와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학교생활을 하는 후배들이 채용 준비를 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고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학점, 성실함의 지표

최소한의 기준은 있겠지만 당연히도 학점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또한, 등수 역시 높을수록 좋다. 학점과 추후 기술할 영어 성적은 서류 합격의 예선전과 같아서 미리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스펙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어렵게 온 기회를 놓쳐 버릴 수 있다.

학점의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올릴 수 없다.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1학년 때부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학점은 인사담당자와 면접관에게 나의 성실함을 보여 줄 수 있는 하나의 객관적인 수치이다.

4년간 혼자 공부하기도 하고 주변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기도 하면서 대학에서의 높은 점수는 머리가 아닌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이루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낙심하기보다는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하면 높은 학점을 얻을 수 있다.

영어(토익), ‘토익팍팍’으로

토익 점수 역시 학점과 마찬가지로 지원자의 성실함을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로 볼 수 있다. 많은 사람이 토익에 대해 막연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다니는 건양대학교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토익에 대해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교양필수 중 하나인 영어 과목만 열심히 들어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토익 성적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올라간다. 하지만 나는 더욱 확실한 방법인 ‘토익팍팍’을 추천한다.

‘토익팍팍’은 방학 기간에 4주간 이루어지는 토익 강의로 4주간 아침 4시간 LC, 오후 4시간 RC, 저녁 식사 후 4시간 자율학습으로 진행된다. 또한 강의를 수강하는 모든 사람은 기숙사에서 지내다 보니 4주 동안 오롯이 토익에 집중할 수 있었고, 500점대인 토익 점수를 단 4주 만에 800점대 중반까지 올릴 수 있었다.

다양하게 경험하고 카테고리화하기

졸업예정자가 경력직 지원자를 절대 이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임상경험이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1학년 때부터 유사 경험을 쌓기 위해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자 노력하였다. 동아리 활동부터 아르바이트, 학생회, 병원 실습으로 다양한 유사 경험을 쌓아 나갔다.

이렇게 쌓은 경험을 쪽 써 보고 각각의 경험들 속에서 어떤 것을 얻었는지를 같이 적었다. 그 후 성공 사례, 실패 사례, 갈등 상황 등과 같은 카테고리를 만들어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함으로써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나 면접 준비를 할 때 필요한 경험을 빠르게 찾을 수 있었고, 임상 경력은 없지만 그와 유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임상에서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음을 어필할 수 있었다.

자기소개서 항목별 작성 팁

자기소개서는 서류 통과에도 필요하지만, 면접까지 가게 된다면 내가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 정보와 직무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는 병원 홈페이지, 워크넷, 취업포털, 관련 협회, 관련 동향 등을 참고하여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다른 사람이 올린 자기소개서를 보는 것이다. 물론 다른 사람이 쓴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방향성을 잡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쓴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정작 나의 이야기를 못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나의 경험, 병원 · 직무 정보와 연관된 답변을 작성해야 한다.

취미/특기/존경 인물의 경우에는 보통 면접 시작 시 아이스브레이킹 질문으로 사용되므로 너무 튀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취미/특기의 경우에는 내가 평소에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지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평소에 자기가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적는 것이 좋다.

존경하는 인물의 경우에는 나만 아는 인물을 적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인물을 적게 된다면 나중에 면접장에 가서 그 인물에 대해 설명만 하다가 면접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 지원한다고 해서 꼭 의료와 관련 있는 인물을 쓰지 않아도 괜찮다. 존경하는 인물과 왜 존경하게 되었는지 이유만 있다면 충분하다.

자기소개는 내가 면접에 갔을 때 면접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쓰는 것이 좋다. 이전에 찾은 병원 · 직무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대학 생활을 하며 얻은 경험 이 실제 임상에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어필해야 한다. 병원 실습, 아르바이트, 학교생활 등 내가 얻은 경험 속에서 직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을 추리고, 거기에서 면접에 갔을 때 면접관들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경험 두 가지 정도

를 자기소개에 쓰는 것이 좋다.

장점과 보완점 역시 병원 · 직무 정보와 연관되게 써야 한다. 장점의 경우에는 MBTI를 참고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어떤 장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임상으로 왔을 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써야 한다. 보완점은 내가 정말 고칠 수 없는 단점, 실패를 적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보완할 수 있는 점을 써야 한다. 이제까지 내가 실패하거나 어려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나에게서는 이러한 단점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완한다면 임상에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써야 한다.

지원 동기는 병원 정보가 정말 중요하다. 내가 지원한 이 병원의 어떤 점을 보고 지원했는지를 써야 하므로 병원이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 병원에서 일을 했던 혹은 하는 사람들에게 병원 근무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좋다.

현직자를 통해 듣는 내용은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느끼는 장점이라 신빙성이 있고, 내가 이 병원에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지도 보여 줄 수 있어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다. 지원 동기는 임원진 면접에서 관심 있게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이므로 내가 이 병원의 어떤 점을 좋게 보았는지에 대한 근거를 확실하게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소개서는 많이 써 볼수록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의 면접뿐만 아니라 교양수업을 통해 써 보거나 관심 있는 병원의 자기소개서를 찾아보고 미리 써 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병원에 지원하였을 때 참고하면서 좋은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다.

GSAT 준비하기

서류에 합격하게 되면 약 2주 정도 GSAT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GSAT 특성상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그저 주어진 준비 시간 동안 많은 문제를 풀어 보면 된다.

GSAT는 3급 · 4급 · 5급으로 나뉘는데, 의료기사직은 4급으로 준비하면 된다. 서점에 가 보면 출판사별로 GSAT 문제집이 많이 있다. 그곳에서 4급 문제집을 찾아서 풀면 된다. 2023년 공채 기준 과목은 수리 · 추리 · 지각 총 3과목이고, 수리는 중학교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된다.

GSAT를 준비하는 방법은 주어진 준비 시간 동안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GSAT를 준비할 때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GSAT를 준비했고, 저녁 식사 후에 국가고시를 준비했다. 이렇게 시간 분배를 함으로써 문제집 3권을 2번 씩 풀어 볼 수 있었다. 이 정도로 많은 문제를 풀어 보니 가장 걱정이었던 수리 부분에서 대부분의 문제 유형을 외우게 되어 문제를 보자마자 공식에 대입할 수 있었고, 간단한 계산 문제는 요령으로 빨리 풀 수 있게 되었다. 부족한 추리 부분에서도 많은 연습을 할 수 있어 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확실하게 올릴 수 있었다.

사실 우리가 보는 GSAT의 난이도는 높은 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이런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시 준비를 미리 어느 정도 해 놔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4학년 여름방학 때 모의고사를 풀면서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미리 국시 준비를 끝마쳤다. 덕분에 GSAT를 준비하면서 저녁 시간 이후에 모의고사 오답 노트를 하며 부족한 부분을 정리하는 것만으로 국시 준비를 끝낼 수 있었다.

삼성서울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 졸업예정자로 지원할 계획이 있다면 국가고시 준비를 최소한 여름방학 때까지는 끝내야 취업 준비에 집중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면접 준비하기

면접에서 질문은 공통 질문 외에는 자기소개서 위주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 질문을 짚 때도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짜야 한다. 하지만 막상 내가 스스로 나의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질문을 짜려 한다면 질문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 나의 이야기를 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궁금증을 찾기란 쉽지 않다.

나는 그래서 면접을 준비할 때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건양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에서 진로취업상담실을 통해 면접클리닉을 받을 수 있고, 주변 친구·지인·교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면접 기출 질문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기출 질문 중에서 공통 질문만을 참고해야 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기출 질문 중에서 서로 겹치는 질문들은 공통 질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 있고, 병원이 어떤 가치관을 중점적으로 보는지도 알 수 있다.

예상 질문을 짰다면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쓸 차례이다. 면접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나의 주장에는 무조건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거나 근거 없는 주장만을 펼치고 온다면 좋은 결과를 바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 질문을 짜고 답변을 준비한 후에는 연습만이 살길이다. 면접은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중요하지만, 표정이나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도 매우 중요하다.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거나 스스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말의 속도, 목소리의 크기, 표정, 몸짓 등을 확인해야 한다. 셀프뷰 어플을 다운받아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이렇게 혼자서 어느 정도 연습을 해 보고 주변 친구나 교수님께 부탁하여 모의 면접을 보면 면접 실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실제로 면접을 보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대처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준비를 마치고 면접을 보러 간다면 면접 대기 장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면접의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 내가 대기하는 모습을 면접관이 직접 볼 수도 있고, 대기실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 전달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른 자세로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1차 면접은 실무진 면접으로 진행되고 2차 면접은 임원진 면접으로 진행된다. 1·2차 면접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1차 면접에서는 전공지식에 관련된 질문이 나오며 병원 생활에 관한 질문이 많이 나왔고, 2차 면접에서는 인성에 관한 질문이 많이 나왔다.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자기소개서 위주의 질문이 많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겁내지 말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사실 취업을 준비하면서 겁이 나는 상황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원서를 제출할 때나 채용시험, 면접을 준비하고 볼 때 등 수많은 상황에서 겁이 날 수 있고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의심할 수 있다. 나 역시도 다른 사람들 다 판다는 자격증 하나 없었고, 특별한 외부 활동이나 수상 경력 하나 없이 학점 · 토익 · 교내 활동으로만 지원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서류 전형에서 합격할 거란 생각 없이 단순히 되면 좋고 안 되면 자기소개서 연습한 셈 치자란 마음으로 지원하였고, 결과적으로 서류 전형에 합격하며 나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다음 과정을 준비할 수 있었다. GSAT와 면접 때도 겁내지 않고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며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서류에 통과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경쟁력을 가졌다는 말이다. 자신을 믿고 자신감을 가져야 준비한 모든 걸 보여 줄 수 있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한 가지 더 전하고 싶은 말은 열심히 공부하고 높은 성적을 받는 것만큼이나 동아리나 학생회같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활동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다. 방사선사란 직업 특성상 혼자서 일하기보다는 여러 사람과 같이 일하는 환경이다 보니 면접 때도 그러한 활동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동아리나 학생회에 들어가 활동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활동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 학교생활에서 즐거움을 얻음과 동시에 취업 준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글을 마치면서

저의 취업 스토리를 읽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교수님과 취창업지원센터에게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취업 스토리북을 찾아 읽어 보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열정이라면,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힘든 일도 많겠지만, 좌절하지 않고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길 희망합니다.

의과학
방사선학과

실패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다면

서울성모병원 문OO

글을 시작하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영상의학과를 거쳐서 서울성모병원 핵의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 방사선사로서 후배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이나 내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작성하였다. 과거의 나와 같이 취업에 대한 걱정이 많을 후배들에게 나의 이야기가 작은 부분이라도 도움이 되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다양한 준비로 선택의 폭을 넓혀라

방사선학과를 졸업하고 방사선사 면허증을 가지고 대학병원 취업의 문을 두드릴 때 3개의 선택지가 주어진다. 먼저 병원에서 가장 많은 방사선사가 일하고 있고 일반인들에게 X-ray, CT, MRI 검사 등으로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는 방사선사라는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영상의학과가 있고, 최근 신촌세브란스 병원을 필두로 국내 대형 병원들이 앞다투어 중입자 치료기를 도입하여 암 치료로 더욱 주목받는 방사선종양학과, 마지막으로 방사성핵종을 이용하여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핵의학과가 있다.

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 나도 처음부터 핵의학과를 지망하지는 않았다. 사실 핵의학과는 방사선사에게도 조금은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졸업하게 되면 막연하게 영상의학과나 방사선종양학과에 취업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면서 취업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 선배님 중에서도 병원 생활이 맞지 않아 병원에 다니다가도 나오는 경우를 보았을 때 혹시 나도 병원 생활이 맞지 않으면 어쩌나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때 떠오른 것이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RI)였다.

RI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산업체나 대학 및 연구소에서 방사선 안전관리자로 취업할 수 있고, 공공기관에서 취업 시 가산점 등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병원을 지망하였을 때도 RI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핵의학과 지원에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내 생각엔 영상의학과나 방사선종양학과를 지망하였을 때도 다른 지원자들과 스펙이 비슷하다면 그래도 RI 면허를 소지하는 사람의 준비성을 더 좋게 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4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부터 RI 면허를 준비하여 취득할 수 있었다. 학교에 다니면서 학점도 꾸준히 관리하고 토익도 준비하면서 RI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물론 쉽지는 않은 도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RI 면허가 있었기에 현재 대학병원 방사선사로서 일할 수 있게 되어 이때 도전했던 것이 좋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후배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실제로 재직하고 있는 서울성모병원뿐만 아니라 삼성서울병원 등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핵의학과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RI 면허를 필수적으로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대학병원 계약직 1명을 뽑는 자리에도 100명씩 지원을 하는 요즘 같은 취업시장에서 하나의 선택지를 더 얻는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로는 모자라다.

RI 면허를 예시로 들었지만, RI 면허와 같이 학부생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준비들로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된 나만의 무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다수의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부터 구인을 시작하게 되는데, 몇몇 특정한 병원은 4학년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4학년 2학기부터 병원에 지원할 자격이 주어진다. 사실 4학년 2학기에는 마지막 학점 관리도 중요하고 국가고시라는 큰 산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토익까지 준비하는 것을 벼차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선배님들이나 교수님들

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4학년 2학기 전에는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토익 점수 취득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취업 준비를 시작하였다.

•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의 경우 학과에서 실시하는 모의 면접을 통하여 자기소개서를 미리 작성하고 교수님들에게 첨삭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었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학교 취업 지원 프로그램 중에 자기소개서 전문가들이 직접 대면으로 첨삭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해 주고 싶다.

자기소개서는 병원마다 공통적인 항목들도 있고 병원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에 항목이 다른 것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미리미리 내가 지망하는 병원의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작년이나 재작년 공고를 통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경우는 같은 과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서로 봐주고 어색한 문장이나 추가하면 좋을 내용들을 서로 첨삭해 주기도 하였는데, 자기소개서는 많은 사람이 읽고 수정을 거칠수록 더욱더 좋아진다고 생각하므로 이 방법 또한 후배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다.

• 토익

토익의 경우 사실 요즘 대학병원에서 학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학병원을 노리는 후배들에게는 꼭 미리미리 준비하여 고득점까지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추천한다.

나의 경우는 학교에서 하는 ‘토익팍팍’이라는 프로그램을 수강하여 점수를 취득하였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5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토익만 공부하는 프로그램인데, 물론 처음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하루 종일 공부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겪고 만족할 만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을 때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고, 사실 만나는 후배마다 꼭 ‘토

익팩팍’을 수강하라는 말을 하고 다니고 있다.

물론 혼자서도 토의 준비를 잘하여 좋은 점수를 얻는 학생들도 있지만, 혼자서는 꾸준히 공부할 자신이 없는 학생에게 ‘토익팩팍’은 최단기간에 최고의 성적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학교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기숙사비나 교재비를 포함한 비용도 저렴하고, 오시는 강사님들의 수준도 실제로 강남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끌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핵의학과를 지망하는 후배들에게

핵의학과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성질을 이용하여 환자의 해부학적 · 생리학적 · 생화학적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분야이다. 나도 학부생 때는 핵의학과는 동위원소를 이용한 검사라고만 생각했지만, 실제로 핵의학과에서 업무하면서 치료 쪽으로도 많은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에는 우리 병원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Y-90, Lu-177 등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간암이나 전립선암 치료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환자의 암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핵종이 개발되어 치료 쪽으로도 더욱 발전될 것으로 생각한다.

핵의학과라면 다른 영상의학과나 종양학과에 비해 피폭을 많이 받아 건강상의 우려로 지망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핵의학과에 종사하면서 분기별로 피폭량을 확인한 결과, 분기당 1mSv 이하로 연간 자연 피폭량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것보다는 크게 방사선 피폭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핵의학을 지망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핵의학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기에 업무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들이 많다. 이러한 매력이 있기에 앞으로 우리 학교 후배들도 핵의학과에 관심을 가지고 같은 핵의학과 방사선사로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나의 경우에도 서류에서 불합격한 경우도 많고, 서류에서 합격해도 면접에서 불합격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후배들도 앞으로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불합격이라는 글씨를 많이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낙담은 잠시 접어 두고 실패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다면 점점 더 단단해지는 자신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기소개서도 계속해서 보완하고 면접에도 익숙해지면서 점점 더 성장한다면, 면접장에 가서도 면접관들에게 신뢰와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후배들의 마음을 알기에 후배들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더 큰 보상을 위해 지금은 조금 힘든 시기를 겪는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취업의 문턱을 넘어 업무에서 후배들을 만날 날을 기약하며 이만 글을 마친다.

의과학
병원경영
학과

끝까지 도전한다면, 누구든 할 수 있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홍OO

이 글을 읽기에 앞서

2023년 2월, 졸업이라는 학교생활의 끝과 함께 취업이라는 관문에 부딪혀 보기 시작했다. 취업 준비 초기, 잘 준비했다고 생각해도 계속되는 불합격 소식은 나에게 큰 좌절감을 안겼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자문하고, 공부해 보면서 불합격의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7월 이후로 작성한 서류 합격률이 90%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마침내 10월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라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나의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약 6개월의 취업 준비 기간, 5번의 서류 탈락과 10회의 면접 탈락이라는 결과를 받아 보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받아 온 수많은 불합격 속에서 느낀 점들, 그리고 최종 합격이라는 기쁨과 함께 깨달은 점들을 공유해 보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취업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답이란 없다. 이 글 또한 수많은 합격 사례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렇기에 단순 참고용으로만 읽어 보시길 권장한다.

취업 전, 학교생활 중 준비해야 할 4가지

취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서류, 면접 평가를 거치게 된다. 해당 평가에서 선발되기 위해 본인의 강점을 최대한 어필해야 한다. 이러한 강점은 흔히 말하는 스펙과 경험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데, 취업 준비를 하기 전 우리는 학생이란 신분으로 이러한 스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점, 자격증, 토익 점수, 경험 사항을 준비하기를 권장한다.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다. 학점은 학교에서만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왜 다른 3

가지 항목은 졸업 이후에도 만들 수 있는 것들인데 준비해야 하는가? 그렇다. 졸업 이후에도 부족하면 추가로 준비해도 좋다. 하지만 건양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졸업생들보다도 더 쉽게 이들을 얻을 수 있고, 4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기에 4가지를 선정하게 되었다. 필자는 각각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들을 준비하였다.

학점: 본인의 학습 스타일을 찾아서 공부해라

학점은 얼마나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보냈는지, 해당 전공지식을 얼마나 많이 지니고 있으며, 관련 직무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4년 동안 학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학습 스타일을 찾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단순 암기형, 노트 정리형 등 본인이 학습하면서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아라. 이를 초기에 파악하고 그에 맞춰 공부한다면 점점 높아지는 성적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경우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면서 암기와 이해를 하는 스타일로, 스터디 그룹을 형성하여 정보 공유를 통한 학점 관리를 진행했고, 3점대 중반의 성적에서 4점대까지 올릴 수 있었다.

자격증: 방학과 교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

다양한 자격증은 직무의 전문성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지표로 다다익선이다. 병원경영학과 경우, 후후 진로 중 하나인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있어야 하기에 자격증 및 면허 관리는 중요하다. 필자의 경우 학교생활 동안 8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교내 프로그램과 일정을 활용한 두 가지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했다.

• 교내에서 운영하는 자격증 프로그램 참여

학과에서 운영한 보험심사평가사, CS Leader(관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 및 면허 취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실무자 및 합격한 선배님들의 특강, 공부 방법 및 팁 등을 학습하면서 독학으로 학습하는 것보다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 학과 커리큘럼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 방학 때 도전!

병원경영학과 기준, 취득을 권장하는 자격증 대부분은 전공과목과 연관성이 있다. 예를 들어 1·2학년 때 배우는 통계 과목과 사회조사분석사, 3학년 때 배우는 회계과목과 전산회계 등, 이러한 연관성을 활용하여 보다 쉽게 자격증 시험에 접근했다. 통계 과목이 끝난 방학 때 사회조사분석사에 도전, 엑셀 과목을 수강한 학기 직후 방학 때 컴퓨터 자격증 취득과 같이 말이다. 학기 중 공부했던 전공과목의 기억이 생생할 때, 그와 관련된 자격증을 방학 때 도전하여 보다 수월하게 접근하고 취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목과 자격증의 연관에 대해서는 학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익 점수: 학교 프로그램 강력 추천

토익은 이제 보편적인 취업 요구 사항 중 하나이다. 학기 중 많은 양의 단어와 문법을 학습하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이 또한 방학을 활용하였고, 학교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방학 때 운영하는 ‘토익팩팍’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약 한 달 동안 9시부터 21시까지 강사님의 전문적인 수업, 매주 모의고사를 통한 실력 테스트, 팀 활동을 통한 지식 공유, 1 대 1 상담을 통한 개별 공부 방향성 제시 등 규칙적인 일정과 체계적인 방법으로 단기간에 효과적인 수업을 수강할 수 있었고, 500점대에서 790점으로 목표했던 점수를 단기간에 올릴 수 있었다.

경험: 최대한 다양하게 경험하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경험'이다. 다양한 종류의 경험을 해 보길 권한다. 이는 나중에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본인을 표현하고 어필하는 과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실습, 인턴과 같은 직무와 관련된 경험은 업무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후에 입사했을 경우 업무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 줄 수 있다. 필자의 경우, 면접에서 3학년 때 진행한 병원 실습으로 배운 병원조직에서 행정 업무의 역할 및 중요성 등 업무에 대한 이해와 실습이라는 유사한 경험을 통해 빠른 적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어필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학과 동아리 및 임원 활동, 봉사 활동, 조별 과제 등 직무와 연관성이 크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많이 해 보길 권한다.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서 집단 구성원과 발생하는 각종 갈등 및 문제들에 직면하면서 어떻게 해결하고 대처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종종 나오곤 한다. 이에 학교생활 중 경험했던 본인의 사례를 곁들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면 좋은 반응을 얻어 낼 수 있다.

필자의 경우, 면접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질문에서, 학교생활 중 과 대표 업무를 수행하며 경험했던 민원인들과의 소통 방법, 응대 방법 등에 대해 어필했는데, 이 또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위의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면, 꼭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했고 결과는 어떠했는지 기록해 두고 리스트로 보관하길 권한다. 후에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작성할 때,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어느 부분을 강조하면 좋을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졸업 이후, 취업 준비의 시작

졸업 이후, 본격적으로 서류와 면접을 준비하게 되는데, 필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준비하게 되었다.

• 어필할 수 있는 강점 사례 선정하기

서류와 면접에서는 스펙과 경험 사례를 통한 강점을 제시함으로써, 본인이 뽑혀야 할 이유를 어필하게 된다. 이러한 강점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 동안 경험하고 만들어 낸 스펙 중에서 지원하는 분야와 유사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지, 전문성을 얼마나 지니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본인만의 강점을 만들어 보길 권한다.

• 서류와 면접 완성도 높이기

선정된 강점들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와 면접 대답을 작성하게 된다. 필자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먼저, 전문기관 컨설팅으로 작성 요령을 익혔다. 자기소개서 작성 초기에 가장 큰 걱정은 ‘본인의 강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아 볼 것을 권한다. 특히 건양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에서 졸업 이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필자 같은 경우, 모르는 항목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전화로 상담을 받으면서 업무상 강점을 선정하고 이를 표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졸업 이후에도 학교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그리고 매일매일 작성해 보고 수정하는 방법이다. 작성하는 법을 배우고, 매일매일 글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아무리 좋은 컨설팅이 있더라도 좋은 글은 단번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더욱 좋은 글을 위해 매일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수정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취창업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에 상담받아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도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도전한다면, 누구든 할 수 있다

면접 질문 중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에 ‘취업을 준비하는 지금’이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취업 준비 기간은 두려움과 고통의 존재이다. 필자도 5월 초 계속되는 불합격으로 인해 좌절감이 크게 오고, 힘들다는 핑계로 한 달 동안 쉬었던 적이 있다.

당시, 보이지 않는 끝에서 오는 고통은 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힘들게 했다. 하지만 끝을 보겠다는 다짐으로 다시 3개월 동안 노력한 결과, 보이지 않던 끝을 볼 수 있었다. 아무리 많은 실패가 있더라도 이를 핑계로 도전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길 바란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누구에게나 끝은 보이고, 취업과 사회라는 새로운 길이 맞이하고 있을 것이다.

긴 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후배들은 저보다 더 성공적으로 취업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의과학
안경광학과

후회가 남지 않게

건양의료재단 김안과병원 안OO

후회가 남지 않도록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취업을 위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첫인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력서입니다. 이력서를 보는 이유는 지원자에 대해 아는 정보가 없으니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학 회사, 제약회사, 렌즈회사, 안경원, 대학원, 안과 등에 따라 중요하게 보는 스펙 · 조건들이 다르겠지만, 학생 때부터 목표하던 건양의료재단 김안과병원에 어떻게 합격할 수 있었는지 제 경험과 나만의 자기관리 방법 등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취업스토리북에 제 이야기를 써내기에 한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후배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써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 이 시간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후회가 남지 않게만 하자.” 내가 학교에 다니면서 항상 이 가치관을 상기시키고 생활했던 것 같다.

엄밀히 말하면 군 제대 이후 복학하면서가 좀 더 정확한 시점일 것 같은데, 이러 한 나의 가치관이 생기게 된 배경은 육군훈련소를 마치고 자대로 배치되었을 때였다. 당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는데 학교, 학과, 그리고 그 옆에 학점을 적는 난이 있었다. 그런데 학점을 적기가 너무 싫었고 창피했다. 자대 배치 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낮은 내 학점이 저의 불성실함과 나태함을 나타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물론 그걸 보고 내가 생각한 것처럼 “이 사람 불성실하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느끼기에 그 순간이 너무 창피했고 다시는 이러한 창피함을 느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 매사 최선을 다해서 결과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주어진 상황에 항상 열심히 임해야겠다.’는 가치관이 생겼고 다짐했다.

우선 가장 큰 후회였던 학점을 올리고 싶었다. 학점을 올리기 위해서 복학 후에 재수강이 가능한 과목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수강하였고, 최대한 많이 재수강하고 싶어서 학기 시간표가 나오기 전에 미리 해당 강의 교수님들, 조교님들에게 말씀드려 최대한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시간표 조정까지 부탁드렸다. 그리고 재이수 가능한 강의들은 모두 수강했다.

또 강의 시간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집중을 다하며 들었고, 그 결과 복학 이후 듣게 되는 모든 과목에서 A, A+을 놓쳐 본 적이 없다. 물론 1·2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온 친구들과 비교하면 학점은 더 낮다. 하지만 스스로 콤플렉스를 극복했다는 그 경험, 본인이 세운 다짐을 계속 지켜 내기 위해 했던 노력의 결실들이 내게는 단순히 성적을 올렸다는 수치적인 사실보다 앞으로 스스로를 믿고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자신감의 원천이 되었다.

혼자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혼자서만 목표를 향해 달려 나갔다면 쉽게 지쳤을 것이고, 쉽게 포기했을 것이다. 또다시 회복하기까지 오래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스터디그룹이 특히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시기에 도움이 엄청 되었다고 생각한다. 서로 마음 맞는 학급 동기들끼리 스터디 그룹을 형성하여 공부를 하였는데, 아무래도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 서로 문치면서 의지가 되기도 하고, 서로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뭐 다양한 좋은 이유가 있겠지만, 스터디그룹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효율성

이다. 사람마다 잘하는 과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잘 못하는 과목을 친구가 잘하면 친구에게 바로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동급생이니 편하게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질문할 수 있었다. 반대로 친구가 잘 못하는 과목을 내가 잘하면 친구에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며, 설명하면서 나도 다시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인간관계를 소중히

스터디를 하는 동기들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선배, 교수님들과 맺게 되는 관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중 선배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잘 모르는 것, 동기들 선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궁금한 것들이 생기면 교수님 보다는 편하게 물어볼 수 있고, 내가 걸어가려는 길을 이미 걸어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겪게 될 고민거리들 또는 문제들을 이미 겪었을 확률이 높다. 또 선배들이 졸업하게 되면 실제 사회에서 겪게 되는 일, 경험을 바탕으로 된 조언을 얻을 수 있고, 실제 필드에서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들 · 능력들 · 스펙들에 대해 미리 알고 졸업 전에 미리 준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과 같은 경우는 학생마다 지도 교수님이 배정되는데, 이 관계를 잘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단연코 동기 · 선배들보다 많은 경험이 있고, 그런 만큼 조언을 구했을 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을 수 있다.

또 본인이 희망하는 곳, 직장이 있다면 그 분야 또는 직장엔 학교 선배들이 있는지 여쭙보는 것을 추천한다.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알고 계신 정보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만약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 선배가 일을 하고 있다면 교수님께서 그 선배를 소개시켜 줄 수도 있고, 비슷한 구직 자리가 생겼을 때 이런 곳에서 채용하니 지원해 보라고 권유를 해 줄 수도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완벽주의 성향을 버리고 일단 부딪혀 보자

모두가 항상 완벽히 준비된 상태에서 취업을 준비할 수는 없다. 나는 무언가를 준비할 때 ‘할 거면 정말 열심히 제대로 하자!’는 주의였는데, 되돌아보니 그게 오히려 독인 것 같다고 느꼈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고 목표를 세우면, 백 퍼센트 완벽하게 목표를 끝내고 싶다는 생각과 욕심에 ‘이건 나중에 다음에 제대로 준비해서 도전해 봐야겠다,’ ‘지금은 아니야. 더 완벽하게 하고 도전해 봐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결국엔 시도조차 안 하게 되는 일이 많았다.

완벽주의, 모든 다 완벽하게 하고 싶다는 욕심이 결국 나를 프레임 안에 가두고 아무런 도전도 하지 못하게 만든 셈이다. 물론 완벽하게 하면 좋다. 하지만 완벽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에,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든 시점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잘 해내려고 욕심을 낸다기보다는 우선은 몸으로 직접 부딪쳐 보기로 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졸업 전 4학년 2학기에 모의고사를 많이 볼 텐데,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고 풀다고 하더라도 틀리는 것들이 많으니까 모의고사 자체를 보고 싶지 않고 혼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시험 준비뿐만 아니라 모든 걸 완벽하게 잘 해내려고 하기보다는 우선은 일단 부딪혀 보고 뚜껑을 열어 보는 것이, 생각만 하고 뒤로 미루는 사람보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졸업 요건은 미리미리

과마다, 입학한 학년에 따라 졸업 요건이 다르지만, 우리 안경광학의 경우에는 국가시험을 치러야 하므로 4학년 2학기가 정신없이 지나간다. 과제, 수시고사, 중간고사, 그 사이사이에 국가고시를 위한 모의고사들 등등 할 것들이 엄청 많은데, 여

기에 졸업 요건까지 갖추려면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에 집중하기 어렵다. 그래서 졸업 요건은 못해도 4학년 1학기, 진짜 최대한으로 마지노선을 잡아도 여름방학 때까지는 대부분 갖추어 놓는 것을 추천한다.

실습처를 미리 생각해 보기

안경광학과와 의 경우 3학년 여름방학 때 한 번, 겨울방학 때 한 번 총 2번 실습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보통의 경우 안경원에서 1번 안과에서 1번 실습을 진행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거니까 집에서 가까운 곳, 대충 아무 곳이나 선택하기보다는 집에서 거리가 있더라도 본인에게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서 실습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실습생을 받지 않는다면 그곳과 비슷한 분위기를 가진 곳이라도 지원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학생의 신분으로 미리 업무 현장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희망하는 곳의 실제 현장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인과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도 실제로 보고 경험해 보고 나면, 본인 적성과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졸업하기 전에 진로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도 아주 좋은 기회이다. 또 취업을 희망하는 곳에서 실습하게 된다면 미리 직원분들과 친분을 쌓아 놓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나의 경우, 원래 김안과병원에서 실습하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하계 · 동계 둘 다 실습생 모집을 하지 않았다. 김안과에서 실습하고 싶었던 이유가 큰 규모, 다양한 경험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이었기 때문에 김안과처럼 큰 규모의 강남에 위치한 병원에서 실습을 해 보았고, 적성에 맞아서 진로를 결정하는 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서 실습하시길 바란다.

후배들에게 해 주고 싶은 한마디

과제다, 중간고사다, 기말고사다 머리 아프고 하기 싫은 일투성이겠지만, 지나고 되돌아보면 그러한 기억들조차도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 너무 스트레스받지 말고 즐기면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친구들과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가고, 예쁜 곳도 많이 가 보고, 사진도 많이 찍고, 멋진 추억이 담긴 대학 생활 잘 보내시고, 희망하는 곳에 모두 취업 잘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글인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과학 안경광학과

보는 눈을 넓히자

유니코스주식회사 김OO

남들과 같은 길을 가고 싶지 않았다

남들과 같은 길을 가고 싶지 않았다. 안경광학과를 졸업하면 열에 아홉은 안경원 또는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학과 특성상 정해진 취업처가 있어 발 빠른 취업 준비가 가능하지만, 특성화적인 직업성을 띠어 취업처의 분야가 적었다. 국한된 취업시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해 보는 것이 필요했다고 느꼈다.

이때 학과에서 진행하는 학생연구원 채용 공고를 접하게 되었고, 1년의 기간 동안 활동하면서 견문을 넓히며 최종적으로 지금의 회사에 합격할 수 있었다. 내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을 준비했던 과정들과 전략을 부족하지만 적어 보고자 한다.

전문가의 자문을 많이 얻자

학과에서 많은 학생들을 양성시키며 이끌어 주시는 전문가 학과에서 많은 학생들을 양성시키며 이끌어 주시는 전문가는 당연 교수님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닌,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찰을 한 후,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교수님을 찾아가 자문을 구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었고, 학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정보를 활용하여 취업에 성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교수님은 학생들이 궁금한 걸 물어보았을 때,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으신다. 학생들을 위해 발 빠르게 정보를 알려 주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이해할 때까지 알려 주신다. 모르는 것이 생긴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기를

적극 권장한다.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은 교수님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안경광학과는 의료 분야에 특성화를 띤 학과이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남들보다 빠르게 취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기본적으로 면허를 따기 위해 전공과목을 집중하여 수강한다면, 따로 시간을 쓸 필요 없이 무난하게 국가고시를 치를 수 있다. 학과에서는 국가고시 대비 수업을 개설해 주기도 하지만 심화 과정의 강좌도 개설해 준다. 강의를 수강하면서 이것까지 알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먼 훗날 취업을 준비하면서 안경원만 준비했던 나에게 새로운 분야를 알게 해 준 계기가 되었다.

학내 강의만 수강하는 것이 아닌 교내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하였다. 교내에서 진행되었던 연구원 모집에 선발되어 망막 재생에 관련된 연구를 1년여 간 진행했다. 다른 학우들은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갔지만, 나는 학교에 남아 대학원생 선생님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최종 논문 작성에 이바지하였다.

다른 학우들처럼 시키는 것만 하자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닌, 하나라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참여하자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짐으로써, 취업을 준비하면서 풍요로운 자기소개서 내용들을 기재할 수 있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노력 없는 스펙은 없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시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분명 나에게 많은 것들이 따라올 것이며, 좋은 결과들로 마주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도전 없는 성공은 없다!

취업을 위해 지금껏 많은 활동들과 자격증 취득을 해 왔으면서, 한 번도 취업을 준비해 본 적이 없다며 조바심을 내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고 나조차도 걱정이 매우 많았다. 등산을 할 때도 길이 높고 위험할수록 꼼꼼하게 계산하고 설계하여 가는 것처럼, 취업을 준비하는 것도 자소서도 꼼꼼하게 확인함과 동시에 내가 성장

할 수 있는 취업처를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도전을 통해 합격 · 불합격과 상관없이 많이 부딪혀 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소개서의 경우, 학교에서 진행하는 취창업지원센터에서 자문을 구했다. 교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내 자소서에서 어떤 것이 부족하며 나의 장점을 부각시켜 줄 수 있는 문구들을 피드백해 줌과 동시에 컨설팅을 통해 구실을 갖춘 자소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취창업지원센터의 자문을 구해 완성된 자소서를 바탕으로 여러 회사에 지원할 수 있었고, 많은 회사에서 연락을 받게 되어 면접을 볼 수 있었다. 나 혼자 고민하고 썼더라면 자소서의 내용이 편향된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하지만 컨설팅을 통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 작성하는 내용들도 훨씬 손쉽게 생각해 낼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자소서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직업을 얻기 위해선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 선배님들은 국가고시에 떨어지면 바보라고 무조건 붙는다고 얘기하였지만, 정작 내가 시험을 보게 되는 해에 학습하면서 어려운 것들투성이에 어떤 것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막막했다.

3년 동안 시기능이상, 물리, 오토메트리개론 등 전공을 공부했던 것들이 4학년 학기에 다시 나온다. 절대로 4학년 수업을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 이 시기가 가장 많이 학습하며 머리에 넣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수업을 들으며 내가 가장 부족한 과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과목에 학습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고시를 준비하며 도움이 되었던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학습하자

수업이 끝나면 동기들과 함께 바로 도서관에 가 학습 내용을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가 부족한 개념을 동기들이 설명해 주거나, 동기들이 궁금한 점을 내가 채워 주는 시간을 가지면서 최종적으로 개념을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혼자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해야 머리에 잘 들어온다.

• 오답 노트를 활용하자

국가고시 대비를 위해 학과에선 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실시했다. 처음 봤을 땐 불합격 점수를 받아 많이 낙심하였지만 내가 어떤 과목을 많이 틀리는지 확인하고 보강할 수 있었는데, 오답 노트는 필수적으로 작성하여 왜 틀렸는지 확인하고, 관련된 개념을 정리하여 머리에 담았다.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계속 틀리던 문제들도 어느샌가 다 맞추기 시작하고 최종적으로 국가고시를 보았을 때 합격할 수 있었다. 오답 노트는 고사장에 들어가면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잘해야 한다.

• 멘토 · 멘티 프로그램을 활용하자

시험을 준비하면서 나는 교수님의 요청으로 멘토로 활동했었다. 처음에는 시간을 뺏기는 것 같아 하기 꺼려졌었다. 하지만 멘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나도 명확하게 몰랐던 개념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 공부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멘토와 멘티 둘 다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내가 다 알 거라는 확신은 하지 말고 꼼꼼하게 공부하여 심화 문제가 나와도 꼼꼼하게 개념 공부했던 것을 토대로 풀어 나간다면 합격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 유튜브를 활용하자

갑자기 유튜브를 보라는 문구를 보고 당황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유튜브 채널 “복쌈TV”를 보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수업을 듣고 와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들을 유튜브를 보면서 개념을 다시 익히며 수업 때는 몰랐던 암기법이나 공식들을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고, 정보들도 많이 얻을 수 있었다. 제2의 교수님

이라 칭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닌 무료로 강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안경사를 준비한다면 위에서 소개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학습한다면 국가고시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

나는 절대 잘난 사람이 아니다. 단지 먼저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실패를 줄여 나가면서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싶어 이 글을 썼다. 공부법은 각자의 선호법이 있을뿐더러 받아들이는 속도도 제각각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포기하지 않고 쪽 하다 보면 합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해 줄 수 있다. 취업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하고 학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절이니, 후회 없이 놀아 보았으면 좋겠다. 좋은 인연도 많이 만나면서 유대를 쌓는다면 몇 년 뒤에도 웃으면서 회상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학창 시절 고민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잠 못 이루던 그런 날들이, 지금 내 위치에 와서 돌아봤을 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니 후회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보고 열심히 살다 보면 취업은 자연스럽게 마주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많은 경험을 해라.

경험은 취업을 위한 발판일뿐더러 먼 훗날 내 인생에서도 좋은 양분이 될 것이다. 혹여나 졸업 후 입사 지원을 하면서 불합격의 고배를 마셔도 절대 절망하지 마라. 늦을수록 돌아가면서 나의 약점을 보완하고 더 좋은 찾아서 지원하면 된다. 맘 졸이지 말고 굳건한 마음으로 이곳저곳 지원하면 된다.

기회는 타이밍이다. 타이밍에 맞춰 잡으려면 그만큼 노력도 필요하다.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여 남에게 보이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어 ‘나 그래도 해냈구나. 나는 한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에게 증명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어디에서나 아름다운 사람이다. 우리는 각기 다른 능력과 개성이 존재한다. 나를 알아 가는 시간을 통해 가치관을 확립시킬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젊은 청춘들이여, 그대들은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의과학
응급구조
학과

마음을 다잡고 준비하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조OO

글을 시작하면서

여러 국내의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하면서 응급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응급구조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부쩍 늘었다. 하지만 학생 수의 공급에 못 미치는 턱없이 작은 취업문에 나는 남들과는 차별화된 강점이 필요했고, 고학점 및 관련 자격증 보유, 동아리, 다양한 임상 관련 활동 참여로 완성도 높은 이력서를 통해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의 응급구조사가 될 수 있었다.

사실, 대학교에 입학할 당시만 해도 소방관의 꿈을 갖고 있던 나는 3학년 때 1년의 휴학을 겪은 뒤 임상실습을 하면서 대학병원 응급구조사를 꿈꾸게 되었다. 우선 취업 준비생 이전에 살아온 경험을 잠깐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대학병원 응급구조사가 되었는지 취업 준비 과정과 아쉬웠던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글을 읽고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나 같은 상황에 있는 학우들이 취업 방향을 단단히 잡길 바란다.

말 잘 듣는 아이

어렸을 때부터 그저 나는 어른들 말을 잘 듣는 평범한 학생일 뿐,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것은 없었다. 소방관인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였기에 고등학교 3년 내내 장래 희망은 늘 소방관이라고 적어 냈다.

응급구조학과에 입학해서도 변한 건 없었다. 교수님이 열심히 공부하래서 열심히 했고, 각종 행사와 봉사에 참여하라 해서 했다. 그렇게 1학년 1학기 4.5점으로 마무리하며 느꼈던 것은 보람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주체적인 자아로서 해

낸 것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공허함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변하기로 했다. 전문성과 능숙함을 갖춘 소방관이 되고자했다. 드디어 처음으로 남이 만들지 않은 오로지 나만의 목표가 생긴 것이었다. 대전 119 구급상황 관리 센터에서 업무보조원으로서 근무하기 시작했고, 재난 훈련에 모의환자로 참여했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보조를 하였다. 그렇게 스펙이란 걸 쌓아 가며 나 스스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했다. 아무 목표도 없던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4.5점이라는 작은 성취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치열하게 살았다. 그런 내가 지겨워지기 시작했다. 학점은 떨어지고 번아웃을 겪고는 휴학을 해 버렸다. 무엇이든 핑계가 필요했기에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번아웃 상태에서 뭘 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으니 불합격.

또한 실제 소방관분들이 해 주는 대부분의 조언은 4년 내내 배우는 만큼 현장에서 활용하지 못하니 액팅을 원한다면 병원에 가는 게 좋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과감하게 소방관을 포기하고 복학했고, 병원 실습을 하면서 내게 병원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여 대학병원 응급구조사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기본 갖추기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했다면 미리 취업 공고를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보통 몇 년간은 선발 기준과 업무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미리 본인의 목표를 설정해 두는 것도 좋다. 공고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세 가지는 업무 유형, 서류 합격 기준, 선발 유형이다.

첫째, 조직 내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도 꽤 중요하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실 액팅뿐만 아니라 코디네이터, 재난,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하므로 본인이 가고 싶은 병원을 이 단계에서 걸러내고 원하는 병원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자.

둘째, 서류 합격 기준은 보통 작은 병원은 없지만, 일부 대학병원은 일정 점수 이상의 토익 점수, 자격증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 12월에 국가고시가 끝난 직후부터 졸업예정자로서 이력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토익은 무조건 졸업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국가고시 직전까지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고생하는 학우들이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교양과목에도 있고 토익팍팍 등 학교에서 진행되는 강의만 들어도 충분히 점수를 올릴 수 있으니 저학년 때 미리 공부하도록 하자.

내가 병원 면접을 다닐 때 지원자 대부분이 BLS, ACLS, KALS provider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학과 내에서 4학년 때 위 3가지 자격증 과정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 취득하면 좋다.

마지막으로 선발 유형 중 블라인드 채용은 말 그대로 학점, 가족, 나이, 얼굴 등이 비공개로 오로지 자기소개서와 면접으로만 선발되는 전형인데 서울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서울의료원, 서울보라매병원 등이 블라인드 채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블라인드의 장점이자 단점은 학점인데, 낮은 학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고학점자에게는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이 하나 줄어드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대신, 필기시험 전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나는 4.42의 학점을 가지고도 블라인드 전형으로 선발되었다. 만약, 가고 싶은 병원을 못 정했다면 이것만 기억해라. 학점 4.0, 토익 700, BLS, ACLS, KALS provider. 이것이 대학병원에서 가장 기본으로 요구하는 기준이다.

서류 합격하기

기준을 충족시켰다면 이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임상과 관련 없는 작은 경험이라도 잘 연관 지어 쓰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위에서 말했듯이 원래 소방관을 꿈꿨기 때문에 병원 실습 외에는 임상 관련 활동들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근무 - 119 전화 수용 업무, 재난훈련 모의 환자 -

재난 DMAT 출동, CPR 교육 - 심정지 환자 처치 및 권역 내 CPR 교육과 같이 관련지어 작성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었다.

병원 내 응급구조사가 액팅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용 홈페이지나 선배들을 통해 주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과 연관 지어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쓸 게 없다면 병원의 비전과 연관되는 인성 경험이라도 작성하자. 자기소개서를 어느 정도 작성하였다면 첨삭을 받아야 하는데, 나는 교수님과 주변 지인, 교내 취창업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았다.

사실 나는 졸업하기 전까지도 취창업지원센터가 있는지 모르고 반복되는 서류 불합격에, 인터넷에서 돈 주고 사설 컨설팅을 받아야 하나 계속 고민 중이었다. 그러다 졸업생 대상 자기소개서 무료 컨설팅을 해 준다는 학교 홍보물을 발견하고 뒤늦게 취창업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컨설팅을 받았다. 재학생도 받을 수 있는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면 전화나 대면으로 첨삭이 진행되므로 나처럼 졸업하고 찾아가지 말고 재학할 때 받아 보길 바란다.

면접 합격하기

면접을 10번 넘게 보면서 깨달은 게 몇 가지 있다.

첫째, 준비한 답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만 외우자. 나도 처음엔 답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려 했는데 조사 하나만 틀려도 당황하고 유연하게 말을 이어 나가지 못했던 적이 많았다.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말하려는 생각보단 하고 싶은 말은 꼭 하자는 마인드로 키워드만 외워 가면 좀 더 자연스럽게 답변할 수 있다.

둘째, 모르는 얼굴을 보고 긴장이 된다면 해당 병원 교수님들 얼굴을 프린트해 앞에 두고 말하는 연습을 해 보자. 그렇게 연습하니 실제 면접장 가서 ‘어라, 그 얼굴이네?’ 하는 반가움이 생겨서 긴장이 풀렸던 것 같다. 실제로 마지막에 본 면접은 긴장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자연스레 웃으면서 면접을 보았다.

셋째, 취창업지원센터 면접 컨설팅을 활용하자. 나는 면접장에 가서 다른 면접자가 답변할 때 나도 모르게 계속 두리번거리고 다른 생각을 하는 태도를 보여 고민이었다. 면접 컨설팅을 받으면 기본자세와 예절 및 답변을 어떻게 해야 좋은지 방향성을 알려 주기 때문에 필수로 꼭 받자. 면접은 보면 볼수록 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 모의 면접을 많이 해 보고 주변의 피드백을 받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음 다잡기

사실 취업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나는 단과대 1등으로 학교를 졸업하며 준비된 인재라고 생각했지만, 6개월간 몇십 통의 서류를 제출하고 불합격 통보를 받으면서 심적으로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합격 소식에 더욱 위축되며 날마다 힘들어했다.

여러분도 나처럼 그럴 수 있다. 남들과 비교되는 자기 모습에 많이 힘들 것이고 주변의 바람에 휩쓸려 본인 목표를 놓쳐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진감래라 원래 쓴 것이 다하면 단것이 오니까, 그 목표를 잊지 않고 굳건하게 한 발짝씩 나아가면 좋겠다.

계속 글에서 미리 준비하라는 말만 반복해서 마음이 다급해졌을까 잠시 걱정은 된다만, 내 경험상 4년이란 꽤 길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우리 후배들도 대학 생활 4년 동안 할 수 있는 건 다 즐기면서 취업을 준비하길 바라며, 더욱 훌륭한 응급구조사로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의과학

임상병리
학과

무너진 하늘에 솟아날 구멍 뚫기

세브란스병원 김OO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본래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항상 희망이 있다는 뜻이지만, 사실 하늘이 무너졌다는 슬픈 전제가 깔린 말이다. 코로나19로 급하게 수많은 계약직 인력을 채용했던 병원들은 팬데믹이 끝나 감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고, 결국 어느 때 보다 치열한 취업시장이 형성되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작과 함께 취업 전선에 뛰어든 나는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짐을 느꼈었다. 이미 2년 이상의 경력과 높은 스펙들을 갖춘 지원자들이 나와 신입 자리를 두고 경쟁했고, 몇 날 며칠을 준비해 가도 제대로 된 질문 하나 받지 못하는 면접들도 슬하게 겪어 봤다.

총 37번의 지원서 제출과 15번의 면접을 준비하고 떨어지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왜 떨어졌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피드백조차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막막함과 좌절감은 결국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되고, 최선을 다해도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면 결국 원래 희망했던 목표에서 차츰 눈을 낮추게 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앞으로 취업을 준비할 후배분들에게 결코 스스로를 의심하지 말고 감히 최선을 다해 봤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조언을 해 주고 싶다. 정해진 기준과 점수로 정렬되고 그에 맞는 결과를 받았던 입시나 학교 성적과 달리,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것이 취업이다.

나 역시 현재는 목표했던 세브란스병원에 입사했지만, 그전까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조건의 병원들에 지원했음에도 서류부터 탈락한 때도 많았다. 서류부터 떨어지는 막막함에 비싼 돈을 주고 지원서 대필이나 자소서 첨삭을 받는 경우도 주

변에서 많이 봤지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소식은 들어 본 적이 없다. ‘나’를 소개하는 문서를 ‘남’에게 맡겼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도 든다. 너무나 상투적인 이야기겠지만, 결국 스스로의 가치를 믿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좋은 결과가 찾아오길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 대신에, 어쩌면 올해 초의 나처럼 막막하고 힘든 시간을 보낼 후배분들에게 이 글을 빌려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이력서를 채워 나가는 법’과 이를 위해 학생일 때부터 준비하면 좋을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말해 주고 싶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사실 생각보다 많은 후배분들에게는 ‘이력서’라는 문서의 작성 자체가 낯설 것이다. 그렇기에 중간에 흐름 끊기는 일 없이 이력서를 작성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을 나열하는 것으로 시작하겠다. 기본적인 신상 정보와 영문명(여권과 일치하도록), 한자명, 고등학교 · 대학교(가능하면 초 · 중학교도)의 입학 · 졸업일, 남자라면 군 관련 정보(입대 · 전역일, 군번, 보직, 신검 등급 등)를 사전에 알아보고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서류로는 증명사진,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면허증 사본,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이력서에 기재할 자격증들의 사본, 어학 시험 성적표 등을 미리 발급하고 스캔하여 컴퓨터에 PDF 파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학점과 어학 점수, 미리 준비하자

개인정보와 최종 학력의 입학 · 졸업일을 입력한 뒤에는 보통 학점(병원에 따라 학과 석차까지)을 기재한다. 슬프도록 당연하게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지만, 인사팀 직원분께 문의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절대평가를 실시한 학교가 많아 지원자들의 학점이 상향평준화되었고, 그에 따라 학점은 서류 심사에서 점점 비중이 적어지는 추세라고 한다.

그렇기에 보다 객관적일 수 있는 어학 점수, 그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토익 점수가 상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역시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지만, 낮은 점수라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 특히 토익과 관련해서는 학교에 교양 강의들도 수준에 따라 나뉘어 개설되어 있고, 방학 중의 특별 프로그램 역시 편성되어 있으니 취업 시기까지 성적이 유효할 3~4학년 때 미리 준비하여 높은 점수를 얻어 놓는다면 취업을 준비하면서 그만큼 든든한 스펙이 없을 것이다.

내가 아직 학생이었을 때, 주변에서 본인은 학점과 어학 점수가 낮으니 블라인드 채용으로 직원을 뽑는 병원을 노리겠다는 말을 종종 들었다. 하지만 블라인드 채용 역시 직무와 직접 연관된 몇 개 과목들의 학점, 자격증, 어학 점수 등은 기재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블라인드 채용이 정말 아무 조건도 보지 않고 면접 실력만으로 취업할 수 있는 수단일 것이란 헛된 희망은 버리고, 모든 과목의 학점을 챙길 여유가 없다면 미래에 희망하는 직무와 관련된 과목들, 그중에서도 이왕이면 2학점 과목보다는 3학점 과목에 집중해서 학점을 챙겨 놓는다면 이력서 및 자소서 작성 시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빈칸은 만들지 말자

나를 포함하여 평범하고 수동적인 대학 생활을 보낸 대부분 취준생은 면허증 이외의 별도 자격증, 경력, 직무 관련 교육은 빈칸으로 남겨 두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나 역시 맨 처음 지원서를 작성할 때는 졸업 요건이었던 컴퓨터 활용 2급 자격증과 학기 중 동기 따라 취득한 심폐소생술 자격증 이외에는 모두 빈칸으로 남겨 둔 채 제출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서류 심사부터 떨어짐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 후로 경력란에는 2018년 방학 중 두 달 동안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인턴 경험했던 것을 적었고, 직무 관련 교육론에는 학과에서 실시했던 모의 진단 워크숍 수료 명세를 적었다. 당연히 사측에서 바라는 경력은 타 병원에서 근무 경력일 것이고, 학과에서 수료했던 프로그램 역시 불과 3~4시간의 짧은

교육이었지만 근무 명세서, 수료증과 같이 서류로 입증될 수만 있다면 이력서에 적는 것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력서에 있던 빈칸을 채워 감에 따라 서서히 서류 전형에 합격하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 글을 읽고 있는 후배분도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향후 직무와 억지로라도 연관시킬 수 있는 일을 선택한다든지, 수료 내역이 별도의 증서로 발급되어 증명할 수 있는 학교 내 여러 프로그램에 미리 참여하는 등의 노력으로 미래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는 별도의 졸업 요건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컴퓨터 활용 능력과 같이 어떠한 직무에도 연관될 수 있는 범용성 높은 자격증은 방학과 같은 시간을 통해 미리 취득해 놓는다면 미래의 취업에도 유리하고 H4C 장학금 또한 받을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소개서는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작성하자

가슴 아픈 이야기부터 하자면 우리가 밤새 공들여 쓰는 몇천 자의 자기소개서는 서류 전형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면접에 들어오는 면접관들은 미리 읽어 보지 않는다. 보통 나에게 1분 자기소개를 시켜 놓고 그동안 읽어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기에 자기소개서의 문항마다 해당 문항을 통해 사측에서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내가 어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앞에 요약하여 던진 뒤 설명하는 두괄식 구성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지 말고 상대방이 알고 싶은 내용과 사측의 입장에서 호감을 줄, 채용해서 같이 일하고 싶어질 만한 내용을 적어야 한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를 소개하고 뽑내는 과정에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다. 남들보다 험난한 인생을 견디고 버텨 냈다면 당연히 자소서에서 핵심으로 담고 싶을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내가 견디고 이겨 냈다고 기술한 가정 상황, 신체·정신적인 아픔들, 기타 악조건들에 대해 기업은 ‘이겨 냈다’가 아닌 ‘있었다’에 중점

을 둔다.

해당 조건들이 채용 후 향후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기재하지 않은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너무 담백하게 써서도 안 된다. 간혹 스스로에 대해 칭찬하고 과장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이러한 태도를 자기소개서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용자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당신을 관찰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본인이 써내고 어필하지 않는다면 사측에서 본인을 뽑아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에 지원할 후배분들에게 ‘병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기업 중 하나라는 말을 해 주고 싶다. 나 역시 취업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나 면접 대답에 대한 팁들을 많이 찾아보았다. 주로 ‘본인의 성장 가능성’, ‘회사와 함께 성장할 인재’임을 어필하라는 등, 때로는 비상하고 당돌한 대답으로 남들과 차별점을 두라는 조언도 종종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수적인 성격의 기업인 병원에는 전혀 맞지 않는 전략이라고 생각된다. 더군다나 과열된 취업시장의 치열함 속에서 사측은 바로 주어진 직무를 잘 해낼 수 있는 인력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 회사에 입사한다면 제가 앞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라는 사람을 사측에서 굳이 뽑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두 가지를 뽑는다면, “취업은 실력이 아니라 운이다.”, “면접은 까 보기 전까지 모른다.”일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입시나 학교 성적과 달리 취업은 정말 아무도 그 결과를 알 수 없기에 나오는 말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본인이 지원자 중 가장 스펙이 좋고 면접까지 가장 잘 봤어도 이미 정해진 내정자가 있어 떨어질 수 있고, 면접 때 내 옆의 지원자가 나보다 대답을 훨씬 잘하는 것 같아 마음속으로 포기했는데 붙을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운에 맡긴 채 취업 준비를 대충 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37번의 지원서를 작성하며 같은 병원이라 자소서 항목이 완벽히 중복될 때도 있었고, 타 병원이라도 비슷한 항목이 겹치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 넣는 것은 최대한 지양했고, 한 번 더 읽어 보고 어떻게든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하려 노력했다.

서류에 붙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필사적으로 면접을 준비했다. 평소 말하는 속도나 톤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을 보며 발성 연습부터 다시 했고, 50개의 예상 질문을 만들고 기계적으로 답변할 수 있을 때까지 암기했으며, 면접 중의 다양한 꼬리 질문들 역시 경우의 수를 모두 헤아려 준비했던 답변으로 자연스럽게 끌고 올 수 있는 연결 고리들을 준비했다. 필사적으로 준비할수록 떨어졌을 때의 허탈함과 좌절감 역시 컸다. 하지만 ‘나의 가치’ 하나만 믿었던 무모한 고집과 악착같은 노력 덕분에 결국 현재 원하던 곳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지나간 학교생활을 떠올리면 참 좋은 추억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취업만을 위한 학교생활을 하라고 하고 싶진 않다. 수많은 사람과 부딪혀 보고, 술도 마시고, 여행도 떠나 보는 다양한 경험들은 단순히 추억을 넘어 취업 이후의 ‘관계 맺음’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 하지만 취업을 준비하면서 만큼은 미리 준비해 두지 못했던 것을, 더 다양한 스펙을 쌓지 못하고 졸업해 버린 것을 후회한 순간이 많았다.

그러니 부디 후배분들은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하고, 현재를 위한 유희도 즐기며 후회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한다. 돌아보면 결국 취업은 하나의 관문에 지나지 않았고 본격적인 시작이었을 뿐이지만,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것 역시 슬픈 사실이다. 하지만 무너진 하늘에 너무 좌절하지 말고 다들 그 속에서 솟아날 구멍 하나 뚫을 수 있는 나만의 송곳을 준비해 두었으면 한다.

의과학

임상병리 학과

후배들을 위한 진짜 이야기, 병원 취준 실전 노하우!

전남대학교병원병리과 이OO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자

2022년 12월 국가고시 이후 취업을 준비하는 6개월 동안 총 18군데의 병원에 지원하였고, 2023년 6월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병리과 정규직에 최종 합격하였다. 현재 취업난이라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많을 우리 후배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경력 없이 국립대 병원 정규직 자리에 합격한 나만의 비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나는 두 번의 편입을 거쳐 건양대학교 임상병리학과로 들어왔다.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끊임없이 고민했고, 꾸준한 도전을 통해 나만의 성공을 이루어 냈다. 때로는 재고 따지지 말고 도전하는 마음가짐도 필요하다. 취업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며, 수많은 도전이 쌓여서 결국 나 자신만의 성공과 성취를 이루어 내는 순간이 올 것이다.

편입 후에는 조직 병리 동아리 활동, 보건복지부 금연 서포터즈 활동, 모의 진단 워크숍, KPP, 각종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 했고, 이러한 경험들은 단단한 밑거름이 되어 최종적으로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병리과에 합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취업 준비 요령, 마음가짐 등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나만의 경험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병원 취업 준비, 학점 관리가 최우선

병원 취업에 있어서 학점 관리가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목표로 하는 곳이 BIG 5

병원, 상급종합병원이라면 더욱이 학점과 등수가 중요하다. 1학년 때부터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학점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4학년이 끝나 가는 시점이라면, 블라인드로 채용하는 병원을 잘 찾아보자. 국립대 병원, 혈액원 등이 그 예이다. 다만, 자신이 성적이 낮다고 해서 눈을 낮추지는 말자. 취업은 노력뿐 아니라 운도 작용한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자.

학교생활, 동아리 활동 추천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나는 조직검사학 수업을 들으며 병리과에 대한 막연한 목표가 생겼고, 이 목표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조직병리 동아리인 ‘SENTINEL’에 들어갔다. 동아리원들과 소통하며 학술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병리과 업무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대략 알게 되었다. 실제 병리과에서 근무해 보니 동아리에서 했던 활동들은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말이다. 하지만 손재주를 활용해서 하는 업무들이 많은 병리과에서는 커팅(cutting) 경험 한 번조차도 매우 소중하다.

토익 준비는 미리미리

토익은 이제 병원 취업에 있어서 필수로 자리 잡았다. 토익스피킹이나 아이엘츠 등 토익 외의 공인 영어시험을 제출해도 되는 병원도 있지만, 아직은 대부분 토익 점수를 요구한다. 만일 토익이나 영어 공부에 소질이 없다면, 2~3학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적정 점수를 만들어 두자. 최소 700~750점은 만들어 두는 것을 추천한다. 나는 편입 전에 830이라는 점수를 만들어 두었고, 국가고시가 끝난 후 한 달간 공부하여 870점이라는 점수로 취업에 성공하였다. 토익 점수가 만료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학기 중에 한 번쯤은 토익에 손을 대어 보자.

자기소개서는 학교 프로그램을 활용하자!

나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 건양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 상담을 자주 이용했다. 담당 선생님께서 객관적으로 나의 글을 봐주시고 수정해 주는 과정을 거치니 자기소개서의 틀을 잡을 수 있었다. 자소서의를 틀을 잡은 이후에는 유튜브에 자기소개서 관련 영상을 자주 보며 내 자소서에 적용해 보았다. 취업 준비를 할 때는 혼자서 끙끙대기보다는 다양한 학교 내 지원 프로그램, 유튜브 영상, 선배나 동기들을 잘 활용해 보자! 친한 동기들끼리 자소서를 공유해서 서로 첨삭도 해 보고, 이미 취업한 선배들에게 첨삭을 조심스레 부탁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면접, 준비한 대로 티가 난다

면접 준비를 할 때만큼은 자기 자신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한다. 학생 때 했던 활동들의 기간, 내용, 그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꼭 생각해 봤으면 한다. 경험을 많이 쌓아 뒤도 그것을 면접에서 활용하지 못하면 결국 쓸모없는 경험이 되는 것이다. 나는 면접 예상 질문을 잘 만드는 것부터가 면접 준비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했던 활동들에 대한 파악이 다 끝났다면 면접 예상 질문을 구체적으로 만들자. 예로, ‘자기소개를 해 보세요.’라는 하나의 질문만 만들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포함해서 30초 이내로 자기소개를 해 보세요.’ ‘1분 자기소개 해 보세요.’, ‘지원 동기를 포함한 자기소개를 해 보세요.’ 다양한 질문을 만드는 것이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꼬리 질문 만들기이다. 면접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들었다면 그 답변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보자. 이 또한 자소서 쓸 때와 마찬가지로 친한 동기들이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해서 꼬리 질문을 부탁해 보는 것도 좋겠다.

면접은 준비한 대로 티가 나기 마련이다. 많이 준비하면 할수록 덜 떨리고, 자신감이 붙는다. 물론 준비 없이 면접에 강한 친구들이 있지만 특이 케이스이다. 요행을 바라지 말고 열심히 준비하자!

필기시험 준비

국립대 병원, 보훈병원 등 필기시험을 보는 병원이 종종 있다. 국가고시를 준비하듯이 하면 되고, 국시 정리본이나 교재를 참고하면 된다. 교재는 필요할 때가 있으니 버리지 말고 꼭 갖고 있자. 필기시험을 보는 병원 중 시험과목을 알려 주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다. 그럴 때는 우선 내가 갈 파트에 관한 공부를 먼저 한 후, 다른 파트를 공부하자. 나는 공고문에 시험 과목이 나와 있어서 병리 파트만 공부했지만, 다른 병원의 경우에는 병리과라도 진검이나 법규 등의 과목도 출제되기도 한다. 우선은 공고문을 잘 살펴본 후 필기시험을 대비하기를 바란다.

AI 역량 검사 준비

코로나 시기에 생겨난 AI 역량 검사는 준비하기가 꽤 까다롭다. AI 역량 검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면접자가 온라인으로 영상면접, 전략게임, 성향 파악 체크 등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 과정은 영상 녹화되어 병원 측에 전달된다.

결과는 AI가 판단하며, 면접자는 그 결과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역량 검사를 받기 전에는 꼭 연습해 봐야 한다. 연습할 수 있는 사이트로는 건양대학교 취창업 지원센터 홈페이지 ‘잡다’라는 사이트가 있다. 구역 검, 신역 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유튜브에 자세한 설명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해 보자.

면접을 보는 장소 또한 중요한데, 서울 경기권에는 ‘인터뷰 박스’라는 AI 면접용 대여 공간이 있다고 한다. 집에서 봐도 괜찮지만, 여러 변수를 생각하면 공간 대여를 추천한다. 일반 스터디카페의 스터디룸은 주변이 시끄러운 곳도 많고, 불쑥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서 추천하지 않는다. 실제로, 나의 경우 스터디룸에서 AI 면접 중에 방 번호를 착각해서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

전남대병원 정규직은 어떻게 준비할까?

전남대병원에 합격하면 본원(광주) 또는 분원(화순)으로 발령 날 수 있다. 공고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다. 지원하기 전에 이 점을 인지하고 지원하자. 우리 병원은 필기시험과 토의 성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중점적으로 준비하되 면접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국립대 병원 취업 준비 시에는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무기술서를 파악한 후 자기소개서, 면접을 준비하는 게 좋다. 국가 연계 기관은 합격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를 참고할 것을 추천한다.

면접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고 암기할 때는 꼭 말해야 할 단어 위주로 암기하는 것을 추천한다. 조사나 어미까지 암기하면 긴장되는 면접 상황에서는 기억이 안 나서 당황할 수 있다. 사실 면접은 많이 부딪혀 보고, 여러 질문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서류 합격 후 면접 기회가 온다면 준비가 덜되었다고 주저하지 말고 꼭 경험해 보기를 바란다.

쓸모없는 것은 절대 없다! ‘굳이’라는 생각을 버리자

‘이 활동은 취업에 굳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취업 준비에 독이 된다. 나는 국가고시 준비로 바쁜 4학년 2학기 때, 학과에서 진행되는 모의 면접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모의 면접 경험은 병원 면접을 볼 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모의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작성해 두었던 면접 예상 질문과 답변은 AI 역량 검사와 면접 때 활용했고, 모의 면접 때 긴장했던 순간들이 있었기에 실제 면접장에서서는 긴장감이 덜했다.

비단 모의 면접뿐만 아니라 후배들이 지금 하는 모든 경험이 당장은 필요 없어 보여도 다음에 분명 도움이 된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항상 긍정 에너지를 머릿속에 채워 넣길 바란다.

후회 없이 노력하되 나 자신을 갉아먹지 말자!

자신에게 맞는 병원이 있으니 조급해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이 말에 절반만 동의한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한다. 그러니 후회 없이, 치열하게 노력하자. 다만, 취미 생활을 즐기며 취업 준비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나는 취미 생활 하나 없이 취업 준비 생활을 버텼지만, 우리 임상병리학과 후배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한다. 안 그래도 힘든 취업 준비, 숨구멍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써 보았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취업 준비겠지만 이 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파이팅!

의과학

작업치료 학과

취업에 도전하며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공공어린이재활병원 장OO

글을 시작하며

나는 현재 대전 세종 · 충남 넥슨 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며 느낀 것과 경험한 것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부디 이 글이 취업을 목표로 도전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후배들에게 응원이 되길 바란다.

명확한 방향성

취업을 준비하며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자기소개서 작성, 취업 공고 확인, 이력서 작성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목표 설정, 즉 어디에 취업할 것인지에 관해 결정하는 것이다.

작업치료사의 진로 방향은 많다고들 많이 들었을 것이다. 가장 크게 성인과 소아로 나눌 수 있고, 병원 또는 센터, 공공기관 등 기술하지 않은 방향까지 포함하여 실제로도 많은 진로 방향이 있다. 많은 진로 방향 중 나의 적성과 맞는 분야를 일찍이 명확히 한다면, 취업을 준비하면서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갔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또 그 시기가 빠를수록 취업을 위해 준비할 시간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나는 3학년에 이르러서야 진로를 명확히 할 수 있었고, 늦었다고 생각하여 즉시 취업을 위한 경험을 쌓았다.

가장 먼저 한 것은 학회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듣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학회 교육은 작업치료사 면허를 가진 치료사들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학생과 치료사 과정이 나누어져 있어, 여러 학회를 찾아 보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꽤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 중에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교육을 골라 수강하여 수료증을 받아 둔다면, 학교 성적과 어학 성적을 주로 보는 신규 졸업자 채용에선 단연 눈에 띄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런 교육을 학생 때부터 미리 수강한다면 진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소아 관련 교육을 수강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내용 이해가 어렵고 재미가 없음을 느낀다면 성인 교육을 들어 보면 된다. 성인 교육에서 흥미를 느꼈다면, 성인으로 진로를 재설정하면 되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 미래 업무를 체험하고 상상해 보는 경험이 될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 누군가는 새로운 방향으로 도전할 근거를 찾을 것이고, 누군가는 방향성을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할 근거를 얻을 것이다.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

방향을 정하고 대략적인 취업처를 설정했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적합한 인재를 되는 것이다. 원하는 취업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직군의 채용 공고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 작업치료사를 모집했던 공고를 찾아 자격 요건이 무엇이고, 가산 항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면 된다.

신규 졸업자를 채용하는 공고는 대부분 많은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 대부분 학교 성적과 어학 성적, 필수 면허와 기타 자격증을 보며 수상 내역을 적는 칸이 있을 것이다. 절대적이라고 할 순 없지만 내 경험을 토대로 말해 보자면,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들의 경우 기본 지원 자격에 토익 750점 이상을 요구하는 곳이 많았고, 학점의 경우 4.0 이상일 경우 서류 전형에서 합격 안전선이라고 느꼈다. 나의 경우

에선 토익 800 후반과 학점 4점 중반대의 스펙으로 서류 전형에서 떨어진 경험은 없었으며, 이 스펙으로 강동에 있는 경희대학교병원 인턴직에 최종 합격한 경험도 있기에, 나와 비슷한 스펙을 갖춘다면 면접 결과에 따라 더욱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학점을 1학년 때부터 관리해 왔다. 미래의 취업 경쟁에서 남들보다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함이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수도권 병원들은 최소 자격으로 학점과 어학 성적을 내건 곳이 많기에 취업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학점 관리는 필수이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 법이다.

또 나는 학점 외에 교내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였다. 전공 동아리 활동을 하였고, 학술제 참여, 실험 연구 등에 참여하여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한 마디라도 더 할 수 있는 활동들에 참여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교내에서 진행된 상담 활동이었다. 학과 후배와 1:1로 상담 활동을 참여했으며, 이 활동을 통해 작업치료사의 필수 자질인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우수 활동팀으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받는 등, 면접에서 나의 역량에 대한 근거를 남길 수 있었다.

스스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나는, 눈에 띄는 특별한 경험을 해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글을 읽는 이들 중에 나만큼, 혹은 나보다 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앞서 말한 학회 교육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학생 때부터 외부 학회 교육을 수강한 사람은 내 주변에선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당신이 된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 부족한 성과와 경험의 차이를 메울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나 또한 단 한 개의 아동 관련 교육을 수료한 것이 정규직 취업의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것 이외에 또 다른 차별성을 보여 주고자 하는 생각을 하는 후배가 있다면, 토익 스피킹 성적을 취득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다익선(多多益善)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 누구나 해야 할 일이 자기소개서 작성이다. 나는 첫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 책상에 앉았을 때 막막함을 느꼈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몰랐고, 어떤 활동을 통해 나를 소개하는 것이 유리한지 몰랐었다.

그래서 나는 1학년 때부터 졸업까지 내가 참여한 모든 활동을 일일이 정리하였고, 각각의 활동을 통해 얻은 것을 간단하게 옆에 적어 놓았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멘토링 활동에 참여 →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 우수 활동팀 선정 장학금’과 같은 식으로 정리하였다. 내가 참여한 모든 활동을 이렇게 나열하니 공통으로 묶을 수 있는 활동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였고, 각각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몇 개의 소스를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본인이 한 활동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에서 본인이 어떻게 참여했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를 내었는지 설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교내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였다.”보다는 “나는 교내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멘티의 학업 능력을 향상했고, 우수 활동팀 선정으로 장학금까지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고 작성하는 것이 더욱 좋은 내용이다. 또 이러한 문장을 자기소개서 앞부분에 위치시키는 두괄식 문장이 자기소개서에서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소개서 작성은 대부분 300~500자씩 서술하게 되어 있으며, 내 경험에선 4~5개의 주제로 작성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를 작성하기 위해선 많은 경험이 있을수록 더욱 유리하다. 경험이 많을수록 주제에 맞게 다양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혹 과 후배들을 만나면 어떤 활동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를 들을 때가 있다. 물론 특별하지 않아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작은 활동이 모여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고 면접관에게 ‘나’를 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도전하기를 바란다. 꼭 성공하고 1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많은 활동을 한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나를 돌보기

취업에 도전하다 보면 생각한 것보다 긴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그만큼의 노력이 들어간다. 나는 12월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한 번의 서류 전형과 한 번의 NCS 시험, 두 번의 면접을 거쳐 3월에 최종 합격이 발표되어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 시간 동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동기들의 취업 성공 소식은 나를 불안하고 조급하게 만들었으며, 여러 차례의 탈락은 나를 바닥으로 잡아당겼다.

취업을 준비하며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건 나뿐만이 아니었고, 어쩌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취업을 도전하는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긴 강한 마음가짐과 깨끗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특히 탈락이라는 결과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너무 많은 걱정과 불안은 스스로를 갉아먹을 뿐이었다.

열심히 취업을 준비할 땐 준비하고, 쉴 땐 확실히 자신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면접이나 시험을 치고 오면, 2일씩은 오늘만 살 것처럼 놓고 쉬고 즐겼다. 그 며칠은 취업이라는 걱정은 잠시 내려두고 온전히 내 인생을 즐겼는데, 이런 시간이 오히려 취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었고 나를 돌볼 수 있게 해 주었다.

직장을 다니는 지금 생각해 보았을 때 취업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돌아보니 ‘왜 그렇게 일희일비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첫 직장이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하지만, 나의 모든 삶을 좌지우지하진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 모두 너무 많은 걱정에서 사로잡히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 나가기를 바란다.

의과학
작업치료
학과

취업 길잡이

한양대학교병원 전OO

글을 시작하며

취업에 대한 막막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잃어 가는 후배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나는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나는, 장점이라고는 성실한 것뿐인 평범한 학생이었다. 뭐 하나 특출난 재능이 있던 것도 아니었기에 취업이 잘된다는 보전 계열에 원서를 넣었고, 그때 처음 ‘작업치료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알게 되었다.

‘작업치료학’을 배우는 4년의 시간 동안, 전공 공부를 하는 동시에 나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그 과정에서 흔들리고 많이 주저했지만, 그때마다 나를 잘 잡아 주신 지도교수님과 동기들, 그리고 좋은 학교 프로그램이 있어 잘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미래가 너무나 막막하게만 느껴질 때, 내가 공유하는 소소한 경험들이 길잡이가 되어 여러분들이 꿈꾸는 목적지에 도달했으면 좋겠다.

길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나는 처음부터 치매 센터에 취직해서 안정적인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을 꿈꿨다. 그래서 학과 내 치매 동아리를 2년 동안 이끌면서 관련 경험을 풍부하게 쌓았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많은 경험이 있다고 자부했고, 이 경험을 토대로 센터에 취직할 수 있겠다고 늘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교수님께서서는 다양한 경험을 해 봐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다. 처

음에는 내 목표를 두고 다른 파트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경험해 봐야 나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우연히 관련 교육을 듣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는 내가 소아 파트에서 일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내가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라는 것이다. 한 가지에만 몰두하지 말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생각하며 늘 대비해야 한다. 어떤 경험이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를 가져다줄지는 아무도 모른다. 본인이 내키지 않을 일이라도 도전해 보고, 실패도 해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자꾸 넓혀 가길 바란다.

학교를 잘 활용하기

취업을 생각하면 막막하고 내가 어떤 것을 잘하는지, 어떤 것과 잘 어울리는지 당연히 알기 어렵다. 그때마다 나는 지도교수님을 찾아가서 상담받았다. 교수님은 내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다.

작업치료는 워낙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다양해서 후배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 또한 4학년이 되어 국가고시를 준비할 때까지 '소아 파트'에서 일하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교수님은 상담 시간을 가질 때마다, 소아 파트에 대한 나의 가능성과 재능을 늘 강조해서 말씀하셨다. 그런 교수님 덕분에 대학 시절 동안 소아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이는 취업할 때 큰 무기가 되었다.

지도교수님과의 상담 이외에도 학교 내에는 취창업지원센터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상담 프로그램, 외국어, 자격증, 모의 면접, 자기소개서 등 생각보다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문제 중 대부분은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학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취업 공고를 잘 확인하기

나는 4학년 2학기가 되어서야 국가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국가고시’를 위한 공부와 문제 푸는 기술을 많이 익혀야 하는 시기이다. 물론 1·2·3학년 때 전공 공부를 소홀하게 하였다면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내 경우는 모의고사로 합격 적정선 점수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병원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 취업 공고를 찾아봤다. (물론 국가고시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많은 경우가 취업 공고를 협회에 올라오는 구인을 위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협회 이외에도 희망하는 기관 사이트에 직접 방문하거나, 취업 전용 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추천한다. 대학병원의 경우 병원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확인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경험들을 정리하기

국가고시를 끝내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할 것이다. 나는 시험을 치른 후 가채점에서 안정적으로 합격 점수를 받고, 최종 합격 문자를 받을 때까지는 취업 준비보다는 4년 동안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것을 통해 나는 무엇을 얻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꽤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여러분이 취업 공고를 뒤늦게 확인하면 하루 안에 자기소개서를 완료해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때 내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어떤 것을 얻었는지가 잘 정리되어 있으면 어떤 질문이라도 무난하게 답변을 작성할 수 있다.

이제 졸업을 눈앞에 두고 주변에서 동기들의 합격 소식도 들려오는데 나는 아직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초조하기 마련이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검토해 보고, 나만의 무기를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

천천히 생각하다 보면, 남들이 겪지 못한 경험을 해 봤던 것이 떠오를 것이다. 그

경험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말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자의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거라고 단언한다.

자신감을 잃지 않기

서류 합격을 하고 면접을 보러 다니다 보면, 어리바리한 내 모습을 보며 실망하게 된다. 학과 생활을 할 때는 우리 학교 내에 동기들, 선배들만 있기에 사회에 나가 경쟁하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막상 면접하러 가면 우리 학교가 아닌 사람들과 경쟁하여야 하고, 그것이 반복되면 더 자신감이 떨어지게 된다. 나 또한 그랬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내 모습을 보며 ‘취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나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어 본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우선, 서류 과정을 통과하고 면접까지 왔으면 이미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면접은 지원자가 기관의 이미지와 잘 맞는지, 인상과 태도는 어떤지를 점검하는 과정이다. 그러니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여러분을 보여 주기를 바란다. 떨어지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기관 이미지랑 나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훌훌 털어 버리고, 다음 면접을 준비해야 한다(물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찾고, 해결해야 한다).

현재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남이 나보다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거나 하지 않다. 즉, 다른 사람이 뽑힌 이유는 그 사람이 그 기관이 추구하는 가치에 조금 가까웠을 뿐이다.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나만의 무기와 가치를 만들어 낸다면 그것을 알아서 봐주고 기회를 주는 기관은 반드시 존재한다. 조금 걸음이 느리다고 너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당찬 걸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마무리

여기까지 내가 취업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나눌 수 있는 경험들이다. 생

각해 보면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지만, 막상 취업 준비라는 현실을 맞닥뜨리면 허둥지둥하고, 뭘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나를 믿고 한 계단씩 올라가기를 바란다. 성실하게 착실히 학교생활을 해왔다면 그 태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어느샌가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또 아직 취업을 준비하지 않는 저학년 후배들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너무 막연하고 어렵더라도 조금만 버텨 주기를 바란다. 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 여러분이 실습을 나가고 임상에 나오면, 내가 배운 학문이 얼마나 가치 있는 학문인지를 몸소 느끼고 깨닫게 될 것이다.

나도 겪어 보았기에 그 과정들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잘 알고 있다. 나도 취업을 준비하면서 나의 길을 끊임없이 의심했고, 또 다른 길을 알아봐야 하는지 고민했다. 여러분들도 이 아득한 과정 속에서 내가 한 고민을 그대로 경험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우리 후배들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항상 도움을 주시는 교수님들과 든든한 학교가 있으니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성실히 학교생활에 임하되, 즐거운 추억을 쌓는 것도 잊지 않길 바란다. 다시 오지 않을 그 순간들을 충분히 만끽하며, 여러분의 가치를 찾아가는 시간을 써 내려가, 사회에 나가 그 가치를 펼쳐 보이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의과학
치위생학과

결국엔 해피엔딩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김OO

글을 시작하면서

높은 성적이나 대단한 스펙이 아니라서 어디서부터 글을 적어야 할지 조금 막막한 감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대학 생활을 했고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로 집에서 보낸 2년이 아까울 정도로 대학 생활이 너무 즐거웠다! 물론 시험기간과 과제가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졸업하고 돌아보니 그렇다. 후배 여러분도 후회 없고 즐거운 대학 생활했으면 한다. 내 이야기가 후배들의 대학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4년을 돌아보며 후회되는 것들이나 도움이 됐던 내용들을 열심히 옮겨 본다.

하루, 단 하루만 기회가 온다면 죽을힘을 다해 빛나리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예술계 진학을 꿈꾸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여러 사정으로 전공하고 싶은 학과에 진학하지 못했고 취업이 잘되는 학과에 가야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치위생학과를 선택했다.

치위생학과 입학 후 학년을 거듭할수록 전공에 애정과 열정이 생겨 성적 욕심도 부러 보고 장학금도 받는 학생이 되었고, 졸업 후에는 대학병원 입사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4학년을 앞두고 1학년의 성적이 돌이킬 수 없는 흠으로 느껴져 후회했다. 남은 학기를 만점으로 마무리해도 만족스러운 졸업 학점이 아닐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1학년 때에는 관심이 없었던 분야로 진학한 탓인지, 스무 살의 들뜬 마음 때문인지 공부에 대한 노력이 아주 부족했던 것 같다. 1학년 때부터, 아니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임하자. 언제부터 성적 욕심이 생길지, 어느 기관을 목표로 하게 될지 모르니까 말이다.

전공을 재밌게 공부했던 나의 팁을 소개해도 좋다고 생각했다. 나의 공부 방법은 ‘인출’과 ‘반복’이다. 아가들이 그림 카드를 보고 “사과!”라고 외치듯 관련 내용을 떠올릴 수 있는 키워드, 그림, 짧은 빈칸 문제 등을 작은 종이에 적는다. 노트 정리를 하면서 적으면 빠짐없이 내용을 챙길 수 있다. 작게 접어서 마구 섞고 하나씩 뽑아 내용을 확인한다. 알고 있는 내용을 입 밖으로 꺼내 본다. 막힘없이 모든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분류해 모아 둔다. 말하지 못했던 카드들을 확인하며 관련 내용들을 다시 학습한다. 아는 내용들은 시험이 가까워질 때만 확인해도 충분하다.

이 방법은 방대한 양의 내용을 소화하기엔 아주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전체적으로 개념을 정리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위의 방법이라면 과목들을 단시간 내에 검토할 수 있었고 이는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됐다.

핵심은 어떤 방법이건 좋으니 배운 것을 머릿속에서 꺼내어 모르는 부분을 인지하고 채워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과목 한 과목마다 성실하게 임한다면 국가고시를 준비할 때 잊어버렸나 싶었던 과목들이 신기하게도 잘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기록의 구원

자소서가 어려운 이유는 4년을 한 번에 정리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난 구구절절 요즘 있었던 일을 적어 두었던 일기와 인스타그램이 날 구했다고 생각한다. 일기, 블로그, 낙서, 메모 등 뭐든 좋으니 어떤 걸 했고 무슨 생각과 느낌들이었는지 적어 두자.

팀플레이 과제 시 조원들과 충돌이 있었고 내가 나서서 이를 원활하게 해결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었다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느꼈다 하는 흐름도 자소서 어느 문항에든 적어 낼 수 있으니, 과제도 곧 스펙이라고 생각하면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자소서를 쓰려고 처음 앉으면 상당히 막막할 것이다. 처음부터 자세한 내용을 적기보다는 큰 그림부터 그려 보자. 나는 작성하기 전, 각 문항에 어필하고 싶은 역량 키워드를 먼저 정했다. 키워드를 정할 때는 지원하는 기업의 홈페이지나 최근 기사들을 살펴보고 원하는 인재상에 맞추었다. 그리고 적어 두었던 나의 역량과 경험을 이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

또 하나의 팁은, 자소서를 여러 날에 나누어 작성하면 흐름이 산으로 가기 쉽다. 하루, 이틀 정해 두고 자리에 앉아서 다듬어지지 않은 말이라도 하고 싶은 말을 쪽 옮겨 적은 뒤 수정을 반복하는 쪽이 더 효과적이었다. 잘 쓴 글을 합격시킨다는 생각도 버리려고 노력했다. 유려한 글보다는 자신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어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력서를 작성하는 데 학교가 많은 도움이 됐다. 병원 사무관리사, 보험 청구사, ITQ, 치과 감염 관리사 자격증과 구강 스캐너 특강을 비롯한 여러 봉사 활동 이력까지 수업에서 진행하는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고 특강들은 놓치지 않고 들었다. 학교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이력서는 어렵지 않게 채울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기 어렵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는 주로 먼저 취업한 지인들과 교내 취창업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았다. 내가 열 번 읽어도 눈에 보이지 않았던 오타나 부자연스러운 내용들, 설득력이 떨어지는 내용들을 상대방은 쪽쪽 골라낼 것이다. 피드백을 적극 수용하며 여러 번 다듬어 상대방이 읽기 편한 자소서를 만들어야 한다. 취창업지원센터는 자소서와 이력서 작성에 적절한 단어 선택이나 의미가 명료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내용을 다듬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아,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점수? 난 스토리!

난 영어를, 특히 영문법을 잘해 본 적이 없다. 대학에 다니면서도 느꼈다. 교양 필수로 듣는 영어 과목에서도 다들 A를 받을 때 난 항상 B로 마무리했다. 이게 나의 승리욕을 자극했다. ‘못 할 게 뭐가 있나?’ 하는 생각에 영어 공부를 마음잡고 시작했다.

가장 익숙하고 만만하다고 생각했던 토익을 공부하기로 했고 처음 아무 준비도 없이 본 시험에서는 400점이 조금 넘는 점수가 나왔다. 별로 충격적이진 않았다. 더 낮아질 점수는 없을 테니까. 딱 두 달 공부했다. 700점을 목표로 삼고 기본서를 사서 명사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했다. 결국엔 795점이란 점수를 달성할 수 있었다.

800점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 아쉬워 3번의 시험을 더 보았고, 3번 다 795점이었다. 끝까지 잡고 늘어지고 싶었으나 국가고시가 코앞이라 영어는 잠시 뒤로 미루었고 취업을 한 지금 다시 시작했다. 이젠 토익 점수에 매달리기보단 실용 영어에 능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자소서나 이력서에 적기 위해 시작했던 공부도 아니었고 대단히 높은 점수도 아니지만 내가 몰입하여 성과를 냈으며 슬럼프도 겪어 보았다는 나만의 이야기가 하나 생겼다. 이런 일련의 이야기는 취업을 준비하며 어느 서류에서건 무기처럼 사용됐다.

꼭 전공 관련된 것이 아니어도 좋으니 여러 분야에 도전해 보자. 특히, 노력을 통해 상향 곡선을 그려 내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대학 생활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겁고 찬란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봉사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많이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교내외 활동을 활발하게 했다면 아마 나만의 이야기를 훨씬 많이 가지고 졸업하지 않았을까?

이 글을 읽는 후배들은 기회가 된다면 마음 맞는 또래와 모여 동아리 활동도 해 보고 봉사 활동이나 또 다른 교외 활동들을 통해 여러 사람과 교류하는 경험을

풍부히 쌓았으면 좋겠다.

눈까지 웃기, 손은 가만히

면접은 복기와 연습이 중요하다.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부터 닫고 나올 때까지 인사와 표정 등 비언어적인 부분부터 질문에 대한 답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보완해야 한다. 나는 친구들과의 모의 면접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면접을 혼자 준비했을 땐 내용에 집중하여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모든 내용에 깔끔하게 잘 대답했다고 생각했으나 돌아오는 평가는 달랐다. 나도 모르게 인상을 쓰거나 손짓을 과하게 한다거나 웃고 있어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면접에선 웃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이후 내용과 더불어 마스크를 쓰고 거울 앞에 서서 웃으며 말하는 연습을 하거나 손을 가볍게 모으고 불필요한 움직임 줄이기 등 표정이나 태도들까지 준비해서 임하게 되었다. 제삼자의 피드백이 없었더라면 알지 못했을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실전 면접에서 느꼈던 점이 있다면, 준비한 말들과 달달 외웠던 말이 아무리 많아도 물어본 말에 “결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나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는 크게 당황하는 편이었고, 준비했던 말들과 연결하여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 하지만 어떻게든 관련지어 보려 하다 보니 대답이 지루해진다거나 요지를 잃는 경우가 많았다. 구구절절한 대답보다는 잠깐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A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하려고 노력했다.

구체적인 경험 예시가 듣고 싶다면 추가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만큼만 대답해도 충분했던 것 같다. 외위 온 정석적인 대답보다는 솔직하고 담백한 대답이 이목을 끌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상하지 않았던 질문이라도 자신감 있게 내 생각을 말하는 연습을 해 보자.

내가 여기 있어!

“공간을 느낀다는 것은 그 공간 속에 존재하는 나를 잊지 않는 일이다. ‘내가 여기 있어.’ 그것을 느끼는 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목정원,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

공부와 취업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전하러 사랑하는 책 구절을 적어 본다.

난 스트레스를 아주 잘, 자주 받는 성격이지만 대학 생활은 마음 구석에 동글동글 잘 다듬어진 즐거운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 노력했다. 노력한 시간이 쌓이다 보니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도 늘었고 스스로 많이 유순해졌다.

결국엔 해피엔딩이었다. 다들 대학 생활이 해피엔딩이었음 한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너른 숨을 쉬어 보자! 요즘은 ‘자존감’이라는 말보단 ‘자기 관용’이란 말이 유행이란단다. 최선을 다해 모든 과정에 임하되, 충분히 휴식하고 스스로 너그려웠으면 한다. 스스로를 잊지 않고 따뜻한 해와 충분한 물로 다독이며 가지를 내어 가길 바란다.

다들 사랑하세요. 사랑합니다!

의료공과
의료공간
디자인학과

일단 목표를 세워라

세종특별자치시청 김OO

졸업 후 세운 목표

졸업을 막 했을 때 나는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취준생 중 하나였다. 요즘에 필수로 다들 가지고 있다는 토익, 컴활 자격증마저 없는 상태였고, 우리 학과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취득하는 건축기사 역시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다. 동기들은 하나둘 취업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취업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게 후회되기도 하고 조급한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은 되돌릴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생각해 보고, 당장 해야 할 일을 찾기로 했다. 쪽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나는 어릴 적부터 타인을 도와주는 것에 보람을 느끼거나, 타인에게 나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을 좋아했다. 또 사회에 기여해 내 이름을 알리고 싶은 꿈도 가지고 있었다.

나의 이런 특성들을 고려했을 때 공무원이란 직업이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학교에서 4년 동안 배운 전공 지식들을 잘 활용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건축직 공무원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나 자신과의 세 가지 약속

목표를 정한 뒤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다. 내가 준비를 시작했을 때는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까지 약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었다. 남들에 비해 준비 기간이 짧았던 만큼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수험 기간 동안 나 자신과 꼭 지켜야 할 약속들을 정했다.

첫째는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 식사 시간을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곤 하였다. 규칙적인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고 공부하는 데에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고, 시간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일주일에 다섯 번은 산책하기였다. 장시간 공부하는 데에는 체력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나는 운동에 긴 시간을 쓰기에는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산책을 해서 머리로 식히고 가벼운 운동을 하기로 했다.

세 번째는 금주였다. 이전에도 술을 자주 마신 것은 아니었지만 혹시 생길 수 있는 약속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약속으로 정했다. 술을 마시면 음주 당일에 공부를 못 하는 것은 물론, 다음 날까지 통째로 날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루하루, 한 시간조차도 소중했던 나였기에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약속들 같을 수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정한 약속들이 수험 생활하는 데 있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하루 루틴을 만들었고, 시험 날까지 몸에 큰 무리 없이 건강을 잘 유지했다. 또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유혹을 떨쳐 낼 수 있는 의지도 생겼다.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나 계획을 잘 지킬 자신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작은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 먼저 지켜 가면서 천천히 틀을 잡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만의 공부법

공부하는 스타일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의 방법은 어땠는지 적어 보려 한다.

우선 스터디 플래너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내가 사용한 플래너는 먼슬리, 위클리, 데일리가 나누어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부의 흐름을 세우면서 하루 공부할 내용을 세세하게 정하기도 편리했다. 하루 공부를 마무리할 때에 항상 다음 날 공부할 양을 계획했고, 이 계획을 지키기 위해 부지런히 공부했다. 플래너를 활용

하니 과목마다 진도가 어떤지 확인하기에 편리했고, 그날 목표한 양을 끝냈을 때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오전에는 주로 언어 과목 공부를 했다. 오전에 긴 지문들을 읽으면서 뇌를 깨우고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 실제 시험이 오전에 치러지기 때문에 오전 시간대에 최대의 집중력을 발휘하도록 연습하고 싶었다.

또 매일 아침 영어 단어 외우기로 하루 공부를 시작했다. 영어 단어는 수험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외웠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단어도 많았고, 몇 번을 복습해도 외워지지 않는 단어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4회독을 넘어갈 때가 되니 그렇게 안 외워지던 단어들이 점점 외워지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성취감이 느껴졌다. 그렇게 공부에 흥미를 붙여 갔던 것 같다.

오후에는 요일마다 과목을 정해서 공부했다. 하루에 공부할 과목 수는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게 3과목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 너무 적은 과목만 공부하면 쉽게 질려 버리고, 너무 많은 과목을 하루에 다 하기에는 시간에 쫓겨 공부하느라 머릿속에 내용이 남지 않고, 여러 과목의 내용이 뒤엉켜 버리는 수가 있다.

하루 공부 시간은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았다. 3시간, 5시간, 8시간 이런 식으로 공부 습관을 잡아가며 차근차근 늘려갔다. 나중에는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익숙해져 12시간 이상 공부하기도 했다. 시험 직전 2개월은 하루 평균 공부 시간이 평균 12시간 이상이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을 공부했는지 놀랍다. 아마도 내가 공무원이 되기로 마음먹은 이상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정신이 건강해야 신체도 건강하다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적도 당연히 있었다. 나는 주로 집에서 공부를 했는데, 산책할 때 외에는 밖에 나가지를 않았다. 또 친구들과의 약속도 만들지 않았고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적어졌다. 사람들과 부딪히는 기회가 줄어드니 말수도 적어

지고 외로운 순간들이 많아졌다. 가족들과 마찰도 잦아졌는데 대화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 같다. 가끔은 너무 답답하고 우울해서 혼자 울기도 했다.

이 부분들은 수험 기간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다. 나를 너무 극한에 몰아넣어 정신 건강을 해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면, 자주는 아니어도 가족들과 시간을 가지고 친구들도 만나 가며 공부했으면 좋겠다.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고립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 가며 스트레스도 풀고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신이 건강해야 신체도 건강하다는 말처럼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면 의지도 약해지고 몸이 힘들어진다. 꼭 몸 건강 챙기듯이 정신 건강도 챙기면서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또 나는 여유가 없어서 그러지는 못했지만, 이 글을 읽는 수험생들이 있다면 일주일에 쉬는 날을 꼭 정해서 취미 생활이나 여가 생활을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면접이라는 관문 넘기

이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더니 필기시험에서 꽤 높은 점수를 취득해서 합격하게 되었다. 당시에 정말 날아갈 정도로 기뻐했는데 기쁨도 잠시, 면접이라는 관문을 맞닥뜨렸다. 면접을 보기 전에 자기소개서도 제출해야 했는데 내 인생에서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두 가지가 싫어서 대학에 진학할 때도 자소서와 면접이 없는 전형들만 찾았을 정도이다.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하기 싫었지만, 어차피 해야 하는 거 제대로 준비해 보자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다. 자기소개서는 문항이 주어졌고, 면접 예상 질문들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정말 좋은 얘기들로만 지어내서 답변할 수 있었겠지만, 실제 나의 경험에서 내가 정말로 느끼고 생각했던 것을 쓰기로 했다.

진짜 나의 얘기들로만 자소서와 면접 답변 내용을 채우니 어렵지 않게 써 내려갈 수 있었고, 면접 답변들은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

다. 이 과정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반성도 많이 했다. 하기 싫었던 일이지만 한층 더 성장하고 여러 가지를 배우는 등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준비해 간 결과, 실제 면접장에서 하나도 떨지 않고 준비한 질문에 모두 답변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면접을 마쳤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합격을 했다.

자격증 준비, 미래의 나를 위해

취업 준비를 시작할 때 내놓을 만한 자격증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으로서 학생 때 자격증만큼은 어느 정도 준비를 했으면 한다. 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에서 기사 자격증으로 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다.

1점으로 운명이 갈리는 시험이기에 가산 자격증의 유무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건축기사가 없었던 나는 건축기사와 공무원 시험 준비를 병행하기로 했다. 다행히 두 시험 내용이 겹치는 것이 많아서 기사 시험 준비가 크게 방해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미리 준비해 뒀었다면 내 몸도 덜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도 있다.

이전에 기사 자격증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때와 지금은 마음가짐이 달랐던 것 같다. 전에는 ‘떨어지면 또 하면 되지.’라는 안일한 마음이 있었던 반면, 이번에는 ‘합격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경험을 겪어 보니 학생 때 여유가 있다면 가능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해 놓는 것이 미래의 나에게 좋은 길인 것 같다. 물론 냅다 아무 자격증이나 준비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글이 합격 수기처럼 길어졌지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두 가지다. 하나는 목표를

정해서 꾸준히 노력하기이고, 하나는 자격증 준비를 성실하게 하는 것이다.

나의 취업 이야기가 장기간 또는 단기간 꾸준히 공부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꼭 내가 했던 대로 공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차근차근 시작해 나가면 잘 잡힌 공부 습관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 나처럼 대학생 시절에 취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조급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늦지 않았다는 말을 해 주고 싶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앞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걱정만 하던 내가 지금은 목표를 이룬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확실한 목표를 정해서 나아갔으면 한다.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항상 내가 최종 합격할 거라는 자신이 있었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나를 믿고 필기시험에서도, 면접에서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따랐다고 생각한다. 나는 누구든지 자신감과, 본인이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와 끈기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도전했으면 좋겠다.

의료공과
의료신소재
학과

취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주)메타바이오메드 전OO

고정관념 타파

취업을 준비하기 전 반드시 깨야 할 고정관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전공을 살려 취업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다.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면 당연히 유치원 교사가 될 것을 하나의 진리처럼 여기지만, 이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졸업 후 짧으면 20년, 길면 30년 그 이상 일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고작 4년(실제 공부 기간은 더 짧음)을 투자해 얻은 졸업장에 의해 평생 직업을 결정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내 인생을 망칠 수 있다. 전공을 살려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것이 취업 준비의 시작이다.

직무 선정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처해 있을 상황과 99% 흡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당연하다. 전부터 자기객관화가 잘되어 있고, 꿈꾸던 장래희망이 있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사람은 위와 같은 생각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나의 꿈을 찾기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은 다음과 같다.

‘싫어하는 직무’를 먼저 선택해 볼 것.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직무를 나열해 본 뒤 그중에서 내가 죽어도 하기 싫은 직무를 먼저 배제하여 선택할 수 있는 직무

의 범위를 점차 줄여 보는 것이다.

[예시]

영업 기획 마케팅 총무 인사 구매 생산 서비스업 환경 → 기획, 마케팅, 구매

[1 · 2단계 정리]

- 1) 전공을 살려 취업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없앨 것
- 2) ‘싫어하는 일’을 먼저 찾아 선택의 폭을 줄일 것

경험하고 또 경험하라

주변에서 맛있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던 마라탕을 막상 먹어 보니 내 입맛에는 완전 최악이었다. 마라탕의 수많은 광고, 주변의 마라탕에 대한 평가는 나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내 입맛에는 맞지 않았으니까!

같은 맥락이다. 어떤 일이 적성에 맞는지는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다. 직접 일을 해 보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적 · 경제적 여유가 없다. 대학 졸업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있다. 그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라. 대내외 활동, 동아리, 소모임, 아르바이트, 여행, 어학연수, 봉사 등 정해진 건 없다.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나를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경험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항상 기록하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심지어는 그저께 먹은 점심 메뉴도 기억을 못 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대학 생활 경험했던 모든 일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 단순한 아르바이트 경험도 좋다. 단, 그 안에서도 내가 특별히 하려고 했던 행동(혹은 업적)을 기록해 두면 좋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시]

- 편의점 아르바이트 (2022.01. ~ 2023.01.)

- 주요 성과(업적): 제품 유통기한 관리 제안 건

1) 현상: 유통기한 지난 제품에 대한 고객 컴플레인 지속해서 발생 → 제품 유통기한 관리 미흡

2) 원인: 넓은 매장, 1인당 관리해야 할 많은 제품 수량

3) 제안: 구역별 담당자 배정 → 구역별로 담당자를 배정하여 유통기한 관리 및 매대 청소 진행

4) 개선: 매장 관리 효율 ↑

모든 경험에 대한 기록물을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재료로 활용할 것!

[3 · 4단계 정리]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하고 → 기록하라”

학점 = 생명

학점은 당신이 학교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학점은 3.5만 넘기면 된다.”,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전공과 다른 직업 선택” 등 이러쿵저러쿵 핑계 대지 말자. 학점은 고고익선이다. 무조건 잘 챙길 것. 적성과 맞지 않는 전공에서도 높은 학점을 유지한다는 것은 하기 싫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갖고 성과를 이뤄 냈다는 점으로 매우 높게 평가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학점은 당신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보여 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이다.

스페셜리스트(Specialist)보다는 제너럴리스트(Generalist)

둘 중 고른다면 난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를 택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스페셜리스트는 소수의 영역(천재 혹은 재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평범한’ 혹은 ‘부족한’ 우리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진 ‘육각형 인재’가 되는 것.

다음 예시를 살펴보자.

[예시]

연구개발(R&D) 직무

‘연구개발’에 특화된 연구원(Specialist) VS ‘영상편집’+‘영어 회화’+‘우수한 PPT 발표 능력’을 보유한 연구원(Generalist)

물론 조직별 · 개인별로 선호하는 인재상이 다르겠지만, 후자도 능력 있는 인재임이 틀림없다. 이렇게 ‘평범한’ 혹은 ‘부족한’ 우리가 제너럴리스트(Generalist)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접해 보지 않은 상황에 노출시켜 보고 다양한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5 · 6단계 정리]

- 1) 학점은 반드시 채길 것 → ‘성실함’과 ‘책임감’의 지표
- 2) 다양한 능력을 보유한 ‘제너럴리스트(Generalist)’가 될 것 → 스페셜리스트를 이길 방법

연구개발(R&D) 직무 취업 전략

- ‘실험실 생활’은 연구개발 직무를 위한 ‘필수 과정’

연구개발 직무로 취업하고 정말 놀라웠던 점은 학교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회사

에서 하고 있다는 점이였다. 차이점을 꼽자면 실험실 크기 및 보유하고 있는 분석 기기들 정도만 달랐을 뿐, 학교나 회사나 실험을 하는 행위는 같았다. 그렇기에 회사 생활이 전혀 낯설지 않았고, 실험실 생활을 더욱 열심히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를 한두 번 한 적이 아니다.

‘실험’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실험실 관리자’가 되어 보라는 말을 해 주고 싶다. 예를 들면, 실험 부자재를 구매하고 관리해 보는 경험, 폐기물 상자를 버려 보는 경험, 분석기기를 관리하는 경험 등 실험실을 단순히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공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험실 관리자가 되어 직접적인 운영에 참여해 보는 것이 실무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왜? 결국 회사에서 실험실의 직접적인 운영을 할 것이므로!

• 논문과 친해지자

위와 같은 맥락이다. 학생 때만 볼 줄 알았던 논문을 회사 와서도 똑같이 보고 있었다. 그 말인즉슨, 학교 다니면서 논문 분류법, 좋은 논문 찾는 방법, 논문 읽는 방법 등 관련한 정보들을 취업하기 전 미리 익숙해진다면 더욱 수월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자격증보다 ‘실험 경험’이 더 중요하다

“학교 다닐 때 실험 주제는?”, “입사하게 되면 해 보고 싶은 실험 주제는?”, “어떤 분석기기를 다뤄 봤나?”, “주 전공이 뭔지?”, “어디 실험실 소속이지?” 내가 입사하기 전 면접에서 받은 질문들이다.

그때 당시 취득했었던 ‘품질경영산업기사’에 대한 질문은 전혀 없었으며, 다소 높았던 학점에 대해서도 크게 질문이 없었고 죄다 실험과 관련된 질문들이었다. 그 이유는 회사에 입사하고 깨닫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학교에서 하는 것들을 회사 와서도 그대로 하기 때문에 학부 때 진행했던 연구(실험)에 관한 내용을 본다면 그 사람의 회사 생활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연구개발 직무를 희망한다면 단순히 정형적인 스펙들, 예를 들어 토의

점수, 자격증과 같은 스펙 준비보다도 실험(프로젝트)을 하나라도 해 본 경험이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단순한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험에 대한 정리 및 완전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 면접에서 해당 실험에 대해 물어볼 것이므로!

• 학창 시절 실험 경험이 없다면 실험실 인턴도 하나의 대안

만약 학창 시절 제대로 된 실험을 해 본 적이 없거나 실험 경험이 없다면, 자격증 몇 개보다 짧더라도 연구소 인턴을 해 보는 것이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인턴도 힘들다면 연구소 내 단순 아르바이트라도 지원해라. 거기서 최대한 많은 실무를 경험하고 배워라(참고로, 아르바이트로 들어갔다가 정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보았다).

[정리]

- 1) '실험실 생활'은 필수!
- 2) '논문'과 친해지자
- 3) 자격증보다 '실험 경험'이 중요
- 4) '인턴' 및 '아르바이트' 지원

재활복지

아동교육
학과

될놈될

LG이노텍 서울어린이집 이OO

글을 시작하면서

나는 올해 상반기 2023 한솔어린이보육재단 정기채용에 지원하여 LG이노텍 서울어린이집으로 입사하게 되었다. 내가 한솔어린이보육재단에 들어오기 위해 건양대학교의 아동교육학과 학생으로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세세하게 알려 주고자 한다. 나의 글이 보육교사를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두근거림과 설렘을, 혹은 취업에 두려움을 가진 분들에게는 자신감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글이 되기를 바란다.

솔직히 말하면, 될놈될이라는 말은 지극히 맞는 말

누구는 말한다. 학점 낮아도 취업은 ‘될놈될’(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잘된다)이라고. 그러나 될놈될의 기준은 모두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스스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든 되겠지.”라는 마인드는 정말 나약한 생각과 미래를 위한 계획적이지 않은 한심한 생각이라고 단언컨대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싶다.

내가 생각하는 ‘될놈될’은 정말 그 누가 봐도 최선을 다하고, 계획적인 흔히 말하는 모범생이다. 나는 내 스스로가 모범생이 되기를 원했고, 오랫동안 꿈꿔 온 어린이집 교사가 되기 위해 대학교의 학교 성적 및 학과 생활과 더불어 교우 관계 등 모든 것에 늘 최선을 다하며 나의 일상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다.

학점이 높다는 건 대학 생활에 그만큼 충실했다는 것

가장 먼저 시작한 나의 노력은 학업이다.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나에게 적합한 학습법을 찾지 못했고, 오랜 시간 앉아 있는 끈기는 있었지만 진도를 빠르게 빼지 못해 늘 시험 범위 근처도 못 가서 시험을 치렀다. 그래서 대학교를 가더라도 학업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을 안고 입학했다.

역시나, 대학 첫 시험을 준비할 때 고등학교 때 했던 방법대로 하게 되었다. 성적은 학과 내 중후반. 상위권에 들고 싶었던 나는 이제는 학습법을 다르게 해 볼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다. 과감하게 고등학교 시절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던 친구에게 연락하였다. 친구의 학습법은 빈 공책에 전부 외울 거리를 손으로 적으며 암기하였다고 했다. 그렇게 나는 시험 유형을 알게 되었기에, 무엇을 중점으로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오고, 또 암기할 때 효율성을 따질 수 있게 되었다.

끈기가 많은 나는 나만의 시험 준비 기간을 2주로 정하고 매일 정해진 장수만큼 꼭 암기하고 잠들었다. 또 일어나서는 암기한 부분을 눈으로 훑어보면서 수업에 갈 준비를 한 결과, 나의 등수는 한 자리. 학교 성적은 점차 올라 대학교 4년 동안 성적우수장학금을 꾸준히 받으며 부모님께 등록금 절감이라는 효도를 할 수 있었고, 스스로에게는 “하면 된다.”는 자부심을 키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나는 내 스스로를 뚝뚝이 되기 위해 무엇이든 되도록 하고, 내가 시작하면 반드시 끝은 이뤄지도록 노력했다. “대학교 성적이 그렇게 중요한가? 성적 안 좋아도 취업 잘하는 사람도 있던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지만, 스스로 노력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분명 다른 점을 얻게 될 것이라 자부한다.

성적은 대학 4년을 가장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모든 부분에서 A를 받아야 좋은 이미지라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원자는 최선의 노력으로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를 유지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 그렇기에 성적이 좋으면 성적이 좋다는 이유로 취업에 발목 잡히지는 않을 것이다.

보육실습 다음에 진짜 큰 거 남았다

4학년 여름방학 6주 동안 보육실습에 온 힘을 쏟기에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개강 이후부터라도, 원하는 재단의 유형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또한 정말 많은 블로그와 자기소개서에 자신을 잘 나타낸 사람의 표본을 찾아보았다.

많은 것을 보고 느낀 점은,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맞깔나게, 읽고 싶게’ 담아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나 또한 오랜 시간 준비하면서 글의 유형이 정말 많이 변화되었다. 4년 혹은 나의 인생에서 어떤 점을 가장 어필하고 싶은지를 선택하여 작성하는 부분에서는 생각의 미로에 갇힌 적도 있었다.

도대체 뭘 써야 어필이 되는 건지 충격적인 걸 써야 하는 건지 고민이 많았지만, 결국 내가 선택한 글은 진정성 있고 투명한 내용으로 써 내려가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알맹이가 없는 글이었지만 점차 나만의 글로 자리 잡히고 문맥이 구성되었다. 보육교사를 희망한다면 여러 재단을 알겠지만, 각 재단마다 원하는 교사 역량과 능력이 다르다. 그중에서 나에게 가장 어울리고 원하는 교사상을 찾고 나의 장점을 덧붙여서 강점으로 빛날 수 있는 부분을 잘 조합한다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더욱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나의 오랜 노력이 담긴 자기소개서는 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취창업지원센터의 선생님과 지도교수님이신 윤선영 교수님께서 큰 도움을 주셨다. 두 분이 없었다면 나의 다듬어지지 않은 자기소개서는 그저 맥락 없는 긴 글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교수님께서서는 나의 4년을 지켜봐 주신 분으로서, 나라는 사람이 학생이었을 때 어떤 이미지였고, 제자인 내가 가지고 있던 강점을 가장 뚜렷한 강점답게 표현해 주셨다. 그렇기에 나의 자기소개서에는 더욱 강하게 스스로에 대한 어필을 자연스럽게 명확하게 담아낼 수 있었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글 정리를 도와주셨다.

그러나 자기소개서는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면 그만큼 글의 본 성격을 잃어 가기에 나처럼 2~3명 정도의 조력자에게만 글 수정의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란다. 나의

자기소개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 자신을 어필하기에 최적화된 글이 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재단 정기채용 서류 1차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면접은 흡사 프로듀스 101

나의 첫 번째 면접 연습은 건양대학교 취창업센터에서 큰 도움을 주었다. 모의면접을 준비할 기회로 인하여 실제 면접 때 더욱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교수님들께서 유능한 원잠님들을 모의면접관으로 섭외해 주셨기에 실천처럼 긴장감을 가지고 면접에 임할 수 있었다.

‘모의’라는 말에 약간의 오만함을 가졌던 나는 오히려 큰 깨달음과 좋은 긴장감을 가져갈 수 있었고, 모의면접은 실제 면접을 보기에 앞서, 꼭 필요한 절대적 단계라고 생각한다. 모의면접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면접 질문 유형, 내가 면접을 임하는 태도 및 평소 말투, 버릇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컨펌을 받을 수 있어서 뜻깊었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생각하면 모의면접 당시에 당황스럽고 어려운 질문과 상황을 미리 겪었기에, 실제 면접 때는 모의면접 때 컨펌 받은 부분을 떠올리며 더욱 내 자신을 안정감 있고 빛나는 사람으로 돋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밝고 명랑한, 자기소개서에 소개한 나의 모습 전부를 보여 드릴 수 있었고, 한껏 어필되어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면접을 대하는 우리는 일반적인 ‘지원자’가 아닌 ‘선생님’으로 불리기에 결코 가볍게 보이면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또 나의 생각을 조리 있고 두서 있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면접을 앞두고 있는 일주일 동안은 항상 자주 쓰던 자신의 말투에도 집중하며 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모든 면접 질문에 나는 ‘솔직하고, 투명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면접자는 너무나 많고 면접관들은 여러 사람을 보느라 지치거나 지루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 시간대에 함께하는 지원자만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 나를 지켜보는 원장님들에게 시간이 지나도 내가 잊히지 않는 지원자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면접 질문에도 자신만의 색깔이 도드라지는 답변이 필요하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할 때에는 예상 질문지를 따로 작성하고 만들면서 그에 맞는 답변을 나의 말로 만들었다. 또 목소리로 직접 소리 내어 말하는 연습을 통해 가장 자연스럽게 어투를 정돈해 갔다.

처음에는 거울을 혼자 보면서 주야장천 연습했지만, 타인의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봐줄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함께 생활했던 룸메이트 학과 친구와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학과 친구는 함께 면접을 준비하는 입장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예비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잘 확인해 줄 수 있던 부분이 강점이었다. 더불어 가족은 취업을 준비하는 나에게 정말 냉철하게 준비하는 과정을 봐주었고, 내가 조금이라도 주눅 들어 하는 모습이 보이면 가차 없이 피드백해 주었다.

그렇게 나는 면접 준비 또한 다수가 아닌 2~3명에게 도움을 받으며,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한 번의 만남인 면접에서 어필해야 뽑힐 수 있을지를 단단하게 만들어 갈 수 있었다.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야, 자부심을 가지자!

내가 집을 떠나 멀리 서울로 취직을 준비하고, 이렇게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적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막상 무슨 말로 전달해 줘야 할지 고민하면서 적은 이 글이 너무 어렵진 않을까 걱정도 된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 글을 적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 맞게 잘 준비했고 착실히 노력한 결과 원하는 직장과 직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기에 이 글을 적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 또한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모르는 게 너무나 많지만 당장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 나 또한 수많은 취업준비생 중 한 명이었고 머릿속이 온통 두려움 100%로 가득 차는 날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 마음을 꼭 이렇게 다잡았으

면 좋겠다. “나라는 인재를 알아보는 직장 혹은 어린이집이 있을 것이고, 나는 나를 알아봐 주는 어린이집의 교사로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사가 될 거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고 견뎌야만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 100%로 가득 찬 나날이 올 것이다. 그렇다고 자만심으로 가득 차지 않게 조율해 가면서 준비해 나가길 바란다. 반드시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바로 ‘될놈될’이기에 무엇이든 될 수 있도록 시작의 발판을 두텁게 쌓아서 몇 번이나 넘어지길 반복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해져 가길 바란다. 나의 소중한 후배님,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후배님들에게 이 글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

재활복지

아동교육
학과

우리 반 선생님이 제일 좋아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 하늘꿈 김OO

우리 반 선생님이 제일 좋아요!

나는 현재 푸르니보육지원재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 KARI 하늘꿈 어린이 집에서 근무하고 있다. “선생님! 아이 링고 블록보다 선생님이 더 좋아요!”, “나도! 티니핑보다 선생님이 더 좋아!” 7살 우리 반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보다 나를 더 좋아한다며 말해 주는 것은 정말 소중한 말이다. 두 팔을 벌리며 나를 안아 줄 때, 작은 손으로 내 손을 꼭 잡고 놓아주지 않을 때 교사로서 사랑받고 있음을, 이 아이가 나를 신뢰하고 있음을 느낀다.

내가 ‘보육교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학부생 시절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한다. 나의 작은 이야기를 듣고 ‘보육교사’를 희망하는 당신도 우리 학과에서 좋은 영향력과 많은 경험을 쌓아 교사가 되어 나보다 더 뜻깊은 말과 따뜻한 마음을 아이들에게서 듣고 느꼈으면 좋겠다.

MBTI: 나의 외향형(E) 100%가 학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나의 MBTI는 ESFJ이다. 활발하고 열정 가득한 나의 성격 덕에 학생회, 봉사 활동, 비교과 프로그램, 각종 공모전 등에 참가하여 많은 성과를 이뤄 냈다. 동기들이 나에게 “취업 걱정은 없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도전하는 것을 즐겨 했으며 내 실 있는 스펙을 쌓아 왔다. 여러분에게 내가 해 보았던 비교과 활동을 추천하며 소개하고자 한다.

• 학생회

나는 학과에서 부학생회장, 학생회장의 직책을 맡았다. 나의 주된 업무는 학과 내 조화를 생성하고, 학생 · 교수님 · 학교와 소통을 원활히 하여 학과 행사 기획 및 운영 관리에 대한 업무를 하는 것이었다. 여러분에게 학생회장에 도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직책 중 한 가지를 시도하여 그 안에서 ‘소통 능력’, ‘기획 및 운영 능력’을 경험했으면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 · 학부모 · 동료 교사 등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며 수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나는 소통의 기술을 학생회장을 하며 배웠다. 어린이집에서는 ‘소통’에서 비롯된 갈등이 많기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통의 힘을 길렀으면 한다.

또한 학과 학생들을 위해 희생하여, 다양한 학과 행사를 운영하고 계획하는 과정을 통해 ‘기획 및 운영 능력’을 길렀으면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존재하며 한 사람당 행사를 1개 이상 맡게 되도록 업무 분장이 되어 있다. 학생회를 하며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며 책임감과 추진력을 배운다면 어린이집에서는 초임임에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을 것이다.

• 봉사 활동

취업하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이론이랑 너무 다르다.’는 것이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학부모 상담이나 영유아를 관찰하기도 하지만, 아이들과 보내는 하루는 모의수업 계획안처럼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그렇기에 학과 생활을 하며 현장에 가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는 어린이집 기관 유형별로 2주 이상, 하루에 6시간 이상씩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한곳에서 오래 봉사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기관별로 보육이념과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다양한 어린이집에서 봉사하며 배울 점을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 좋은 교사로 거듭나길 바란다. 여러 기관에서 봉사 활동을 경험하여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취업할 기관을 정할 때도 나에게 맞는 기관의 유형을 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공모전 및 각종 대회

건양대학교는 학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많은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공모전을 개최한다. 나는 나의 강점과 환경을 살려 모의수업 경진대회, 대학 생활 영상 경진대회, 교육질 관리 우수 사례 등을 참가하여 수상한 경력이 있다. 여러분들이 손재주가 좋다면 교재교구 경진대회를, 영상 편집 기술이 좋다면 영상 경진대회를 나가 보길 추천한다. 어린이집에 취업할 때 대부분의 지원자는 수상 경력이 ‘공란’이다. 이 점을 ‘공략’하여 여러분들의 무궁무진한 재주를 강점으로 살려 대학 생활 중에 각종 대회에 참가해 보길 바란다.

나의 매력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도록

‘취업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자소서와 면접이다. 나는 자소서를 작성할 때 자신만의 ‘색깔’과 ‘매력’이 뚜렷하게 보이도록 적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남들과 차별화된 ‘소재’를 고르는 데 집중했다. 소재를 고른 후에는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고 깨달았는지, 어린이집에 어떻게 기여할 계획인지 3단계에 맞추어 작성하였다. 물론 어린이집의 보육 철학, 인재상 등을 접목해 적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는 자소서도 중요하지만, 실제 원장님들이 나를 채용하는 자리인 ‘면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예상 질문지 목록을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① 자기소개서 기반, ② 어린이집 상황 대처 질문, ③ 영유아 발달 단계 등 3가지를 크게 중점적으로 질문지 목록을 작성하여 연습했다. 거울 앞에서 목소리 톤, 과하지 않은 표정, 웃음 등을 사전에 점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제 면접실에서는 막힘없이 면접관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고, 밝고 똑 부러지는 인상을 심을 수 있었다.

또한 ‘자기소개’는 정말 중요하기에 나의 존재가 생각날 수 있도록 동요 노랫말에 나의 이야기를 넣어 열창했다. 여러분들도 사전에 ‘모의 면접’ 시간을 충분히 가지며 점검하고, 나의 존재와 매력을 발산하길 바란다. 나는 취업 준비에 수많은 시간

과 애정을 쏟았으며, 3개의 직장 어린이집에 합격했다. 비결은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도 준비된 사람이 되어 여러 곳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소극적이어도 괜찮아, 한 걸음씩 시도하면 돼

아이들이 저마다 개개인의 고유한 성격, 습관, 특징, 기질이 모두 다르듯이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도전하고, 실천하고, 기회를 잡아 비로소 취업에 성공하게 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향이 있는 반면, 소극적이고 두려움을 가진 성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과 활동이나 대외 활동들을 걱정하며 주저할 것을 안다. 나는 여러분에게 ‘시도’해 보라고 말해 주고 싶다.

또한 학교에는 취업에 많은 정보와 도움을 주는 취창업지원센터가 있다. 내가 자소서 첨삭과 모의 면접에 참가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센터에 많이 드나들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또한 교수님들께서도 열정과 사랑을 가지시고 학생들이 취업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신다. 그렇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학과 생활과 취업 준비를 하길 바란다.

찬란하고 빛날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응원하며, 여러분과 교사로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해 보자! 사랑한다, 후배님들!

재활복지

중등특수
교육학과

나를 발전시키는 방법, 무한도전

경상북도교육청 상희학교 배OO

할까 말까 할 때는 해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다. 태어난 직후의 울음부터 목 가누기, 일어서기, 걸음마 등 도전을 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 필자는 편입생이다. 4년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건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로 편입했다. 사회복지학과에 재학할 때부터, 돌이켜 보면 그전 학창 시절부터 항상 도전해 왔다.

나는 대문자 P다. 그래서인지 도전하는 것 자체가 큰 계획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또 쉬웠다. 중학교 때부터 봉사 활동을 자주 다녔고, 자연스럽게 사회복지학과로 진학하게 되었다. 사회복지학과에서 세 개의 동아리 활동을 하고, SK SUNNY 대학생 봉사단, 해외봉사, 서포터즈 등 수많은 활동에 도전했다. 4년간의 봉사 활동 시간도 500시간이 넘을 정도로 다양하고 꾸준하게 무엇인가를 해 왔다.

그렇게 쉴 새 없이 달려가다가 여행을 가고 싶을 때면 친구와 혹은 홀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할까 말까 할 때는 후회가 없도록 도전했다. 노력을 인정받았던 적도, 가끔은 좌절했던 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특수교육과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해 볼까 생각지도 않았던 내가 특수교육의 길로 들어서고자 마음을 먹었던 것은 졸업하는 해 12월이었다.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도 장애인 복지에 관심이 많았고, 클라이언트와 서비스를 연계시켜 주는 것을 넘어 장애인들을 위해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길로 바로 편입을 알아보고 편입 전형에 지원하였고, 합격하고 싶다는 열망에 열심히 준비하여 편입생 정원이 단 한 명뿐인 건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로 편입학과

게 되었다.

편입할까 말까 고민하다 도전조차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나는 없었다. 또 여태까지 내가 도전해 온 활동이 없었더라면 아직까지 진로에 대한 확실성을 갖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었을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전은 곧 경험이 되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의 이정표가 된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있을 후배 여러 분들에게는 할까 말까 할 때는 꼭 반드시 하라고 말해 주고 싶다.

편입생의 시간은 빠르게 간다

편입이라는 것은 4년의 교육과정을 2년, 2년 반 만에 끝마쳐야 하는 것이기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 2년 동안도 학점을 모두 전공으로 채워 듣게 된다. 3학년 때는 입학해 학교생활에 적응하느라 무척 바쁜 시기를 보낼 것이다. 성적 관리는 물론 학과 행사 참여, 교육봉사, 부서 활동 등 학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보고자 노력했다.

또한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장애학생인권지원단 더봄학생 멘토링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이 부족하여 청강으로 참여하였다. 여름에는 계절학기를 처음으로 수강하였고, 현장에서 장애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여름 계절학교에 참가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여름 계절학교와 더봄학생 멘토링을 통해 배우고 아이디어를 냈던 만들기 활동을 현재 특수학교에서 잘 활용하고 있다. 내가 시도해 보고 경험해 보았던 활동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정리해 모아 두면 추후 큰 도움이 된다.

연말에는 우수 학습 크리에이터 공모전에 UCC를 출품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특수교육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청각 자료를 만드는 능력은 특수교사에게 무기가 된다. 동료장학 때 학생들의 집중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시청각 자료를 만든 것과 관련하여 동료 교사에게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4학년이 되기 전 겨울방학 역시 계절학기를 수강했다. 계절학기를 하며 표시과목

교과 교수님들을 매일, 소수의 인원으로 뵙다 보니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점이 좋았다. 또 방학 동안 교원 임용시험을 보기 위한 필수 자격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을 취득하였다. 당시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4학년 때 취득했지만, 현재는 유효기간이 사라졌기에 저학년 때 응시하는 것을 추천한다. 고학년 때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임용 공부와 겹친다면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또 5월엔 사범계의 꽃인 교생실습이 있다. 학생들과의 라포르 형성부터 수많은 수업과 교재교구를 준비하고 연구수업까지 해내는 과정이 힘들겠지만, 이때의 경험으로 인해 특수교사로서의 우리는 더 단단해진다. 전공과목에서의 수많은 수업 실연과 교생실습 때의 경험을 토대로 후배들과 함께 협동창의교육복지EXPO 수업실연 부문에서 1위로 최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

기간제 교사로 일하게 될 때를 대비하기 위해 교내 취창업센터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받는 것도 취직을 위한 좋은 방법이다. 내가 나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았을 때 보이지 않았던 수정·보완할 점을 명확하게 짚어 주셨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특수교육의 전문가이신 우리 학과 교수님들께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상담을 신청하면 진심 어린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시간이 촉박해 면접 컨설팅은 받지 못했지만 취창업센터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모두 경험해 보길 추천한다.

2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지만 내게 큰 성취감으로 돌아왔다. 멘토링, 계절학교, 공모전, 수업실연 대회 등에 참가하는 것은 사실 편입생에게 큰 도전이었다. 그러나 도전하는 것에 거리낌 없다 보니 부담감을 갖지 않고 즐기며 여러 활동을 해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도전들은 전공 지식 함양과 수업실연 능력 고취로 이어졌고, 교직을 꿈꾸는 열망으로 이어져 임용고시 합격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 2년 동안 건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에서의 도전과 경험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 확신한다.

슬기로운 편입 생활

편입생들은 입학할 때 3학년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전적대학교에서의 1~2학년 학점이 편입된 대학교에서도 교양학점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17학번이자 3학년으로 2019년도에 입학하였다. 입학하기 전 했던 각오는 단 하나였다. 특수교육이라는 학문을 처음 배운 것이기 때문에 그저 무사히 졸업하는 것이었다.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은 것이 3과목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졸업까지 최소 5학기는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4학기로 졸업하였다. 우리 학과 편입생 중 4학기로 졸업한 사람은 거의 없다. 내가 4학기 만에 졸업할 수 있었던 방법을 소개한다.

• 교수님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하자

교수님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나만의 학년별 교육과정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이 좋다. 교수님과의 첫 만남에 시간표를 짰는데, 교수님께서 처음에 추천해 주신 방법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 전공필수 과목, 전공선택 과목 중 저학년(1~2학년) 과목과 나의 현재 학년인 3학년 개설 과목을 함께 이수하는 것이었다.

• 계절학기를 적극 활용하자

복수전공자들을 모아 계절학기를 개설하기 위한 최소 수강 인원을 충족하고, 교수님께도 강의 개설을 부탁드렸으며, 행정실과도 협조를 통해 들을 수 있는 만큼은 계절학기를 수강하였다. 복수전공자들도 계절학기를 꼭 수강하도록 하자.

• 학교의 수강 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우리 학교에는 직전 학기 성적 4.0 이상의 학생들을 위한 수강 신청 기준 학점이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다. 직전 학기 성적 4.0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학생들보다 2학점을 더 수강할 수 있기에 굉장히 유용하다. 또한 1학점이 아쉽고 소중한 편입생과 복수전공자들은 초과 학점 신청, 수강 신청 학점 이월 신청 등의 제도도 있으니 꼭 활용해 보자.

• 필수 과목 먼저 수강하자

대체제가 없는 필수 과목, 격년마다 개설되는 과목이거나 교수님의 사정으로 인해 내년에는 열리지 않을 과목 등, 편입생의 졸업에는 항상 수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이 변수는 마지막 학기까지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요소다. 전공, 표시과목, 교직의 필수 과목을 먼저 시간표에 넣고 다음에 선택 과목들을 넣는 것을 추천한다. 어려운 과목이라고 미루었다가 나중에 시간표가 맞지 않아 들어야 할 때 수강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수강할 수 있을 때 꼭 수강하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자. 언젠가는 들어야 하는 과목이니 가능할 때 도전해 보자.

• 교육과정을 꿰뚫고 있자

입학한 직후부터 나의 해당 학년도(학번 기준) 교육과정을 프린트해 두고, 매 학기마다 체크해 가며 따로 작성하고 정리하였다. 나의 졸업은 졸업 요건과 학점 이수 체계, 교육과정 일람표가 담겨 있는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7학년도 교육과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꿰뚫고 있어야 했다. 또한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교수님과 행정실에 여쭙보고 확인하였다.

• 졸업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한 편입생이 졸업하려면 온 학교가 필요하다. 항상 신경 써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교수님들의 배려와, 아무 것도 모르고 왔을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도와주신 행정실 직원분들, 또 항상 함께했던 중등특수교육과의 학우들까지. 건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의 도움이 없다면 졸업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입학 직후부터 교수님, 행정실, 학우들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자. 또 매번 고생해 주시는 분들의 노고와 감사함을 잊지 말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시작이 반이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 생각보다 뛰어나다. 시작해 버리면 우리는 결국 해내고야 만다. 자율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나를 발전시키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재활복지

중등특수
교육학과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취업의 시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OO

목표를 설정하고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취업 준비를 해 보았다면 지원 동기를 준비해 보았을 것이다. 보통의 지원자들은 본인의 역량이 직무와 잘 맞아서 지원했다고 이야기하고는 한다. 하지만 그런 동기는 심사위원의 눈에 들기는 어렵다. 눈에 딱 들어오는 지원자는 본인의 역량으로 회사에서 특정한 업적을 이루고 싶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지원자라고 한다.

어떤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시작한다. 학업과 취업도 마찬가지이다. 나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장애인의 자립지원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큰 목표를 설정했다. 그렇게 정한 목표는 대학교 재학 기간 내내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중등특수교육과에서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배우고, 창업동아리도 하고, 교육봉사와 실습을 다니며 경험을 쌓고, 학과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 자격증도 취득하면서도 지금 배우는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생각하며 학교를 다녔다.

그 결과, 현재 나는 장애인이 자립 생활에 꼭 필요한 경제적 소득을 얻기 위한 직업을 찾아 주고, 적합한 직업훈련을 추천해 주기도 하는 등 여러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목표를 위한 여러 경험이 만든 스토리는 내가 취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창업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동아리의 내용이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면접에서 ‘창업동아리는 관련성이 없는 경험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자회사형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등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내세움과 동시에, 오랫동안 장애인의 고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나의 스토리를 어필해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었다.

이렇듯, 원하는 직무를 할 수 있는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설정하고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다. 목표하는 기업과 직무에 맞게 경험을 녹여 내면 남들과 차별화된 지원자가 될 수 있고, 취업에 성공하기도 쉬워진다.

지치지 않고 목표를 이루는 방법

그렇다면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 큰 목표를 우선으로 정하고 작은 목표들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일단 큰 목표를 세우기 위해 졸업 후에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싶은지 찾아보아야 한다. 나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개발원, 장애인고용공단 등 장애인과 관련된 공공기관이 목표였다.

이에 따른 작은 목표는 잡알리오를 통해 알 수 있는 시험 과목, 직무기술서, 인제상 등을 보며 목표를 정했다. 이때 내가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목표는 장시간이 걸리는 것, 기초부터 학습해야 하는 것을 1~2학년에, 단기간에 할 수 있고 심화된 내용은 3~4학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식을 쌓는 것 외에 체력과 건강을 다지는 것도 계획으로 넣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부도, 대외 활동도 모두 체력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어야 견딜 수 있다.

목표를 실행하다 보면, 분명 지치는 순간이 온다.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순간이 오면 잠시 멈춰서 목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구분하여, 안 되는 것은 깔끔하게 포기하고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에 맞게 목표도 다시 설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흔히들 이야기하는 장수생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늘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잠시 멈춰서 본인의 행보를 객관적으로 보고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 번 지치면 회복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마라톤에서 구간 내내 전력 질주하지 않듯 자기 속도대로 빨리 달리기도 하고, 느리게 가

기도 하며 조절했으면 좋겠다. 무리하게 뛰다가 기권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기다려도 완주하는 것이 낫다.

NCS 시험 준비하는 방법

우선 개인의 문해력, 배경지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유리하다. 기업마다 지문의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그 분야와 관련된 지식을 많이 접하는 것이 좋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경우 사회 · 경제적 이슈를 물어보는 지문이 많으니, 뉴스나 시사 어플, 은행이나 증권사의 경제 아티클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NCS는 길게 준비하는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3개월 이상 문제를 풀었는데 나아지는 점이 없다면, NCS 없이 전공시험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무작정 책을 사면 그 두께에 지레 겁먹어 공부를 시작할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시험을 보는 과목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부 능력별로 전부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목표로 하는 기업의 출제 범위를 보고 출제되는 과목만 공부하면 된다.

우선,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정채용 - 자료실 - 채용모델 필기문항’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직업기초능력의 필기 문제를 다운로드 받아서 풀어 보기를 바란다. 이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NCS통합 - NCS소개 - 직업기초능력 - 직업기초능력’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직업기초능력의 가이드북과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여 학습하기를 바란다.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이때 사설 기출문제집, 강의, 유형풀이 등을 참고하면 된다.

부족한 부분 위주로 공부하고 이후 시간 단축을 위해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의 풀이 방법을 외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PSAT형(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문제가 많아지는 추세이니, 지문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따로 하면 더욱 좋을 것 같다.

면접 준비하는 방법

기초적인 질문은 학교 취창업센터의 모의면접을 이용하면 좋다. AI모의면접이 공기업을 준비하는 나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었다. 예시가 있으니 답변을 준비하기에도 수월했다. 특정 직무에 대한 면접 준비는 네**블로그, 블*인드, 잡플*닛에 면접 수기를 검색하면 예상 질문이 있다.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관련성 있게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된다.

나의 경우 자기소개서, 이력서상의 경험, 경력 관련 추가 질문이 있었고, 장애감수성 관련 질문, 복지법상 장애 유형, 그에 따른 특성에 대하여 대답하는 것과, 공단 사업에 대한 기초적 지식, 민원 응대 시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질문 받았다. 대답을 준비해 가면 가장 좋지만, 예상하지 못한 질문의 경우 차분하게 공직자의 마인드로 상식적인 대답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입사 후 관리자에게 확인해 보니, 내가 지원자 중에서 질문에 가장 차분하게 대답하여, 실전에서도 돌발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차분할 것 같아 채용되었다고 말해 주었다. 경력자가 아니라면 실무에 관련된 지식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은 면접관이 당연히 감안하고 면접을 본다. 모르는 질문을 받아도 침착하게 생각하여 상식선에서 당당하게 발언한다면 면접에 있어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후배에게 해 주고 싶은 말

취업에 정답은 없는 것 같다.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각자에게 맞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나는 쉽게 지치고,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고, 열정에 비해 집중하는 시간도 길지 않았다. 그렇기에 성급하게 이루려고 하지 않고 천천히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도전하였다. 그 결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채용되어 원하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잠깐 다른 길로 가더라도 결국에는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던 목표가 나를 움직이는 법이다. 진로로 고민이 많겠지만,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본인이 추

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정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혼자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어렵다면 언제든지 학과 교수님과 취창업지원 센터를 이용하면 좋다. 찾아보면 좋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많고 대부분 무료다.

나의 경우에는 4학년 2학기에 국민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서 직업훈련에도 참여하고,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하여 경력을 쌓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직업상담원으로 단기간 근무하기도 했다. 이렇게 취업을 하고자 하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으니 필요한 사람들은 꼭 활용하여 보다 쉽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으며 취업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이제야 드는 생각이지만, 취업 후에 보면 취업을 준비하면서 했던 자잘한 고민들은 당시에는 참 크게 느껴졌지만 지금 와서 보니 정말 별것 아니었다. 특히, 타인의 말에 마음 상하거나 휘둘리지 않고 본인이 설정한 목표와 본인의 능력, 잠재력을 믿고 해냈으면 좋겠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에 늦거나 빠른 때도 없고, 내 자리가 없는 것 같다가도 어떻게든 길이 생기고 내 자리가 있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혹여나 취업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교생 실습 때 교무부장님이 알려 주신 자존감 올리기 꿀 팁을 전수해 주려고 한다. 민망함을 무릅쓰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너는 멋지다. 누구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할 수 있다!” 외친다면 자존감이 200% 올라간다. 꼭 기억해 두고, 매일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하길 바란다. 신체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챙기면서 삶의 목표를 향해 완주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건승하세요!

재활복지

디지털
콘텐츠학과

‘CTRL+S’의 삶을 살자

건양사이버대학교 손OO

경험의 중요성?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쌓으면 좋다는 말들을 어디선가 많이 들어 보았을 것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영상을 제작해 보면서 가장 절실하게 와 닿았던 것은 경험이라 생각했었다. 갑작스럽게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유는 경험을 해 보았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생각으로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학과에서 경험할 수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디지털콘텐츠학과는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이수할 수 있는 교직과정 설치학과라는 것을 알게 되어 3년간 교직 이수와 동시에 학과 프로그램, 공모전, 영상 제작 등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성장했다.

하지만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느끼고 깨닫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싶다. 때론 실패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노력해야 하는 부분을 깨달을 수도 있고, 성공을 통해 나의 강점을 느낄 수도 있다.

디지털콘텐츠학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지만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학과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같이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교수님께 말씀드리면 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셨다. 대학 생활 속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스스로 찾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기록하는 삶?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이라고 말해 주고 싶다. 나의 하루를 일기에 작성하는 것처럼 하루 동안 무엇을 했었는지 기록하지 않고 기억만 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과 선배님들께서 ‘CTRL+S’ 저장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일상을 기록하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내가 제작한 영상의 질이 낮더라도 일단은 차곡차곡 폴더에 저장하는 버릇이 되어 있어야 한다. 지난 4년간 작업한 영상물, 시나리오 문서, 학과 활동 등을 노선과 개인 유튜브 및 외장하드에 나뉘어서 정리하였다.

첫 번째, 노선으로는 간단한 문서화 작업으로 내가 1년간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기록하는 용도로 정리하였다.

두 번째, 유튜브에는 직접 제작한 영상을 올린 후에 링크를 따로 노선에 첨부하면 내가 어떤 영상을 만들었는지 한눈에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개인 외장하드는 꼭 사용했으면 좋겠다. 문서나 프로젝트를 저장하려면 큰 용량의 하드가 필요하다. 개인 PC에 저장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 혹은 단체로 제작한 프로젝트나 문서 작업물을 외장하드에 따로 정리해 두면 찾기도 쉽고, 용량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우리 학과를 기준으로 설명하였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자격증만 취득하는 방향도 좋으나 추후 진로를 변경하게 되거나 자신이 맡은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좋겠다.

나를 표현해 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

나는 학과에서 진행했던 포트폴리오나 면접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항상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여 검토를 받았다. 학과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관련 직종의 면접관분께서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틈틈이 피드백을 받으며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자 노력을 많이 했다.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다른 이들이 보기엔 쉽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 자신을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이야기를 읽고 계신 후배님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바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다양한 자격증 취득?

학과별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자격증 수업이 있다면 무조건 신청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다. 자격증반에서는 전문 강사분께서 프로그램의 기초를 다루면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나의 역량 성장과 자격증 취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기에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몇몇 자격증은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취득하여 일단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취업 준비할 때나 취직한 이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굳이 학과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후에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미리 알아보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다.

나의 취업 준비 팁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교직과 영상전공을 함께 살릴 수 있는 회사로 바로 취업하고 싶어서 1년간 열심히 취업 준비를 시작했다. 마지막 학기를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했었다.

하루에 포트폴리오 디자인만 수십 번 수정해 보는 시간이 있었고, 자기소개서 한 문장을 쓰는 데 며칠이 걸린 적도 있었다. 그 당시에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생각했었지만 진전되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 같아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 돌이켜 보면 나 자신에게 고생했다고 전해 주고 싶다.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분들께 내가 생각하는 몇 가지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에 관해 설명해 주고 싶다. 사람의 성향마다 자신에게 맞는 부분이 다를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읽은 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에 참고만 하면서 나의 글을 읽어 주셨으면 좋겠다.

• 졸업 준비를 먼저 하자

가장 먼저 자신이 졸업 요건 준비를 먼저 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졸업과 취업 준비를 같이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교직과 전공 졸업 준비를 같이해야 했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었다. 교직을 전공하고 있는 후배분이 나의 이야기를 본다면 꼭 졸업 준비를 먼저 한 다음에 여유로운 상황이 되었을 때 취업을 준비하라고 조언해 주고 싶다.

돌이켜 보면 졸업 준비하고 있던 그 당시에는 동시에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유롭게 준비하고 있던 과거의 나에게 미래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질 정도로 후회하는 일 중의 하나이다.

• 포트폴리오를 먼저 제작하자

영상 · 디자인 관련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노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1차로 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 어도비 포토샵/일러스트 프로그램으로 PPT 디자인을 했다. 이때 자기소개서를 먼저 작성하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구상한 이유는, 학년별로 활동을 나열하였을 때 나 자신을 보여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밑그림을 구상한 다음 이야

• 자기소개서를 구상할 때는 포인트가 될 만한 내용을 생각하자

구상이 완료되었다면 지원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나 역량을 확인하면서 나의 내용에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면 좋다. 많은 지원자들 속에서 나의 자소서가 면접관의 기억에 남아야 하기 때문에 임팩트 있는 문장이나 포인트가 될 문장을 구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작성이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료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생각지도 못한 오타나 문장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바라보았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타인이 바라보았을 때 이상할 수도 있어서 완성하였더라면 학과 교수님께 보여 드려서 피드백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4학년 때 수시로 교수님께 찾아뵙면서 피드백을 받은 것이 나만의 포트폴리오, 자소서를 완성할 수 있던 비법 중의 하나이다.

• 모의 면접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자

면접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바로 표정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얼굴이다. 면접관이 나를 바라보았을 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웃는 표정으로 답변하는 연습을 많이 했다.

동기들과 함께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모의 면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었다. 실제 면접장의 분위기를 느껴 보고 대처 능력을 빠르게 키울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회사 면접에서 긴장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었다. 혼자서 연습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에 참여를 통해 경험을 쌓는 방법을 추천한다.

조언해 주고 싶은 한마디

코로나19 시대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잘 버티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에는 내가 잘 준비하고 있는지 불안할 수 있지만, 그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부족한 활동을 준비하는 마지막 점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럴 상황이 되지 못한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현재 회사에서 신입으로 입사했을 때,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에 후배분들도 졸업하기 이전에 자신에게 맞는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잘

준비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대학 생활을 잘 즐겼으면 좋겠다.

지난 4년간 졸업을 목표로 열심히 활동도 하고, 동기들과 재미있는 학교생활을 보냈지만,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조기 취업으로 인해 마지막 학교생활을 하지 못한 일들이 후회된다. 어차피 졸업한 이후에 취업을 준비해도 늦지 않지만, 실무 경험을 쌓고 싶어서 일찍 취업을 결정했다. 처음에는 “대학교의 마지막 생활이 기억에 더 남는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알 것 같다. 후배분들은 마지막 졸업을 앞두고 전에 충분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취업했으면 좋겠다.

글을 쓰고 있는 나는 회사에 입사한 지 어느덧 1년 차가 되어 간다.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실수도 잦았고 눈물을 흘리는 시간도 많았다. 신입 때는 실수하는 일이 너무 창피해서 그동안 준비했던 나 자신이 미워질 때가 많기도 했다. 그러나 나중에 내 후배들에게 지금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면 아꼈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더 전문가가 되기 위해 현재 꾸준히 노력하고, 다양한 분들께 배우면서 실무를 익혀 나가고 있다. 아직은 미숙하지만 언젠가 나의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경험을 쌓고자 한다.

나와 같은 직무 유형이 아니더라도 취업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후배분들의 앞날을 응원하면서 나의 글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지름길이 됐으면 한다.

재활복지

사회복지
학과

대학 생활을 통해 발견한 나만의 길

계룡시노인복지관 전OO

글을 시작하면서

나는 올해 3월 계룡시노인복지관에 입사했다. 취업 준비는 마음처럼 쉽지 않았고, 점차 불안감이 느껴질 때쯤 좋은 기회가 찾아와 계룡시노인복지관에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누구보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거나 동아리 및 외부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으며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지금부터 나의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하고자 한다.

1학년, 성적보다는 활동에 집중

소제목처럼 나는 그러지 못했다. 1학년 시절 성적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나는 높은 학점을 받는 것에만 연연했다. 시험 기간이 아닌 날은 그저 친구들과 놀러 다니거나 기숙사에 박혀 SNS나 유튜브만 시청했고, 시험 기간에는 거의 도서관에 살다시피 했다. 극과 극의 일상생활을 보냈던 나는 학점에 나름 만족하고 있었기에 대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았다.

지금의 내가 생각하기에, 이때의 나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러한 생활을 4년 내내 했다면 나는 취업을 준비할 때 자소서에 쓸 내용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고, 분명히 후회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다. 과거의 나라면 성적보다는 활동에 더 집중했을 것이다. 시간이 가장 널널한 1학년 때 해 볼 수 있는 활동은 뭐든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내외 활동,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해 봐야 사회복지가 내 적성에 맞는지부터 확인해 볼 수 있으며, 교수님 혹은 과 선배들과 친분

을 쌓는다면 유익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1학년 때는 성적보다는 활동에 집중하면서 사회복지 경험 및 정보를 쌓고 발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2학년, 관심 있는 분야 찾기

2학년 때는 팀플과 개인 과제가 가장 많은 시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쉴 새 없이 과제가 주어진다. 물론 이 과제들을 다 해내기 위해 스트레스도 받을 것이고 힘들긴 하겠지만, 그만큼 무언가를 많이 얻어 갈 수 있다.

사회복지 관련 분야 및 기관에 대한 조사, 사회복지와 관련된 책 읽고 독후감 작성, 상담기술을 활용한 역할극, 사례에 직접 개입하기 등의 과제를 해 나가면서 실제 현장에 대한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해 볼 수 있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에도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복지는 이론보다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제들이 보통 이론 공부가 목적이 아닌 현장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과제가 많기 때문에 팀플과 개인과제를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기관을 방문할 기회도 가질 수 있고, 각종 분야의 종사자와의 만남도 가질 수 있으며, 실제 이론을 사례에 접목시켜 개입하여 해결해 보는 경험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다.

꼭 팀플과 개인 과제를 통해 관심 있는 분야를 찾으라는 것은 아니다. 나는 팀플 및 개인과제를 통해 찾을 수 있었지만,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교외 활동 등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든 상관없이 3학년 때 진행할 실습을 위해 2학년 때 어느 정도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내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말은 사회복지학과 학생이라면 많이 들어 봤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처럼 관심 있는 분야를 2~3가지 선택하여 실습을 통해 집중한다

면, 이 분야가 나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3학년, 실습을 통한 성장

이 시기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두 번의 실습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하계실습은 장애인복지관에서, 동계실습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했고, 정말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실습 후 한 번 더 실습을 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내가 관심 있던 분야 두 가지를 모두 다 경험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결국 두 번의 실습 덕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이끌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복지가 더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두 번의 실습을 진행하면서 성장한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실습 때는 처음인 만큼 실수가 많았고, 어려웠던 만큼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두 번째 실습부터는 실습에 임하는 태도와 마인드부터 달라진다. 이미 실습을 한 번 경험했었기에 과제가 부여되면 어떤 흐름으로 해결해야 하는지가 보였고, 이전 실습에서 주신 피드백을 적용한 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슈퍼바이저를 찾아가 물어보며 적극적으로 실습에 임했다.

실습을 한 번 하는 것과 두 번 하는 것은 정말 차이가 크다고 생각한다. 혹시 관심 있는 분야가 두 개 이상이라면 실습을 통해 경험해 본 뒤 결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시키면 본인이 생각했던 색깔이나 디자인과 다를 때가 많은 것처럼 우리가 인터넷에서 접해 듣는 사회복지 정보나 아는 지인에게 듣는 정보는 실제 현장과 다를 때가 많다. 그러니 꼭 실습을 통해 몸소 경험해 본 뒤 본인이 느낀 것을 토대로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선택하길 바란다.

혹여 이미 한 분야를 딱 정했다면, 이 분야와 관련된 기관을 여러 곳 찾아 두 번 이상의 실습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실습만큼 본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은 없다.

4학년, 졸업 준비는 미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이론부터 차근차근!

나는 4학년 때 가장 바쁜 시절을 보냈다. 졸업 조건을 채우기 위해 4학년인데도 1 학기와 2학기 각각 17학점과 13학점을 들었고, 토익 점수도 거의 막바지에 점수를 맞출 수 있었다. 가장 먼저 후배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졸업 준비는 미리미리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익이나 독후감은 3학년까지 다 끝내 놓고 학점도 12학점 이상은 남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 그래야 4학년 때 자격증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4학년 때는 전공과목보다는 조금 쉬운 교양과목을 들으며 학점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전공과목을 듣는 것을 추천한다. 사회복지 전공과목은 대부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내용과 겹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전공 수업을 듣고 이론을 공부하며 자격증 공부와 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실제로 사회복지사 1급을 제대로 준비한 기간은 두 달 정도로 4학년 때 들은 전공과목 덕에 이론 공부를 할 시간이 많이 줄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할 때 기출만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몇몇 사람들을 보면 이론 공부 없이 기출문제를 계속 돌리며 풀이를 보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도 이 방법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처음부터 이론 공부를 하게 되었다.

먼저, 이론을 한 번만 읽어도 좋으니 천천히 완벽하게 이해를 하며 정독한 후 문제를 풀고, 맞든 틀리든 풀이를 한 번 더 본다면 이 과정에서 이미 이론 공부를 두 번 하게 되는 것이다. 가장 어려운 과목부터 쉬운 과목 순으로 순위를 매겨 어려운 과목부터 시작하였고, 이후에 기출문제 10년 치를 최소 5번씩은 풀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무조건 졸업과 동시에 따는 것을 추천한다. 실제로 근무를 하게 되면 준비할 시간도 없고, 배웠던 전공 지식들도 모두 증발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고 머릿속에 남아 있을 때 따는 것이 좋다. 또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은 연 1회 있기 때문에 한 번 떨어지면 1년이나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무조건 뚫는다!'는 생각으로 꼭 한 번에 붙을 수 있도록 몇 달만 고생하자!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딪혀 봐야 안다. 이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살아온 인생관 중 하나이다. 두 개의 선택지가 있다면 어느 것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데 시간을 쏟는 것보다는 일단 하나씩 경험해 봐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두 가지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이 두 가지를 다 실습을 통해 직접 경험해 보니 종합사회복지관에 가고 싶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취업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좋은 기회로 계룡시노인복지관에 취업할 수 있었다. 노인복지에 대한 경험이 없던 나에게 경험을 쌓을 좋은 기회이니 일단 부딪혀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노인복지관에 입사하였다. 그 결과, 현재 어르신들과 함께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으며 복지관 체계에 대한 이해도 조금씩 하고 있다.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재밌다는 생각을 하며 근무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니 점차 일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어쩌면 노인복지와 더 잘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한다. 이처럼 뭐든 부딪혀 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에 선택지에 놓이거나 좋은 기회가 있다면 일단 부딪혀 보길 바란다.

행복하고 즐겁게 일하자. 모두들 취업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취업 성공의 유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취업을 한 후 내 자신이 현재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곳에 취업을 한다고 해도 본인이 즐겁고 행복함을 느끼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오래가지 못하고 스트레스만 더 쌓인다. 그러니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본인이 현재 행복함을 느끼며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지 본인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 모두들 파이팅!

재활복지

사회복지
학과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길, 나만의 성장과 도전

아주대학교의료원 이OO

사회복지사로서의 방향 찾기

나는 2022년 2월 졸업하고, 2022년 3월 정신건강사회복지 임상 수련 과정에 들어갔다. 1년간의 과정을 마친 후 현재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는 대학 졸업 이후 끊임없이 성장하고 그 안에서의 변화를 몸소 실감하고 있다.

고등학생 시절 사회복지사를 꿈꾸면서 우리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사회복지 전공을 공부하며 사회복지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배우면서 끊임없이 고민했다. 명확한 나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또 다양한 사회복지의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나의 길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학업에도 열정적으로 임했다.

그러던 중 정신건강 사회복지에 대해서 배우면서 ‘정신건강이 뭘까?’라는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서 우선 교수님과 소통하며 나의 호기심을 하나씩 채워 갔다. 하지만 어느 순간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에 직접적인 경험이 필요했고, 무작정 두드리기 시작했다.

너무도 좁았던 특수 사회복지사로서의 길

전체 국민 4명 중 1명은 전 생애에 걸쳐 한 번 이상 우울 ·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다. 사회가 이렇다 보니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되면서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관련 분야가 아닌 분들에게는 생소하겠지만, 내가 직접 경험한 정보가 같은 길을 준비하는 학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

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일반 1급, 2급의 사회복지사와 달리 정신건강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란, 정신적 · 정서적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어려움은 물론 그 문제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문제, 즉 경제적 · 사회적 문제, 사회 적응의 문제에 대한 개입을 하는 전문 사회복지사이다.

이처럼 그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지만 실제 학부 시절 나와 같은 진로를 설정하고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동기는 드물었고,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건 이미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을 먼저 지나간 선배 및 교수님과의 소통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우선 도전했다.

경험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

난 학창 시절부터 지속해 오던 봉사 활동을 계기로 당연히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우연한 이모의 말 덕분에 막연히 의료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검색을 시작했고, 주변에 관련 정보를 여쭙볼 수 있는 자원들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코로나 이전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예비 의료 ·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에게 정보 전달 및 전공 지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나 또한 본 아카데미를 통해 진로 방향이 구체화되는 주된 계기가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고학년도 좋지만 1 · 2학년들이 함께한다면 진로의 큰 틀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대체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은 '지속적인 봉사 활동'이다. 코로나 이후, 병원에서의 봉사 활동을 구한다는 것이 하늘에 별 따기였던지라 마음이 어려웠다. 그러나 현재, 협회에는 자원봉사자 모집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내가 의료사회복지에서 정신건강 사회복지로 방향을 틀게 된 것도 봉사 활동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 학과 선배의 제안으로 참여하게 된 D 대학병원의 소아병동 환아들을 위한 행사 보조 활동을 통해 의료사회복지사들이 하는 활동의

일부를 경험하게 되었다. 답답한 병원 생활 속, 아이들의 기쁨을 위해 매 순간 진심으로 노력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고, ‘나도 저런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활동을 시작으로 거주지 주변에 있는 모든 병원에 사회복지학과 학부생인 내가 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이 있는지 두드리기 시작했다.

투자하지 않으면 이를 수 없다

나는 ‘경험은 곧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돈도 시간도 아낌없이 투자했다. 먼저, 낮 병동에서 수련 선생님을 도와 운동요법에 참여했다. 주 1회, 왕복 4시간 이동이 쉽진 않았지만 환자들을 만나는 매시간이 기대이자 보람, 그리고 즐거움이었다. 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있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깨어지는 계기들이 있었고, 슈퍼바이저 · 교수님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신건강사회복지사라는 진로를 설정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는 봉사 활동을 하나 더 잡았다. 클럽하우스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정신재활시설에서 1대1 교육을 진행했다. 나는 처음 이곳에 방문했던 그때의 신선한 충격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 또한 방학을 활용하여 경험을 위한 시간을 투자했다. 위의 봉사 활동과 더불어 A 정신병원 안정병동에서 미술요법을 활용한 인지재활훈련의 보조로 활동했다.

나는 3차례의 현장 실습을 진행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더불어 정신재활시설에서의 하계 실습, 학기 중 준사례관리자 양성과정 실습 등이었다. 그리고 학과 내 정신건강 사회복지 동아리(MSG)의 동아리장으로 활동했으며,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충청남도 정신건강 관련 연구에도 학생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나는 졸업과 동시에 수련을 꼭 하고 싶었기 때문에 거주지와 거리 그리고 지역에 상관없이 많은 기관에 지원서를 제출했다. 지원했던 곳 절반 이상의 기관에서 서류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관련 봉사 활동도 중요하지만 여러

폭넓은 활동 중에 자신이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서류에 녹여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학교 수업이 비대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달간의 학기 중 실습과 수련 준비를 병행하기란 쉽지 않았다. 나는 9월부터 자소서 초안을 잡기 시작해 가장 먼저 뜨는 서울대학교병원의 공고가 올라오는 동시에 자소서 첨삭을 시작했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는 수련 준비 시 가장 많이 들어갔던 사이트로, 전국 각지 수련 기관들의 수련생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자소서의 항목은 크게 5가지, 즉 성장과정, 지원 동기, 경력 사항(경력 · 실습 · 봉사 등), 강점 및 약점, 포부로 구분된다.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들이며 대체로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잘 쓴 초안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된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있어서 꿀팁이 있다면

보기 좋은, 읽고 싶은 서류를 만들기 위해 필요 없는 칸은 지우고, 최근 경력 사항이 위로 가게 쓰는 것이 좋다. 그리고 더 이상 보기 싫다고 선부르게 제출하기보다는 꼭꼭 최종 검토(ex. 오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수련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할, ②다른 전문가(의사 · 간호사 · 임상심리사 등)와 어떻게 팀워크를 잘 이룰 수 있을 것인가, ③ 정신건강전문요원을 하고 싶은 명확한 이유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작성이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나는 특별한 스펙이라고 할 것이 없다. 물론 학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고, 봉사 활동도 여러 기관에서 꾸준히 했지만 높은 영어 성적 등은 가지지 못했다. 수련 지원 당시에는 1급 취득자도 아니었다. 그러나 자기소개서에서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가지고 있는 ‘열정’을 잘 녹여 낼 수 있다면 충분히 서류 합격 그리고 최종 합격까지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서류 통과 이후에는 필기 및 면접 고사가 진행된다. 나는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 보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에서 출

제된다. 내가 응시했던 시험은 정신 의학용어(ex. 오용 · 남용, 방어기제, 조현병, 정동장애 등)와 저널 단문 해석 등을 보는 기관도 있었다(간략 해석부터 4장 이상의 논문까지). 기관마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내가 지원했던 기관 대부분은 의학용어 시험을 봤다. 특히 병원이라면 더더욱.

더 나아가서는 정신과적 증상을 가진 환자의 사례를 주고, 실천기술을 활용하여 사정과 개입 방안을 계획하였다. 나는 개입기술, 사정기술, 장단기 계획으로 나누어서 답안을 작성했다. 많이 해 보면 도움이 참 많이 된다. 사례를 기반으로 개입 계획을 세우는 것은 각자의 생각이 상이하기에 수련을 준비하여 근처에 사는 수련 준비생들과 자체 스터디를 하며 사례 분석에 대한 간단 토론 및 토의를 주 1회 정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

부산이라는 타지에서 홀로 수련 과정에 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급성 증상을 가진 정신질환자와 자해 및 자살 고위험 대상자를 다수 접하였고, 개인력을 청취하며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계기를 가지기도 했다. 그러면서 ‘나의 어린 시절, 지금의 상황, 달려온 길’ 등을 비롯하여 내가 어떤 사람이고, 더 나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발전하고 수정해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했고, 슈퍼바이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기적인 피드백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 나와서 근무를 시작하고 보니, 수련을 하며 전인적인 성장을 거듭했던 점, 나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을 기른 것은 소진을 경험하더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취업의 현장에 놓인 후배들에게

“내가 꿈을 이루면 난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된다.” 이 말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자 마음에 품고 다니는 문장이다. 나는 성실하게 매 순간 임했고, 처한 상황을 타하기보다는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에 임했다.

사회복지 분야가 취업난 가운데서도 비교적 수월하게 취업할 수 있다는 하지만, 그 안에서 가치를 찾고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취업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성장을 끊임없이 도모해야 한다. 대학 입학 후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때로는 소진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내가 ‘이 일에서 느끼는 기쁨, 초심, 대상자의 변화’ 등을 생각하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힘들어도 그 순간을 잘 이겨 내어 성실하게 준비하고 꾸준히 도전한다면 원하는 곳에서 기쁨으로 일하는 여러분들이 될 것이다.

선한 일을 위해 학업의 현장에서 힘쓰는 후배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만나요!

재활복지

심리상담
치료학과

작은 기회도, 나의 경력

대전청년내일센터 고OO

글을 시작하면서

제가 느끼기에 저는 우수 취업자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의 경험들이 분명 다른 학우분들을 실제 우수취업자로 만들어 줄 것이라 믿고 이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저의 경우, 직무 분야가 사업기획 및 진행이기 때문에 기획 취업 시에 도움이 되는 내용 위주로 작성했습니다. 기획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저의 글이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경험은 다다익선

취업을 하기 전에는 “자격증이 다다익선일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취업 플랫폼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뜨는 자격 요건이 자격증과 과거 경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격증이 없고 해당 직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자격 요건을 보고 취업을 쉽게 포기해 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자격증과 경력 외에도 입사할 때 중요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 취업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이 경험이 지원하는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잘 풀어내는 능력”이다. 물론, 취업을 하는 데 자격증과 과거 경력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동시에 들어온 신입 중 정말 이 회사가 처음인 신입은 나뿐이었다. 그러나 나처럼 나의 경험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잘 기록한다면, 분명 그 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다익선인 경험 정리하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은 경험을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험을 하고, 이를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간은 기록하지 않으면 경험을 쉽게 잊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 학과에 입학하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을 하고 싶어 했고, 이에 맞춰서 나의 경험을 기록했다.

나는 3가지 방법으로 나의 경험을 기록했다. ① 엑셀을 활용해서 활동 이름, 활동 기간, 활동에서 내가 했던 역할, 느낀 점을 기록했다. ② 동아리, 대외 활동을 통해 기획했던 문서들을 보관했다. ③ 자격증들을 모아 보관했다. 그리고 ①, ②, ③을 한 번에 모아 파일로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활용했다.

이렇게 경험을 정리하면, 나의 경험들을 놓치지 않고 이력서에 활용할 수 있으며, 면접 시에도 자신 있게 나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 결국, 내가 차근차근 쌓아온 경험들을 잘 기록하면, 그것 또한 자격증과 경력 못지않은 스펙이 될 수 있다.

취업에 필요한 건? 경력 vs 자격증

부먹 vs 짬뽕 급으로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게, 바로 취업에 필요한 게 경력인지 자격증인지에 대한 것이다. 우리 회사를 기준으로 말하면 자격증이 없지만 해당 분야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과 경력은 없지만 해당 분야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 전자를 더 선호한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들에게는 쓸쓸한 일이겠지만, 실제로 내가 일을 해 보면 확실히 경력직과 경력이 하나도 없는 자는 업무 숙련도에서 많은 차이가 나며, 조직 적응도에도 많은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회사들이 중고신입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회사에 지원하려고 할 때 자격증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력이 있는 사람들과 나란히 경쟁하기 위해서는 “나 이런 자격증 있어요.”에서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자격증을 활용한 경험’이다.

예를 들어, 기획 분야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문서작성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다. 이때, 문서 작성 능력을 위해 필요한 컴퓨터 자격증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성한 기획안도 있어야 내가 문서 작성 능력을 가졌다고 증명할 수 있다. 나의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동아리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작성했던 기획안을 첨부 자료로 넣었다.

물론, 현재 수많은 기획안과 결과보고서, 공문을 작성한 후에 보니 부족한 점이 많은 기획안이었지만, 결국 기획안을 작성해 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에 문서를 작성할 때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는 이미지를 회사에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즉, 자격증보단 경력이 더 중요하지만, 자격증과 이에 맞는 경험을 만들 수 있다면 이도 경력만큼이나 취업에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력서는 회사 입맛에 맞게

그러나 기록한 나의 경험이 모든 회사에 쓸모 있는 것은 아니다. 기록한 나의 경험이 쓸모 있는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이력서를 회사 입맛에 맞게 잘 녹여서 써야 한다. 나의 경우, 회사를 지원할 때 회사 홈페이지를 꼼꼼하게 읽으며 회사의 포토 폴리오를 확인하고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 지향하는 방향을 살펴봤다. 이렇게 회사의 니즈를 파악하고 나의 경험 파일에서 회사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경험을 선정해서 적었다.

면접 시 PT 실력은 필수!

내가 근무하고 있는 기획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는 근무자의 PT 실력을 중요시한다. 그 이유는 어떤 직무에서든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하며, 이로 인해 동료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 + 경험 혹은 경력을 이력서에 작성하였다면, 면접 시에는 나의 PT 실력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면접 대비 연습뿐만 아니라 대외 활동 및 발표

경험을 통해 나의 PT 실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조별 과제에서는 주제를 선정하고, 역할을 분담하며, PPT를 제작하고, 이를 정리하여 발표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나의 PT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실제로 대학에서 학습하는 내용 중 조별 과제는 실제 회사의 업무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지라도 이를 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양대학교 학우분들에게

나는 학과 생활을 하면서 대외 활동과 공부밖에 하지 못했고, 전략적으로 취업을 준비하지 않아서 이 글을 읽는 많은 학우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걱정과 함께 이 글을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취업 후기를 쓴 이유는, 취업을 준비하는 건양대학교 학우 여러분께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였다. 현재 우리는 취업난과 인력난이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남들보다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경쟁시대에 지치고 있다. 이 와중에 인터넷에 존재하는 많은 말들은 취업 준비생을 더 혼란스럽고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취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직업이 있고, 기회는 내가 열심히 살아온 어느 날 찾아온다는 것이다. 나에게서는 내 첫 취업처도 우연히 찾아온 기회였다. 취업 공고를 보다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업무의 공고를 보게 되고, 나의 몇 없는 경험들을 옥여넣으며 이력서를 쓰고 서류 합격 후 면접을 보았고, 이 과정에서 팀장님이 나를 좋게 봐줘서 입사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입사할 때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엄청나게 많이 따 뒀던 자격증도 아니고,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높였던 학점도 아니고, 수많은 대외활동 경험도 아닌 동아리에서 작성했던 기획안 하나였다. 이 기획

안 하나가 내가 꿈꿔 왔던 사업기획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끌었고, 지금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내가 꿈꿔 왔던 기획을 A부터 Z까지 배울 수 있도록 만들었다.

취업에 대해 고민이 정말 많다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다. 나조차도 아직도 공부를 하면서 나에게 더 잘 맞는 기획 분야에 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에 있어서, 다른 걱정을 하기보단 일단 부딪혀 보면서 경험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양대학교 학우가 되기를 희망한다. 스스로 한계를 만들고 도전도 하기 전에 포기하지 않는 것도 바라고 바란다.

이 세상에 완벽한 취준생은 없고, 여러분이 들어갈 회사에 완벽한 직원도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 완벽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 왔고,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할 뿐이다.

여러분이 학벌, 학점, 자격증, 대외 활동의 부족을 이유로 미리 취업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나의 취업 수기를 읽은 모든 분들이 우수취업자가 되어, 또다시 건양대학교 2024년도 취업스토리북에 글을 작성해 건양대학교 학우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희망한다.

재활복지

심리상담
치료학과

나의 취업 스토리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이OO

글을 시작하면서

ENTP로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에 입학하여 INTP를 거쳐 현재 ISTP가 되어 버린 사람이다. 특별하다면 특별했고, 평범하다면 평범했던 그런 대학 생활을 경험했다. 약 7년간 논산에서 부대끼며 학교 언론 동아리였던 학보사에서 수습 기자 생활을 했다. 또한 심리 관련 전공을 통해 군 복무 기간 동안 그린캠프에서 관심병사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을 케어하는 상담병으로 생활했다. 전역 이후에는 복학하여 졸업 전까지 도서관 근로와 학업을 병행하며 나를 열심히 살아온 것 같다.

그런 환경 속에서 “너는 참 진실한 사람이다.”라는 말과 함께 항상 북돋아 주시며 대학 시절 동안 꾸준한 관심을 보여 주신 김승중 교수님과 혼란스러울 때마다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안세운 교수님께 큰 감사를 표한다. 또 졸업한 이후에도 종종 연락을 주시며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영상 교수님께도 마찬가지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적절한 선택을 통해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었고, 전공과 관련된 취업을 경험함으로써 나의 사례를 후배님들에게 소개하며 조금이나마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다.

대학 생활 내내 취업 걱정은 해 보지 않았던 것 같다. 참 무지했고, 무모했던 것 같다. 그냥 ‘되는 대로 되겠지.’, ‘어떻게든 흘러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지만, 막상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먼저 취업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동기, 후배와 스스로 비교하며 절망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었

다. 물론 나 역시 졸업 후 3개월 후에는 취업을 할 수 있었고, 짧은 인턴 생활을 경험해 보았다.

나의 이야기를 소재로 작성하였기에 무조건 이 글에 나온 정보들이 옳다가 아닌, 이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구나 하고 받아들여 주면 정말 감사하겠다.

심리상담치료학과, 선택에서 학교생활까지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도서관에서 심리학 관련 도서를 접하게 되었고, 당시 쓸데 없는 걱정과 상상을 하며 불안했던 마음을 책 한 권으로 다스린 경험(불안하고 걱정되는 상상을 떠올린 후 열기구에 태워 날려 보내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심리학에 관심이 생겼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시점에 학교에 상담 선생님이 새로 부임하였고, 호기심을 가지고 매일 찾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의 직업은 상담 선생님이다.’라고 다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충남에 있는 심리학 관련 전공이 있는 학교에 입학원서를 넣었고, 가장 먼저 합격 소식을 알려 준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다.

기대와는 달리 1, 2학년 때의 나는 학과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것 같다. 특히 중 · 고등학교 때 읽던 심리학책들과는 깊이감이 다른 전공의 이론들에 어려움을 겪었고 정신분석, 행동주의, 게슈탈트, 인간중심, 인지치료 등등 생소한 이론들을 모두 암기해야 하는 현실에 ‘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전공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 게다가 학교 언론기관인 학보사에서 수습기자로 활동하고 있어 학과 생활보다는 동아리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그러던 중 학보사 활동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교직 이수 신청 기간을 놓치게 되었는데, 이후로 군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 생각 없이 대학에 다녔던 것 같다.

그렇게 군 입대를 하였고, 심리상담치료학과에서 공부를 했다는 이유로 관심 병사들에게 관리 · 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그린캠프에서 면접을 통해 상담병으로 차출되어 약 1년 8개월 동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

를 얻었다. 그린캠프에 입소하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차이를 직접 느낄 수 있었고, 작은 관심과 인정으로도 타인에게 큰 힘을 제공하는 경험들이 쌓여 가며 전공에 대해 다시 흥미를 찾을 수 있었다.

전역을 한 후에는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였고, 드디어 복학을 하게 되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학교생활은 굉장히 쓸쓸하였지만 복학 후 내내 도서관 근로를 하며, 남은 시간에는 전공 및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공부량을 늘리니 자연스레 학점도 만족스럽게 따라왔으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지역의 장학생이 되는 등 많은 성취감을 경험했던 시기였다.

졸업이 다가올 때면 우리 학과 특성상 대학원 진로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데, 나 또한 당시 연구 장학생을 통해 건양대학원 진학을 계획했다. 그러나 취업을 먼저 해 보고 이 분야가 나에게 맞는지 확인을 한 후 대학원에 진학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졸업 이후에는 취업을 준비했다.

자기소개서엔 나의 경험을 녹여 내야

졸업 후 취업에 대한 압박을 느끼지 않고, 그동안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해 온 나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는 보상심리 때문에 취업 준비를 처음 2달 동안은 소홀히 했다. 그렇게 모아 둔 돈을 다 써 갈 때쯤 현실을 자각하였고,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했다.

우선 2군데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다. 처음 썼던 입사지원서는 지금 생각해도 엉망이었는데, 경력직을 뽑는 공고에 지원하였고, NCS 기반의 자기소개서가 아닌 진술한 일기 같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 또한, 나를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기관으로 직접 찾아가 서류를 제출했다. 결과는 당연히 서류 전형에서 탈락이었다.

나는 이 과정에서 후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입사지원서에 써야 할 내용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과거 팀에서 프로젝트나 과제 등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타 팀원과 이견이 있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에서 나를 채용할 사람의 입장이 되어 이 질문을 통해 지원자에게서 무엇을 얻어 내려 하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였고, NCS를 기반으로 직무에서 요구하는 소양이 무엇인지, 이런 소양을 통해 나의 경험을 녹여 낼 수 있는 에피소드로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였다.

이후 대학원에 다니던 친구에게 충남청소년진흥원에서 공고가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벼운 마음으로 입사 서류를 작성했다. 처음 썼던 자기소개서와는 달리 질문들을 몇 차례씩 곱씹으며 면접관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고, 이에 대한 진솔한 경험들을 녹여 제출했더니 신기하게도 서류 전형에 통과하였고, 다음 면접 일정을 안내해 주는 문자를 받을 수 있었다.

자기소개서는 일면식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글로, 읽는 이로 하여금 호기심이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재나 질문에 대해 참신한 해석을 하여 읽고 싶게 만드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자기소개서를 읽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작성한다면 좋은 자기소개서가 탄생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본다.

면접은 자신감이다

나는 진짜 극 I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꺼리는 사람이다.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는 발표 수업 등 꼭 필요한 상황에선 이야기하지만, 그런 상황이 오면 무척 긴장하고 머리가 새하얘지는 내가 면접을 봐야 한다니 산 넘어 산이었다.

나는 평소에 엄청 편하게 옷을 입는 사람이라서 면접을 위해 새로운 옷을 구입했다. 스파 브랜드에서 간단하게 흰 셔츠와 와이드 슬랙스를 준비했고, 캐주얼하면 서도 사무적인 느낌의 신발까지 구입했다. 또한 면접을 보기 전까지는 매일 한 번 씩 자기소개서를 정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친구가 “너 자기소개는 어떻게 할 거야?” 하는 질문에 쉽게 대답하기 어려웠던 모습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 즉시 1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간결하면서도 경험을 살리며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자기소개에 대한 글을 작성하고, 이를 암기했다.

그렇게 면접 당일이 찾아왔고, 면접관님들의 질문이 있었다.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를 요구했고, 인생을 살면서 상담과 관련하여 가장 인상 깊은 경험에 대한 질문과 전공적인 질문, 그리고 예시를 주시며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결하겠냐는 질문들을 받았다. 자기소개와 경험에 대한 질문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침착하게 답변할 수 있었지만, 매우 긴장한 상태에서 전공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아는 것도 까먹게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음에도 직접 경험하니 아찔했다.

이에 생각이 나는 대로 대답하였고, 추가로 알지 못하는 내용에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고, 후에 더 공부해서 다시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면접을 마치고 나서는 ‘아, 망했다.’라는 생각을 수없이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그 후에는 빠르게 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최종 합격 공고를 확인해 보니 나의 수험번호와 이름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후일담이지만 면접을 본 팀장님께서는 나의 옷을 보고 “저렇게 면접을 보러 온 사람도 있구나.”라며 놀랐었다고 한다. 다음 면접 때는 더 꼼꼼히 옷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면접은 자신감인 것 같다. 주눅 들지 않고 준비한 대로 잘 해내면 참 다행이지만,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유연하게 잘 대처한다면 좋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 물론 나도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면접관들도 우리와 같은 경험을 거쳐서 성장한 사람들이다. 너무 그들의 아우라에 압도되지 않고, 그들에게 본인다운 모습을 표출하여 후회 없는 면접을 보면 좋겠다!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 주고 싶은 말

나는 이 글을 통해 이런 사람도 전공을 살려 취업하였으니, 나보다 훨씬 훌륭한 후배님들도 충분히 취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스스로가 정한 길에 대한 확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처음 가는 길에 이 길이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잠시 쉬어 가며, 주변의 조언도 들어 보고, 스스로 결정하며 나아가면 된다. 정답은 없다. 모든 길에는 배울 것들이 존재하며, 설령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이라 하더라도 틀린 길이 아니다. 또한 남들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 수업은 이래서 어렵대, 저 수업은 과제가 많대.” 하는 불평에 휩싸이면, 목적지를 잃고 헤매게 될 수도 있다.

후배님들께서는 꼭 대학 시절에 진정한 ‘나’를 발견해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각자의 행복을 위해 달려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모두 타인의 삶에 안녕을 바라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때문에 항상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자신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좋은 에너지를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보자.

지금까지 긴 글을 읽어 줘서 감사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었으면 좋겠다. 멀리서 응원하겠다.

재활복지

초등 특수
교육과

당신의 내일을 응원해요

대구 달서초등학교 임OO

여는 글

마음속으로는 특수교사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지만, 정작 특수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들에게 이 글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안녕? 특수교육과

특수교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대학교 입학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 사실 나는 동기들처럼 학창 시절 때부터 특수교사를 꿈꾸던 사람은 아니었다. 오히려 대학교에 입학하여 특수교육을 알아 가기 시작한 이후부터 특수교사의 매력에 푹당 빠지게 된 경우다.

학과 공부를 하며 다양한 장애영역을 알아 가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 수업실연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힘들었던 만큼 귀한 경험을 얻었으며, 진정한 특수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나누었던 학과 동아리 시간 또한 크고 작은 깨달음을 주었다. 교생실습은 이러한 깨달음이 꽃을 피우는 화룡점정의 시간이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4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서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는 물론, 특수교사가 되어 현장에 나왔을 때에도 귀중한 열매로 나타나 주었다. 만일 학과 생활을 대충 했었다면, 지금의 결과는 얻지 못했을 거라 확신한다. 지금부터 지난 4년 동안 대학 생활을 하며 학년별로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생활하였는지, 임용고시는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 하나씩 나누어 보고자 한다.

1~2학년 이야기: 보이지 않아도 쌓여요!

1~2학년은 대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재밌는 것도 너무 많고, 전문용어가 난무하는 전공 서적이 어렵게만 느껴질 때이다. ‘1~2학년 때까지는 마음 편히 놀고 3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졸업하자마자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싶다면, 이 시기부터 기반을 다져 놓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1~2학년 시기를 즐기면서도 끝까지 놓지 않고 가져간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 강의 시간 꼭 잡기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은 그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다. 1~2학년 시절엔 시험 기간을 제외하고, 강의 시간 외에 공부한 기억은 크게 없으나 강의 시간에는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강의 시간은 특수교육학 이론에 대해 한 번씩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이며, 교수님들께서 강의 중 해 주시는 말씀은 나중에 어디에 가서도 들을 수 없는 좋은 정보들이다. 강의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하여 임한다면 각 장애 영역에 대해 한 번씩 훑어보고 익숙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 나만의 공부법 탐색하기

임용고시를 준비하다 보면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많이 볼 수 있다. 나 역시 고등학교 때는 나의 공부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지 못하여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기에 본격적으로 임용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나를 먼저 파악하리라 다짐했었다. 대학교의 크고 작은 시험을 거치면서 나의 공부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장점은 ① 문맥 파악과 요약 잘함, ② 목표 의식이 있을 시 높은 집중력을 보임, ③ 경쟁 상황에서 높은 효율을 보임 등이 있었다. 그에 비해 단점은 ① 비교적 짧은 집중 시간, ② 목표 의식 저하 시 낮아지는 집중력, ③ 좋지 못한 기억력 등이 있었다.

앞선 장점들을 살려 나름의 목표와 경쟁 구도를 설정하여 동기를 높였고, 전공 서적 요약 등을 통해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다. 또 단점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마다 공부 환경 바꾸기, 단기목표 세우기, 시험 범위 짧게 나누어 반복하기 등의 보완 방법을 찾았다. 이렇게 자신만의 공부 패턴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험을 준비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1~2학년 시기에 이 두 가지는 꼭 가져가려고 노력했고, 이러한 노력은 3~4학년이 되었을 때 빛을 발할 수 있었다.

3~4학년 이야기: 후회 없이 달려요!

3학년 때부터 나의 목표는 한 가지였다. 첫 임용고시에 합격하기.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3학년 초부터 목표를 설정하여 꾸준히 달려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세 단계로 줄여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다.

• 1단계, 임용고시와 친해지기

임용고시와 친해지는 것은 모든 임용 공부의 시작이라 말할 수 있다. 3학년 1학기가 되자마자 임용고시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임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합격을 위해 적절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나의 경우 공부 과정을 잘 알고, 장단기 목표를 세우는 것이 능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더욱 필요했다.

임용과 친해지기 위해 가장 먼저 한 것은 ‘합격자 수기를 10개 이상 읽어 보는 것’이었다. 먼저 가벼운 마음으로 바로 작년에 합격한 따끈따끈한 합격 수기를 찾아 찬찬히 훑어보며 임용고시의 전반적인 공부 흐름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는 많은 후기 중 나와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혹은 가장 잘 쓰인 것 같은 후기를 두세 개 정도로 추려 반복해서 읽어 본 후 이를 적절히 수정하여 나만의 1년 커리큘럼을 세웠다. 커리큘럼을 세울 때는 분기별로 나누어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다. 큰 틀을 먼저 세우고 이후 세부 계획을 추가하는 방식이었다.

물론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면서 초기 계획이 꽤나 많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초기 계획은 1년 동안의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이다(참고로 2차 시험 계획은 1차 시험 이후에 여유롭게 세웠다).

• 2단계, 일단 시작하기

임용이라는 것이 너무 긴 여정처럼 느껴지고 앞이 캄캄해 보여도 당장 한 달 목표를 세우고, 일주일 목표를 세우고, 하루 목표를 세워서 하루하루 해 나가면 된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 1년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당장 1년의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은 내려놔도 좋을 것이다.

나의 경우 3학년 여름방학부터 기본 이론을 공부했다. 정확히는 훑어보았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부담 없이 내용을 살펴본 후 3학년 2학기부터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했다. 미리 작성해 둔 공부 계획에 따라 하루하루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갔다. 공부 날과 쉬는 날을 정해 패턴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다. 너무 힘든 날은 공부를 덜하기도 했지만, 아예 책상에 앉지 않은 날은 드물었던 것 같다. 쉬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설정한 규칙은 최대한 지키는 것이 좋다.

• 3단계, 잘 다독이기

사실 임용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나와 싸우는 일이었다. 임용이라는 시험이 주는 불확실성은 1년 동안 끈질기게 나를 괴롭혔고, 후반으로 갈수록 강도는 더욱 세졌다. 이를 잘 버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의 경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1시간 산책하기, 쉬는 날에는 걱정 없이 폭 쉬기, 일기 쓰기,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기 등의 방법을 썼다.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구를 만들어 놓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임용을 파악하고, 열심히 뛰어들고, 나의 몸과 마음을 잘 다독여 가며 준비하면 후회 없는 1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임용고시 이야기, 나만의 꿀팁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깨달은 몇 가지 꿀팁을 적어 보고자 한다.

• 자투리 시간 활용하기

사실은 나 역시 임용 공부를 하기 전에 자투리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체감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투리 시간의 힘을 안다. 나의 경험을 나누어 보겠다. 대학 시절, 통학생으로서 4년 내내 통학버스를 이용한 기억이 있다.

임용 준비를 시작하며 통학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고,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었다.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시간 50분, 오는 시간 50분이 걸렸다. 2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장특법이나 총론을 반복해서 읽었다. 법총론의 경우 따로 시간을 내기 귀찮거나 아깝게 느껴져서 미루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통학 시간을 활용하니 큰 도움이 되었다.

이외에도 하반기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산책할 때 법이나 총론, 또는 잘 외워지지 않는 개념 등을 휴대폰에 녹음하여 이어폰으로 반복해서 들었다. 이렇게 10분, 20분이 하루하루 쌓이니 꽤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나만의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큰 스트레스 없이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스터디 활용하기

나는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활용한 케이스이다. 1차 시험 때만 해도 ① 초과정 밴드 스터디, ② 특학 기본 이론 훑어보기 및 암기 스터디, ③ 법총론 스터디, ④ 점자, 지문자, dsm-5, 진단도구 스터디 등 4개 이상의 스터디를 운영하였다.

스터디의 장점은 ① 매일매일 반복 학습 가능, ② 강제성에서 오는 동기 향상, ③ 모르는 개념 수시로 점검, ④ 정서적 안정 등이 있다. 이 중 4번의 정서적 안정은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임용을 준비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더 외롭고 힘들다. 하루 일과 중 죄책감 없이 친구와 목소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스터디 시간뿐일 것이다. 임용 시절, 친한 동기와 함께 매일 한 시간씩 특수교육학 암기 스터디를 하며 외로운 공부 시간 속에서 동질감을 느꼈고 더불어 스트레스 해소까지 할 수 있었다.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한 뒤에 스터디가 잘 맞다고 생각하면 주저 없이 스터디를 활용해 보기를 권한다. 자신이 스터디를 운영하는 것도 책임감과 주도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역시 추천한다.

• 나만의 커리큘럼 완성하고 점검하기

임용 공부를 하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종종 있다. 또 길을 잃지는 않을까 걱정될 때도 많다. 그렇기에 내가 지금 시험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완성한 초기 공부 계획에 따라 잘 공부하고 있는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점검해야 한다.

또 합격생들의 합격 수기를 점검하여 꼭 필요한 것들 중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확인하면 좋다. 합격생들이 한 방법을 모두 따라가는 것은 독이 될 수 있지만, 많은 합격생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월말이나 월초 등 적절한 시기를 정해 주기적으로 한 달 계획을 점검하고 수정한다면 공부 방향을 잃어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꿀팁들을 유심히 보고 나의 공부 방식에 적용해 보는 연습을 해 볼 것을 추천한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나는 걱정하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사람이다. 임용 공부를 시작하기 전부터 ‘내가 이 산을 넘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앞이 막막하고 암울하게 느껴지던 것이 아직 생생하다. 그렇지만 꼭 합격하고 싶다는 다짐 아래 하루하루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갔고, 결국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다.

무섭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나의 결과는 오로지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을 믿고 한 발 내디뎌 보았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열심히 가다 힘들 때는 잠시 속도를 줄여 천천히 걸어가도 좋다. 여러분의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AI·SW융합

사이버
보안학과

기회를 잡아라

신한DS 이OO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시기

대학 입학은 다양한 경험의 시작이다. 대학 생활은 사회적 스킬을 키우는 데 필수적인 시간이며, 팀워크와 인간관계 능력은 나중에 회사 생활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대학 1학년 때에는 동아리, 학술 소모임, 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다. 또한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사람들과 친분을 다지고 연결 고리를 만들면 취업 시에 유용한 정보와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 1학년 때의 경험을 통해 팀 활동 및 인간관계 구축 능력을 키우는 것은 나중에 회사 생활에서 성공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능력을 발전시키는 과정 중 하나이다. 이어서 인간관계 구축의 중요성과 취업을 위한 전략을 나의 취업 경험 스토리를 통해 소개하겠다.

가능한 다 도전해 보라

대학 생활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학교와 학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해 보는 것은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학과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을 경험하고 상장을 획득할 수 있다. 상장을 받지 못하더라도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취업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사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활동 기회가 제공되며,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좋은 준비이다. 예를 들면 학과에서 진행하는 K-CTF 및 학술제 등이 있다. 때로는 외부 활동인 K-Shield Jr, Best of the Best 등을 찾아보며 시도하는 것이 내부 활동보다 더 많은 공부 및 지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외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다들 똑같이 하는 말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또는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시작하고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 처음에는 경험이 부족해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 수 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양한 프로젝트에 도전한다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일단 신청해서 도전했으면 한다.

나도 복학 후 도전하자는 생각으로 외부 프로그램에 지원해 합격하여 활동했다. 처음에는 동기들과 능력 차이가 많이 나서 어려웠지만, 동기들이 많이 알려 주고 다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니 나도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었다. 그뿐 아니라 프로젝트를 하면서 교수님이 내주신 과제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렇기에 과제를 수행할 때에도 단순히 제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고 학습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부족한 실력이 향상되고 원하는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할 때에도 시간 낭비라거나 귀찮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보면 좋겠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실력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도전의 기회가 계속해서 열릴 때마다 기회를 잡는다면 자신의 열정과 노력은 결국 큰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취업 성공을 향한 고민과 노력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장애물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이다.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는 많은 후배들을 위해 두 가지 조언을 하겠다. 취업은 어렵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느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자격증이 없다고 포기하

지 말고, 현재 자기 자신의 상황에 집중해 봤으면 한다.

• 자격증 준비와 자기소개서 작성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격증 없이도 취업이 가능하다. 현재 자신이 자격증을 따기에 적합한 시기인지 확인하고,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계획을 세워 보면 좋겠다. 그 후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미리 예상 질문에 대비해 좋은 자기소개를 작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보통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질문을 보고 생각나는 대로 작성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소개서는 면접을 생각하며 작성해야 한다. 나에게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켜 면접관이 내가 원하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면, 면접관이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을 고려해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좋다. 이러한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은 다양한 미디어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한번 찾아보는 걸 권장한다.

• 면접 대비

자기소개서를 통과했다면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 어려워하는 면접이 남아 있을 것이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면접 예상 질문들을 뽑았겠지만 그래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주변 친한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자신의 경험으로 쌓아 가며 노력하면 합격할 수 있다.

내가 느낄 때 면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실제로 이제는 실무 면접보다 인성 면접으로 변경되고 있는 추세이다. 내 경험을 말해 주자면, 나는 면접에서 대답은 잘하지 못했지만 면접을 보고 난 후 여기서 합격자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이유는 면접에 들어가고 나올 때 나만 인사를 했으며, 면접 볼 때에도 자세를 잘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겠지만, 실제 면접에서는 자세를 빼딱하게 앉고 말투를 세게 하는 지원자들이 많다. 그렇기에 면접에서 예의를 잘 지킨다면 면접관분들도 나를 좋게 봐주신다. 그렇게 나는 안정권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면접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면접관님들은 경험이 많아 지원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다고 들었다. 그렇기에 면접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솔직하게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인정하고 나중에 대비책을 말한다면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선배들과 친해져라

선배들과의 친밀한 관계는 취업에도 도움이 된다. 선배들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배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 다양한 회사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실제로 나도 선배들에게 연락해 회사별로 장단점을 알게 되었고, 현재 내가 취업해 있는 회사 분위기 및 신입 공채 채용 공고를 알게 되어 지원했다.

이렇듯 선배들과 친분을 쌓는 것은 학교생활을 더 즐겁게 하고 성적을 향상하는데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취업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므로 꼭 친해져 좋은 정보를 얻으면 좋을 것 같다.

원하는 분야 찾기

취업을 앞두고 자신에 맞는 분야를 찾기보다는, 관심 있는 분야를 미리 정하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여 준비해야 한다. 내가 후배들을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질문은 “어느 분야로 갈 것인지 정했냐?”라는 것이다. 같은 전공이라 하더라도 일하는 방향성이 매우 다르므로 자신에 맞는 분야를 빨리 찾아야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별로 다르겠지만, 간단하게 분야별로 설명해 보겠다. 관제, 운영, 포렌식, 컨설팅으로 취업을 많이 하는데 ‘관제’는 실시간으로 서버에 들어오는 트래픽을 24시간 확인해 공격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공격이 들어올 시 빠르게 대응한다. 24시간 대응해야 하므로 보통 2:3교대로 일하기 때문에 야간에 근무가 있을 수도 있다.

‘운영’은 기관에서 관리하는 서버에 대한 정책들을 설정하여 서버가 이상 없이 돌아갈 수 있게 관리한다. 고도화 시 업무 시간에는 진행하지 못해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저녁 시간을 활용하기에 야근이 많다.

‘포렌식’은 사라진 자료들을 복구하는 작업이다. 포렌식은 사람 능력에 따라 복구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내용 복구 현황도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컨설팅’은 내가 하는 업무로 정보통신기반시설과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기준으로 취약점을 진단하는 업무이다. 컨설팅은 기술/관리 컨설팅으로 나뉘는데, 기술 컨설팅은 모의 해킹 및 인프라 취약점 진단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 컨설팅은 ISMS 및 개인 정보 진단 업무를 수행한다. 컨설팅은 고객사에 나가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외근하므로 돌아다니는 걸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

분야별로 하는 일과 특성을 조사하여 내가 어느 분야에 잘 맞는지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여 3·4학년에 현장 실습으로 현업에서 적성이 맞는지 확인하면, 원하는 취업 자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취업 준비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했다. 위에서 말한 내용은 실제로 내가 대학 생활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하며 느꼈던 것들로 작성했으며, 대학 생활을 즐기며 꾸준히 취업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기회는 모두에게 오지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후배님이 되길 바란다. 후배님들의 모든 경험은 취업 준비에 있어서 계속해서 도움이 될 것이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살려 원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들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경험을 살려 좋은 곳에 취업했으면 좋겠다.

창의융합

글로벌
의료뷰티학과

미래를 준비하는 학문과 경험의 조화: 발전하는 사람이 되다

(주)에스엔제이 류OO

다양한 경험의 필요성

취업 스토리북 제안이 들어왔을 때, 나의 대학 생활에서 후배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대학 생활을 했었다고 생각되었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나의 취업 스토리를 적어 보려 한다.

나의 직장 생활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시작되었다. 3학년 2학기가 끝난 직후인 12월, 교수님의 추천으로 현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고 4월에 합격 연락을 받았다. 합격 직후 5월부터 출근하여 현재 의료기기 임상 교육실무자로 근무하고 있다.

나는 남들보다 일찍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취업 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4년의 대학 생활을 2년도 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도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후배들이 한 번뿐인 대학 생활을 제대로 즐겼으면 좋겠다. 대학 축제, 체육대회, 연애, 술자리, 공모전, 동아리 등 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최선을 다해 즐기기를 바란다.

1학년은 신입생으로 학교에 적응하고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래의 나를 위해서 학점을 미리 채워 두는 것이 좋다. 우리 학교에는 졸업 조건을 준비할 수 있는 수업이 있다. 수업을 통해 ITQ 자격증을 미리 취득해 둔다면 3학년이 되었을 때 부담감이 덜할 것이다.

실무 능력을 향상시켜 준 학회장 활동

2학년의 나는 장학금에 목이 말라 있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1년 동안 과대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과대 경험은 나에게 책임감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학과 교수님을 도와 수업 준비를 돕거나 학생회를 돕는 등의 업무를 하면서 학생회, 대의원회와 같은 활동에도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학교와 학과에서 활동이 가능한 대의원회에 지원하려 했으나 동기·선배들의 추천으로 학과 학회장에 지원하게 되었고, 당선되어 3학년의 나는 1년 동안 글로벌의료부티학과를 이끌게 되었다.

학회장으로서는 나의 주요 업무는 학과를 대표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과 운영 및 행사를 기획하여 학생들의 학과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었다. 꽤나 무거운 직책이었으나 생각보다 일이 적성에 맞아 학회장으로 활동했던 1년이 매우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코로나19로 학과 행사를 진행하기에 제약이 많았지만, 임원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실무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었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되었다. 특히, 가장 의미 있었지만 동시에 힘들었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그 활동은 1년 중 가장 중대한 행사인 ‘학술제’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학술제는 원래 학과의 전 학년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되는 것이었지만, 코로나19의 인원 제한으로 인해 전 학년이 모이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학년별로 학술제를 진행해야만 했다. 또한 학술제를 경험하지 못한 후배들을 위해 기존과는 다른 축제 형식의 행사를 기획해야 했다.

우리는 백지상태의 학술제를 차례대로 채워 나가기 시작했다. 학술제의 꽃인 학술발표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축제의 느낌을 내기 위해선 부스가 필수적인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행사를 진행해야 할지 등 모든 내용을 토론하고 논의하여 정했다.

부스는 학생회 임원들이 직접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주었고,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전시와 부스를 방문할 수 있는 스탬프 투어를 기획했다. 결과적으로 학술제는 교수님 · 학우들의 호평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학회장 활동은 다양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하나의 조직을 관리하는 등의 실무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 경험은 내가 취업 준비부터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주었다. 신입으로 입사했지만 경력직처럼 일하는 것 같다는 칭찬이 이를 증명하는 것 같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연관된 스펙을 준비하자

3 · 4학년이 되면 어떤 직무에서 일하고 싶은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나는 회사에 들어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 중에서도 피부 전공을 살린 교육직에 종사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 자격증 취득하기

전공 수업 중 기능성 화장품 수업과 의료 미용 실무 수업을 들으면서 의료 미용과 화장품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대한 전공 지식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 3학년 여름 방학 동안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자 자격증을 준비해 합격했다. 나는 이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화장품의 원료와 그에 대한 효과를 자세히 알게 되었다. 이러한 전문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여 의료기기와 화장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피부 미백을 개선하는 프로토콜을 작성하고 의료 전문가들에게 권장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컴퓨터 활용 능력 갖추기

현대 사회에서는 컴퓨터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회사에서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여러 가지 문서 작성, 데이터 관리,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컴퓨터 작업이 요구된다. 따라서 컴퓨터의 기본적인 활용 능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학교

의 교양 수업에는 ‘컴퓨터I 문서작성’이라는 수업이 있다.

이 수업은 컴퓨터 활용 능력의 기초인 ITQ 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주는 수업이며, 졸업 조건을 충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취업 후에도 실무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업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을 숙달함으로써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고, 데이터 분석 및 정리에도 능숙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임상 교육을 하다보면 장비 및 임상에 대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자료 조사 및 데이터 분석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연습했던 내용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

• 공모전에 도전하기

공모전 도전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공모전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때마침 학교에서 ESG 공모전이 열린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내가 이 공모전에 지원한 이유는 ESG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였고,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학교 내에서 ESG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환경 보호 의식과 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장려상을 수상했다. 공모전에 도전했던 이 경험을 통해 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취업 후에도 새로운 도전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발전하는 사람이 되자

의료기기 회사가 많이 낯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낯설었고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땐 적응하느라 바빴다. 짧은 인수인계로 지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퇴근 후에도 업무 관련 서적을 읽으며 공부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노력한 덕분에 나는 1년 반

만에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자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

나는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앞으로 3년 내로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회사 생활과 대학원 생활을 병행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모두 마친 후에 대학원에 지원할 예정이다.

질문하고 또 질문해라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후배들에게 한 가지 조언하고 싶은 것이 있다. 선배들과 교수님에게 최대한 많이 질문하면 좋겠다. 이미 직장에 들어가 있는 선배들에게 일은 어떤지, 취업 준비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등 궁금한 것이 있다면 꼭 직접 물어보길 바란다.

먼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에게 직접 물어본다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후배가 물어본다고 해서 화를 낼 선배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카톡이 오거나 전화가 와서 물어본다고 해도 나는 화내지 않고 내가 해 줄 수 있는 모든 조언을 해 줄 것이다.

나는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그리고 취업을 한 지금도 교수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내가 모르는 것을 교수님은 알고 계실지도 모른다. 그러니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현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창의융합

의약
바이오학과

대학 생활의 보물, 학점 이상의 가치! 다양한 경험의 중요성

코아스텝캠온(주) 노OO

학점만큼 중요한 것 = 다양한 경험

취업을 위해 학점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데 있어,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다양한 경험을 늦게나마 즐겨 보았다는 점이다. 우리 학과가 논산에 위치해 있어 타 대학과의 소통에는 한계가 있었다. 처음 몇 학년 동안은 이 위치적 한계를 핑계 삼아 외부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3~4학년이 되면서 방학을 활용하여 다양한 도전에 나섰다.

첫 번째, 3학년 여름방학 때, GMP 컨설팅 회사에서 업무 작업을 서포팅해 주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우리 과는 주로 GLP위주의 교육을 받았었는데, 일을 통해 GMP라는 분야를 조금이나마 경험하며 시야를 확장할 수 있었다. 주로 문서 작업을 했는데 일을 하며 내가 사무직이 맞을지, 활동적인 직무를 하면 좋을지 등 나의 업무 스타일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였다. 회사를 경험하며 이 직무가 나의 성격과 잘 맞을지 판단할 수 있는 점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두 번째로, 4학년 때 외국계 기업에서 다른 대학 학생들과 함께 바이오 교육 및 실습을 진행한 적이 있다. 처음으로 다른 학생들과 소통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었다. 그곳에 바이오/제약 분야에 대한 열정이 넘치고 관심이 많은 친구가 있었기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자극제 역할도 되었다.

대학생의 신분으로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이 정말 많다. 링커리어, 에브리타임 등의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카카오톡에 '대외활동봇-링커리어'를 친구 추가 하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대외 활동을 알려 준다. 놓치지 말고 대학생 신분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자.

영어는 꾸준히

제약/바이오산업에서는 공인 영어 성적과 스피킹 실력이 필수 요건으로 생각된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영어로 된 자료를 다루기 때문에 독해 실력이 부족하다면 해당 직무에서의 성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3~4학년이 되면 영어 공부를 할 시간 외에도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비교적 시간이 여유로운 1~2학년 때를 활용하여 높은 공인영어성적을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1~2학년 때에는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영어 관련 교양 수업을 병행하면서 토익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한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토익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자주 시험이 열리므로 이 기회를 통해 실력을 검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3~4학년에는 스피킹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토익 점수를 가장 중요시했지만, 요즘엔 스피킹 실력을 1순위로 생각하는 추세이다. 스피킹 실력을 자연스럽게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과의 소통이 가장 효과적이다.

우리 학교에는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있는데, ‘글로벌 버디’라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자신의 외국어 수준에 맞춰 1:1로 유학생과 매칭되는 시스템이다. 나 같은 경우에도 말레이시아 출신 친구와 매칭이 되어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면서, 영어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도움을 받고 있다. 학교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니 많이 활용하길 바란다.

교수님, 선배와 끊임없이 소통해라

1학년 때에는 교수님들이 그저 강의를 해 주시고 다가갈 수 없는 존재로 느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수님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고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깨달았고, 이를 토대로 교수님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

에는 먼저 상담을 신청하고 방문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교수님들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가장 잘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었다.

특히, 나 같은 경우에도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교수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분야나 원하는 직무에 필요한 스펙 등에 대해 자유롭게 물어보면서 큰 도움을 받았다. 또한 선배들도 교수님만큼이나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었다. 우리 분야는 생각보다 좁아서 한 다리만 거치면 다 알 수 있다. 따라서 궁금한 직무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선배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그들은 누구보다 그 직무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채용 정보를 자주 확인하자

취업을 앞둔 4학년 친구들은 채용 사이트를 많이 찾아보면서 어떤 스펙을 준비해야 하는지 참고하는 것이 좋다. 구직 정보를 보면 우대사항 및 필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내가 만약 가고자 하는 회사 및 직무가 있다면 그에 맞춰서 자격증 등을 준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회사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돈을 많이 주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회사는 아니며, 자신과 이념이 맞고 이상적인 회사를 찾아 그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생소한 직무들도 많은데, 이와 관련하여 알아보고 찾아보면 자신과 직무 성격이 잘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보통은 4학년 2학기(졸업예정) 때부터 취업이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관심을 가지며 많은 이력서를 제출해 보길 바란다.

후배들에게 전해 주고 싶은 말

학교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 봤으면 좋겠다. 오로지 공부에만 몰두하고 학점에만 신경을 쓰는 것만으로는 대학 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 같다.

학생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은데, 특히 일 년에 약 5개월 이상의 방학 기간이 있다는 점이다. 평소 내가 관심이 있었던 전공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일(아르바이트 또는 현장실습)을 하면서 현직자들과 소통하면 인터넷이나 SNS에서는 얻을 수 없는 취업과 회사 생활에 관한 꿀팁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해당 분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지, 아니면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직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점이다. 물론 정식으로 회사에 입사해서 일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해 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행을 많이 다녀라. 우리는 매번 짜인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생활하곤 한다.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다가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면 다양한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으며, 현재의 목표보다 더 큰 목표를 갖게 되는 자신감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취업 후에는 여행을 마음대로 다니기 힘들어지므로, 지금 많이 여행할 것을 추천한다.

특히, 우리 분야(제약/바이오)의 경우에는 영어가 정말로 중요하다. 전공과목을 수강하면서 여러 개의 보고서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알다시피 대부분의 문서가 영어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면 해당 분야에서 일할 때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자. 학교생활 동안 교수님들께서 영어 성적뿐만 아니라 스피킹 능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해 주었고, 나 또한 회사에서 스피킹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 후배들은 미리 스피킹을 준비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노력하는 후배들을 정말 대단하게 생각한다.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면서 취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것 같지만, 간절히 준비하고 꾸준히 도전하는 친구들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앞으로 사회의 냉정한 평가와 몇 번의 좌절감이 찾아오겠지만,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말고 나를 알아주는 회사를 만나는 날까지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취업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하길 바란다.

창의융합

임상의약
학과

다양한 경험과 노력을 통해 취업의 문턱을 넘다

포트리아코리아 강OO

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

대학생 시절, ‘취업’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을 때 나와 가까워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막연한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있다. 1학년 때는 상대적으로 취업이 가볍게 느껴졌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은 더욱 무거워지고, 생각도 점점 달라졌다. 이 변화와 함께 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도 달라져 갔다. 이에 따라 학년별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전반적인 과정을 소개하겠다.

1학년, 전공 수업에 주력하기

우선 1학년 때에는 전공 수업에 주력했다. 임상의약학과 전공은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졌다. 학과를 선택했지만 임상시험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더 복잡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었고, 처음 듣는 용어들로 가득한 상황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어렵다고 생각했더라도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공부에 임했다.

1학년 전공은 4년 동안 배울 모든 전공과목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수업을 듣고 기초를 쌓았다. 수업에서 가장 집중한 부분은 팀플 수업이었다. 임상시험은 여러 사람과 기관이 협동하는 거대한 팀플이기 때문에 협동 업무에 익숙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팀플 수업에 주어진 In-class 해결을 위해 팀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은 그날

배운 수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1학년 때의 전공 수업 열심히 듣기는 2~4학년 동안의 학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현재의 취업 후 경험에서도 여전히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전공 수업 이외에 집중한 부분은 발표 능력 향상이었다. 전공 수업을 통해 PSV, SIV 등을 진행하며 여러 분야에서 발표하는 경험을 쌓게 되었다. 교수님들, 연구진, 의뢰사 앞에서 연구계획서를 설명하고 임상시험 진행 절차를 소개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중요한 상황에서 발표 능력이 높아져야 한다는 인식이 들었다. 그래서 학과 내 ‘스피치’ 동아리에 참여하게 되었다.

동아리에서는 원하는 주제를 정하고 동아리원들 앞에서 발표하며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동아리원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피드백 덕분에 발표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 가게 되었다. 이 동아리를 통해 향상된 발표 능력은 전공 수업에서 발표할 때와 면접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다.

2·3학년, 나만의 강점 갖추기

2~3학년 때에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나만의 강점을 갖추기에 주력했다. 취업을 고려할 때 먼저 생각한 것은 자기소개서였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려면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나만의 강점을 찾아내어 그것을 자기소개서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학생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기로 결정했다.

학과 부학생회장을 맡으면서 여러 사람들과의 소통, 다양한 문제 해결 경험을 통해 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3학년 때에도 학과 학생회장을 맡게 되었고, 이를 통해 리더십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학생회 활동이 취업에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나만의 강점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어떠한 경험이든 그 경험에

서 자신의 강점을 찾아 그것을 점차 뚜렷하게 세워 나간다면 이를 자기소개서에 자연스럽게 녹여 양질의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나만의 강점을 찾는 동시에 업계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했다. 취업을 희망하는 업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최신 트렌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면접 준비와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생각했다. 이에 학과 내 동아리를 통해 업계 동향 파악에 노력했다.

EMR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정해진 주제의 이슈들을 파악하고 조사하여 기사를 작성하면서 최신 동향을 살펴볼 수 있었고, 기사 작성을 통해 문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기를 수 있었다. 이 활동은 면접 준비 중 최신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4학년, 실무와 관련된 경험 쌓기

4학년 때에는 취업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실무와 관련된 경험을 해 보고자 외부 활동을 신청했다. Comento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CRA 직무 현직자와 함께하는 실무 체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CRA 직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은 CSA에 필요한 항목, 이슈 발생 시 메일 보내는 방법, SIV를 위한 CSP 요약 등 CRA가 하는 주요 업무들을 직접 체험하고 피드백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CRA가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실제로 하는 일을 체험하면서 직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고, 직무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4학년 때 가장 가치 있게 느꼈던 활동은 캡스톤 디자인 수업이었다. 이 수업을 꼭 집중해서 들었으면 한다. 이 수업을 통해 임상시험의 타깃 질환부터 시험 방법까지 직접 탐구하여 하나의 임상시험 계획서 시놉시스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내가 정한 타깃 질환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임상시험이 대상자에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유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설계하는

과정을 이해하며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높아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 실력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전 학년을 통틀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영어 실력이었다. CRA라는 직무는 영어와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직무이다. 모든 임상시험 용어가 영어로 되어 있고, 글로벌 제약사와 일하게 된다면 메일부터 시작해서 회의, 발표 등을 영어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CRA 직무는 영어가 필수이기 때문에 미리 실력을 향상시켜 놓는 것이 중요하다. 토익 점수를 기업 요구치까지 올리기 위해 공부에 힘썼고, 학교 프로그램은 활용하지 않았지만 ‘토익팍팍’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추천한다.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하기

면접 준비와 자소서 작성의 경우, 나는 친구들과 함께 동아리까지는 아니지만 모임을 만들어 준비했다. 지원하려는 직무가 같기 때문에 서로 예상 질문들을 정리하여 면접 태도와 답변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보완해 나갔다. 또한 자소서의 경우도 본인 것을 혼자 계속 읽다 보면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자소서를 검토하며 오류 및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가감 없이 말해 주는 방식으로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

우리 학과의 특성상 직무 관련 자격증이나 관련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므로 전공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취업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과 내의 특성 때문에 직무와 직결되는 자격증이나 활동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내가 전공하는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생회 활동이나 학과 동아리, 대외 활동 등을 다양하게 경험해 보는 것은 나만의 밑거름이 되며, 현실적으로는 자소서와 이력서에 다른 지원자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다양한 경험들이 이후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니, 기회가 주어진다면 활용해 보는 것이 좋겠다.

내가 언급한 취업을 위한 노력들이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다. 각자의 상황과 성향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찾아 열심히 노력한다면, 처음에는 먼 것처럼 느껴지던 취업의 문턱이 어느샌가 가까워질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나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때에도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은 취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셔서 나처럼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망설이는 자에게는 취업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 떨어지는 것이 두렵더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도전한다면, 최선을 다해 도전하는 자에게는 꼭 그에 걸맞은 성공이 돌아올 것이다. 나의 글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